

연구보고 2010-39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2010. 12.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연구책임자: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자: **채규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중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정명희** (한국여성상담센터)

정민철 (휴앤유재활병원 임상심리실 수퍼바이저)

정화숙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연우석**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여성가족부

본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한국여성상담센터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서 문

2005년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연구에 이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효과성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5년이 지난 우리 사회 상황은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해자 치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아직도 미흡하지만, 2005년도 개발된 매뉴얼을 토대로 그 동안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치열한 열정과 애정을 쏟아 부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날로 흉포화 해지는 성폭력 사건으로 목살을 앓고 있고, 급기야는 전자추적 장치 시스템,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려질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위험 수준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위기 대처 식의 일회성 처방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폭력 범죄의 감소는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캐나다, 미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처벌은 하되 엄격한 관리 하에 교정·치료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재범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터라 이전 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풍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특성과약 및 심리치료적인 접근 들은 있어왔으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특성과약 및 심리치료적인 접근은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처벌위주의 개입 방안만으로는 재범률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재범자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가해자 교정·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나 관련자료, 개입 방안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의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특성과 치료적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

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2006년부터 시행해 왔던 프로그램 매뉴얼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셋째,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연구로 이루어 졌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들의 교정·치료의 핵심적 요소를 발견해냄으로써 향후 개발될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성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치료적 특성은 강간통념, 충동성, 성 대응 대처전략, 양성평등, 공감반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전국의 성폭력 가해자 91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우울, 강간통념, 성 대응전략, 공감반응, 양성평등 의식 등 통계 전반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충동성, 강간통념, 양성평등, 공감 반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예비 프로그램에는 2005년도 개발된 매뉴얼의 취약했던 부분 즉 가해자들의 정서적 체험, 자존감 향상, 위험대처 전략 등을 강화하여 가해자들의 재발방지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여 실시했습니다. 예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결과, 강간통념의 상당한 변화와 우울감의 감소, 양성평등 의식의 상당한 변화, 충동성 변화, 성 대응 전략의 감소 등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효과성 연구를 해주신 성신여대 심리학과와 채규만 교수님, 특성연구를 해주신 대구대 재활심리학과와 박중규 교수님에게 머리 숙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매뉴얼과 효과성 분석을 위해 고생하신 한국여성상담센터의 정명희 선생님과 성신여대 심리학과와 정민철, 연우석 선생님, 대구대의 정화숙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본 매뉴얼 개발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님, 권익기획과 과장님, 실무를 담당하신 최훈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가 가능하게 해 준 이 땅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그들의 용기와 결단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

책임연구자 현 혜 순

목 차

연구 요약1

제 1부 : 서 론 부

제 1 장 서 론29

제 1 절 문제제기 ▷ 29

제 2 절 연구목적 ▷ 30

제 2 장 이론적 배경31

제 1 절 성폭력 가해자 특성32

1. 인지적 왜곡 ▷ 32
2. 공감능력 ▷ 33
3. 자존감 ▷ 33
4. 사회적 기술 ▷ 35
5. 대처방식과 정서조절 ▷ 36

제 2 절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37

1. 생물학적인 이론 ▷ 37
2. 애착 이론 ▷ 38
3. 발달 이론 ▷ 38
4. 사회문화적인 환경 ▷ 39

제 3 절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모델 개관40

1.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변천과정 ▷ 41
2.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들 ▷ 44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폭력 모델 ▷ 45

제 4 절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효과성에 관한 연구59

1. 비용을 고려한 효과 ▷ 59
2.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60
3. 재발률과 관련된 성공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 ▷ 63
4. 재발 방지 모델과 성폭력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안 ▷ 68

제 5 절 국내외의 성폭력 가해자 개입현황79

1. 외국의 가해자 교정·치료의 개입현황 ▷ 79
2. 우리나라의 가해자 교정·치료의 개입현황 ▷ 88

제 2 부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연구

제 3 장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방법93

1. 연구 대상 ▷ 93
2. 측정 도구 ▷ 93
3. 통계적 분석 방안 ▷ 97

제 2 절 연구 결과97

1. 연구 대상의 특성 ▷ 97
2.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 101
3.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 102
4.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103

제 3절 제언105

제 3 부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제 4 장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제 1절 연구 방법113

1. 연구 대상 ▷ 113
2. 측정 도구 ▷ 113
3. 통계적 분석 방안 ▷ 115

제 2 절 연구 결과116

1. 연구 대상의 특성 ▷ 116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120
3.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 122
4. 프로그램 효과의 영향 요인 분석 ▷ 126
5. 프로그램 만족도 ▷ 127

제 3 절 제언129

제 5장 성폭력 가해자 예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제 1 절 연구 방법133

1. 연구 대상 ▷ 133
2. 측정 도구 ▷ 133
3. 통계적 분석 방안 ▷ 136

제 2 절 연구 결과136

1. 연구 대상의 특성 ▷ 136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139
3. 프로그램 만족도 ▷ 140

제 3 절 제언142

제 6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실태조사

제 1 절 연구 방법143

1. 연구 대상 ▷ 143
2. 측정 도구 ▷ 143
3. 통계적 분석 방안 ▷ 143

제 2 절 연구 결과143

1. 연구 대상의 특성 ▷ 143
2. 상담 경력 및 관련 사항 ▷ 144
3.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내용 ▷ 145
4. 가해자 상담 시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 ▷ 146
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기타 사항 ▷ 147

제 3 절 제언149

제 4 부 : 결론 및 정책제언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언153

참고문헌155

부 록

- 〈부록 1〉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실태조사 설문지
- 〈부록 2〉 한국의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사전 조사)
- 〈부록 3〉 한국의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사후 조사)
- 〈부록 4〉 한국인의 성 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표 목 차

표 1. 재발방지 모델과 성폭력프로그램 효과성	69
표 2. Ward와 Hudson의 9단계 자기 조절 모델	75
표 3.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요인	97
표 4. 집단별 평균 연령 비교 결과	98
표 5. 일반적 사항 비교 결과	99
표 6. 성범죄 전력 비교 결과	100
표 7. 피해자와의 관계 비교 결과	101
표 8.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102
표 9.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비교 결과	104
표 10. 성대응 전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3
표 11. 인구통계학적 정보	118
표 12. 프로그램 효과	121
표 13. 학력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	124
표 14. 성범죄 초범/재범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	125
표 15. 프로그램 교육시간에 따른 효과차이	126
표 16. 프로그램에 대한 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127
표 17. 프로그램 만족도	128
표 18. 예비프로그램 인구통계학적 정보	137
표 19. 예비 프로그램 효과	140
표 20. 예비 프로그램 만족도	141
표 21. 연구대상의 특성	144
표 22. 상담경력 및 관련 사항	145
표 23.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관련 내용	146
표 24. 가해자 상담시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	147
표 2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관련 기타사항	148

연구 요약

I. 서론

1. 문제제기

- 성폭력 범죄 증가율이 전체 범죄에 비해 높고, 재범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과 치료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사업인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보완점이 규명될 필요가 있음.
- 2007년부터 13개 기관에 확대 시행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과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통해 새로이 개선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청되며 이의 효과성 검증도 필요함.

2. 연구목적

- 한국 상황에 맞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교정·치료적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교정·치료 개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음.
 - 보호관찰소, 교도소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해자 특성연구를 진행함.
 -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매뉴얼 개발 연구.
-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활용.
 - 전국의 가해자들의 상담소, 치료 기관에서 활용 가능함.
 -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상담전문가, 교육자 등을 확

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1. 인지적 왜곡

-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인(denial)과 축소, 합리화 등을 보이며 강간통념도 왜곡되기 쉬움.
- 여자를 외모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아동 피해자를 덜 위협적이고 성인보다 관계 맺기 쉬운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

1-2. 공감능력

-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성폭력 가해자는 감정 인식 기술이 부족하고 특히 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 둔감함.
- 성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은 대조집단에 비해 범행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1-3. 자존감

-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존감이 낮았고, 특히 아동 성추행범은 더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음.
-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은 친밀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처행동으로 간주됨.
-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성폭행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됨.

1-4. 사회적 기술

-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인과의 애정적인 관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얻는데 문제가 있음.

1-5. 대처방식과 정서조절

-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함.
- 성폭력 가해자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일탈된 성행동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음.
- 성폭력 가해자들은 전형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처 방식으로 성을 사용한다고 함.

2.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

성폭력 발생의 원인은 생물-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따라서 개입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함

2-1. 생물학적인 이론

- 인간의 두뇌는 성욕(sexuality)과 애착(attachment), 양육(nurturing)의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
- 남성은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과 애착과 유대감을 강하게 느낌. 또한 애정과 양육의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어린 시절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욕구 조절에 실패하는 취약점이 있음.

2-2. 애착 이론

- 인간은 양육자와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내적인 작동(internal working model) 모델을 형성하며, 이러한 내적인 작동 모델이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영향을 줌.
- 아동기의 취약한 애착이 학대적인 환경과 연결되면 폭력적,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짐.

2-3. 발달 이론

- 초기 발달기에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서적, 성적인 욕구를 변태적으로 충족하게 됨.

2-4. 사회적인 환경

-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환경이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는 관점.
- 가부장적인 가치관,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치관이나 행동들, 여성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이러한 환경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은 가족과 또래의 영향, 상황적인 이론 등이 있음.

3.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모델 개관

- 1970년대 중반에는 사회기술훈련이 포함된 성치료프로그램들이 연이어 개발되었고 1975년에는 행동치료협회(AABT)의 심포지엄에서 성학대자 행동치료협회(Association for th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Abusers, 현재의 ATSA)가 태동하게 됨.
- 1980년대에는 치료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인지적 재구조화, 공감능력 증진과 같은 인지행동치료의 요소들이 보다 풍부하게 추가됨.
- 통합적 접근은 Marshall 및 Fernandez 등이 캐나다의 Ontario 지역에 있는 교정국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것으로 이 지역의 모든 가해자들은 그들의 안전요구와 재범 가능성, 치료 욕구에 따라 평가되고 처우가 이루어짐.
- 인간의 웰빙을 강조하는 치료 모델은 새로운 나(new me)와 이전의 나(old me)의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
- 송원영(2006)은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공은경(2004)과 임영선(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집단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음.

- 이은진(200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음.

3-1.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연구

1)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역사와 변천 과정

- 1930년대 미국에서 Sexual Psychopath 법령을 제정하는 등 위험한 인물로 성폭력 가해자들을 분류했지만 치료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았음.
- 1950-1960년대 정신분석이론을 도입해서 18개월간 치료했으나, 20%가 재발했고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음.
- 1970년대 미국의 치료분위기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는 분위기였으나, 방법론적 문제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진 것이었음. 효과가 없다는 식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교도관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정신분석 및 인간중심적 접근이 효과가 미미하여 행동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성적일탈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일상생활에 전이되지 못하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인지나 가치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됨.

2)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들

- 1970년 후반과 1980년대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되기 시작하였으며, McGuire(2000)는 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률을 10%만 감소시킬 수 있어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
- 성폭력 가해자를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재범비율을 25%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교도소 중심의 처벌에 초점을 둔 결과 성폭력 가해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없이 재범률이 증가하는 추세일 수 있음.
- 일탈적 성적 환상 등의 인지적 요소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지행동치료가 자리 잡고 있음.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폭력 모델 개관

- Finkelhor의 아동 성폭력의 통합적 이론(integrated theory of child sexual abuse)은 성폭력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성폭력을 실행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지식에 근거한 모델임.
- Wolf의 변태적 성욕의 다중요인 이론과 같은 성폭력 유지모델(maintenance model)은 가해자들이 성폭력 발생의 초기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자신들의 성폭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음.

4) 성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최근의 모델

- Marshall 과 Barbree(1990)의 통합적인 모델은 성폭력의 동기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성충동이나 성폭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가정함.
- Ward와 Siegert의 경로 모델(pathway model)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애착문제, 포르노 또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왜곡을 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사이코패스와 같은 반사회적인 성적 소유자의 성폭력 등 다양한 경로를 설명할 수 있으나, 성폭력 재범이 어떻게 유지되는 지에 대한 관점이 취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함.
- Ward와 Hudson의 자기 통제 모델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회피-수동적, 회피-적극적, 접근-자동적과 접근-적극적으로 4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다양한 성폭력 자들을 설명하려 함.
-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효과가 검증가능하고 성폭력 발생 초기 과정, 실행과정, 유지 과정을 설명하며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5) 프로그램 내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들은 부정을 최소화하기, 인지적 왜곡과 인

지적 재수정, 피해자 공감하기, 일탈적인 성적환상 대처, 성충동 조절방략, 재발 방지, 양성평등의식 전환, 자존감 향상,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어린 시절의 상처치유, 사회기술훈련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실시비용, 중도탈락률, 프로그램순응정도, 정신병력과 같은 가해자 특성, 집단 응집력, 치료자 스타일, 프로그램 진행과정, 치료기법에 따라 달라져야 함.
- 프로그램 효과를 위해 집단 치료 시 주의사항을 잘 전달하고 진행과정에서 5C(직면, 신중하기, 인정하기, 통제, 지속성/연속성)의 요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임.
- 사이코패스에 대한 치료에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으로 인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있음.
-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인지적인 요소로 뿌리 깊은 스키마가 작동하며, 그러므로 성폭력을 하게 만드는 스키마를 알아차리게 치료해야 좀 더 확실할 수 있음.
- 프로그램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재발방지 모델로 Marques 등의 재발 방지모델, 자기조절 재발 방지모델, Ward와 Hudson의 9단계 자기 조절 모델이 있음.
-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재발률을 줄이는데 10-12%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

6) 각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의 현황

- 캐나다 교정치료국(CSC)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Barbaree 및 Marshall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단계적이고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주정부의 교정국이나 법무국에서 실시하며 프로그램 기간이 1년-5년, 프로그램 장소도 주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음.
- 영국과 아일랜드는 인지행동치료기법에 근거하며 성폭력 치료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인증작업을 진행함.
- 호주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교도소와 지역 보건관련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함.

- 뉴질랜드는 법무부에서 Kia Marama와 같은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재소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함.

7) 우리나라의 성폭력 교정 치료 프로그램

- 2000년 이후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주 동안 20-40시간으로 시작해서 최근 90시간으로 시행시간이 늘어났지만 치료기간이 단기적임.
-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로 근거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치료사 자격기준이 미비하여 교육의 연결성과 일관성이 부족함.
- 훈련된 성폭력 가해자 치료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교도관들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III.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연구

1. 연구 방법

1-1. 연구 대상

- 서울, 경기, 호남, 경상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2010년 6-11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음.

1-2. 측정 도구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 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성태도에 대한 요인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음.
- 범죄 관련 요인
 - 범죄 전력, 성범죄 피해자 관련 요인, 책임 수용 여부
- 심리적 요인
 - 우울, 분노, 자존감, 사회적 고립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대인관계 고립과 단절 신념(YSQ), 반사회성(PCL-R) 척도
- 성태도에 대한 요인

- 성충동 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 척도

1-3. 통계적 분석 방안

-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 빈도 분석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범죄 관련 요인들의 특성을 알아봄.
- 교차 분석, t 검증을 통해 보호관찰소 집단과 교도소 집단 간에 주요 요인별 차이를 분석함.
- 상관분석,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분석함.

2. 연구 결과

2-1. 연구 대상의 특성

전체 대상자 141명을 보호관찰소 집단과 교도소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대상자 141명 모두 남성이었음.
- 보호관찰소 집단 평균 연령 34.38세로 30대가 가장 많음.
- 교도소 집단 평균 연령 41.36세,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교도소 집단의 평균 연령이 보호관찰소 집단의 평균 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음($t=-4.248, p<.01$).

1) 일반적 사항

- 결혼상태 : 전체 대상자 모두 미혼이 가장 많음.
- 학력 : 전체 대상자 모두 고등학교 중퇴/고졸이 가장 많음.
- 직업 : 전체 대상자 모두 '기타'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음주 습관 : 전체 대상자 모두 주 1-2회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2) 성범죄 전력

- 최초 입건 연령 : 보호관찰소 집단은 13-18세, 교도소 집단은 19세 이상 가

장 많음.

- 폭력 범죄 전력 : 전체 대상자 모두 '해당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과거 성범죄 전력 : 전체 대상자 모두 이번이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시설 총 수용 기간 : 보호관찰소 집단은 2년 미만, 교도소 집단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음.
- 폭력 사용 여부 : 전체 대상자 모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 전체 대상자 수용한다는 응답이 많음.

3)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유형 : 전체 대상자 모두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 연령 : 전체 대상자 모두 18세 이상이 가장 많음.
- 피해자 수, 성별 : 전체 대상자 모두 한 명의 여성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 보호관찰소 집단은 10살 이내의 차이가 10살 이상의 현저한 차이보다 다소 많았으나 교도소 집단은 차이가 별로 없음.
- 폭력 사용 여부 : 전체 대상자 모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직업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chi^2=19.22, p<.01$).
- 시설 수용 기간은 보호관찰소 집단은 2년 미만(46.6%), 교도소 집단은 5년 이상(69.8%)이 가장 많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chi^2=31.131, p<.01$).
- 과거 성범죄 전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chi^2=12.060, p<.05$).
- 이번 사건 피해자 수는 보호관찰소 집단은 1인 이상이 86.4%, 교도소 집단이 60.9%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chi^2=10.876, p<.01$).
- 그 외의 일반적 사항, 성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2.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 자존감

· 보호관찰소 집단이 교도소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유의하게 낮음($t=-2.293$, $p<.05$).

○ 공감 능력

· 보호관찰소 집단이 교도소 집단에 비해 공감 능력이 유의하게 낮음 ($t=-2.048$, $p<.05$).

2-3.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 성대응과 PCL-R 척도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620$, $p<.01$).

○ 수치심과 YSQ 척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536$, $p<.01$).

○ 강간통념과 YSQ 척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526$, $p<.01$).

○ 양성평등과 강간통념 높은 척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508$, $p<.01$).

○ YSQ와 충동성 척도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505$, $p<.01$).

○ 우울과 자존감 척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r=-.519$, $p<.01$).

2-4.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성대응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PCL-R과 분노, 성충동대처, 양성평 등 척도($F=32.965$, $p<.01$)였으며,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7%이었음.

3. 제언

○ 일반적으로 성폭력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미혼의 30~40대로 평균 학력수준 고졸 이하, 기타 직업군 종사자가 가장 대표적인 양상으로 요약됨.

○ 교도소 집단이 평균연령 41세에 재소기간 5년 이상, 피해대상 2인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별거 및 이혼 경향 및 최초 입건 연령이 약간 더 높은 양상을 보임.

○ 성폭력 가해자의 성대응 전략은 반사회적 성격특성, 분노, 성충동 대처, 양성평등 4가지 변수가 47.7%의 설명량을 보임. 이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개입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입증하는 결과임.

- 본 연구는 일부 소수의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다수의 실제 사례의 응답을 기초로 했다는 의의를 가짐.
-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넘어 면대면 면담 등을 통한 개별 심층사례연구들이 동원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 성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단계 및 사법, 교정절차, 치유 및 재활, 사회복귀, 재발방지의 전 단계에서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성폭력 사범의 특성을 추적 기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조사양식을 도입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특성연구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인력이 사태의 초기부터 개입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전문 인력 육성에 관심도 필요함.

IV.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1. 연구 방법

1-1. 연구 대상

- 서울, 경상도, 강원도에 소재한 8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9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

1-2. 측정 도구

-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 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성태도에 대한 요인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음.
- 범죄 관련 요인 : 범죄 전력, 성범죄 피해자 관련 요인, 책임 수용 여부
- 심리적 요인 : 우울, 분노, 자존감, 공감, 충동성
- 성태도에 대한 요인 : 성충동 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

1-3. 통계적 분석 방안

-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대응 t 검증을 통해 분석함

- 학력수준(중졸이하/고등중퇴이상), 성범죄 전력(초범/재범), 피해자의 연령(13세 미만/13세 이상), 프로그램 교육시간(40시간 미만/40시간 이상) 별로 독립 t 검정 또는 Mann-Whitney검정.
-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

2. 연구 결과

2-1. 연구 대상의 특성

- 전체 대상자 91명 모두 남성, 20-69세 연령범위에 평균 37세였으며 사전, 사후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일반적 사항

- 결혼상태 : 미혼이 가장 많았음.
- 학력 : 고졸이하가 가장 많음.
- 직업 : '기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음주 습관 : 비음주자가 가장 많음.

2) 성범죄 전력

- 최초 입건 연령 : 13-18세가 가장 많음.
- 폭력 범죄 전력 : '해당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과거 성범죄 전력 : 이번이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시설 총 수용 기간 : 5년 이상의 수용기간이 가장 많음.
- 폭력 사용 여부 :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음.
-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 '책임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3)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유형 : 대상자에서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 연령 : 피해자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 수, 성별 : 대상자 모두 한 명의 여성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 연령차이가 10살 미만인 경우가 많음.

2-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척도변인

- 우울감 감소($t=2.013$, $df=78$, $p<.05$, 일방향).
- 자존감 향상($t=3.280$, $df=87$, $p<.001$, 일방향).
-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t=4.245$, $df=84$, $p<.001$, 일방향).
- 공감능력 향상($t=3.771$, $df=88$, $p<.001$, 일방향).
-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 감소($t=2.864$, $df=85$, $p<.05$, 일방향).
- 충동성이 낮아짐($t=1.958$, $df=80$, $p<.05$, 일방향).
- 양성평등의식 향상($t=3.349$, $df=87$, $p<0.001$, 일방향).

○ 척도 하위변인

-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t=4.070$, $df=84$, $p<.001$, 일방향),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t=2.584$, $df=84$, $p<.01$, 일방향), 성폭행 피해책임 귀인($t=3.566$, $df=84$, $p<.001$, 일방향), 피해자가 경솔했다($t=3.346$, $df=84$, $p<.0001$, 일방향),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t=2.053$, $df=84$, $p<.05$, 일방향),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t=3.828$, $df=84$, $p<.001$, 일방향)에 대한 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변화.
- 공감능력: 인지공감능력($t=2.905$, $df=88$, $p<.01$, 일방향)과 정서공감능력($t=6.201$, $df=88$, $p<.001$, 일방향)이 향상.
- 스트레스상황에서 성적대처 : 환상($t=2.462$, $df=85$, $p<0.01$, 일방향), 자위($t=1.742$, $df=85$, $p<.05$, 일방향), 포르노 이용($t=3.473$, $df=85$, $p<.001$, 일방향)에서 대처가 감소.
-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감소($t=3.092$, $df=85$, $p<.01$, 일방향)
- 성충동 대응: 성적공상이 감소($t=1.943$, $df=86$, $p<.05$, 일방향)

2-3. 주요변인에 따른 집단 간 비교 결과

○ 학력수준(중졸이하/고졸중퇴이상)

- 강간통념척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의 강간통념이 더 높음($U=475.000$,

- N1=22, N2=63, $p < .05$), 하위요인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U=506.000, N1=22, N2=63, $p < .05$),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U=453.000, N1=22, N2=63, $p < .05$),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U=493.000, N1=22, N2=63, $p < .05$), 피해자의 경솔(U=465.000, N1=22, N2=63, $p < .05$)에서 더 강간통념이 높음.
- 상대응척도: 저학력자들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U=483.000, N1=22, N2=63, $p < .05$), 환상(U=453.000, N1=22, N2=63, $p < .05$), 실제 성행위(U=503.000, N1=22, N2=63, $p < .05$)의 하위요인에서도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더 높은 수준
 - 충동성척도: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이 충동성이 더 높았으며(U=413.000, N1=22, N2=59, $p < .05$), 하위요인에서는 무계획 충동성(U=450.500, N1=22, N2=59, $p < .05$)과 인지충동성(U=451.500, N1=22, N2=59, $p < .05$)에서 유의미하게 고학력자들에 비해 높음.
 - 성충동대처척도: 학력이 낮은 경우 성충동대처가 높았고(U=524.500, N1=23, N2=64, $p < .05$), 하위요인인 성욕통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의 수준이 높음(U=390.000, N1=23, N2=64, $p < .01$).
- 성범죄 전력(초범/재범)
- 상대응척도: 재범자들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U=462.000, N1=61, N2=22, $p < .05$), 4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위(U=502.000, N1=61, N2=22, $p < .05$), 포르노이용(U=498.500, N1=61, N2=22, $p < .05$), 실제 성행위(U=448.500, N1=61, N2=22, $p < .05$)의 3가지 요인에서 재범자들의 점수가 더 높음.
 - 성충동척도: 재범자들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고(U=472.500, N1=62, N2=22, $p < .05$), 성적공상(U=434.500, N1=62, N2=22, $p < .01$), 성적행동(U=472.000, N1=62, N2=22, $p < .05$)의 하위요인에서도 같은 결과.
 - 강간통념척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서 재범자들이 유의하게 높음(U=496.000, N1=61, N2=22, $p < .05$).
- 피해자 연령(13세 미만/13세 이상)
- 성충동대처척도: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 보임(U=276.500, N1=12, N2=73, $p < .05$). 하위유형에서 성

적행동($U=281.000$, $N_1=12$, $N_2=73$, $p < .05$)에서도 13세 이상의 대상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높았음.

○ 교육 프로그램 시간(40시간미만/40시간 이상)

- 자존감($t=-2.05$, $df=82$, $p < .05$, 양방검증), 강간통념($t=2.369$, $df=82$, $p < .05$, 양방검증), 공감($t=-2.28$, $df=83$, $p < .05$, 양방검증), 성대응($t=4.283$, $df=79.95$, $p < .001$, 양방검증), 성충동대처($t=2.926$, $df=81$, $p < .01$, 양방검증).
- 하위요인: 강간통념에서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t=2.733$, $df=82$, $p < .01$, 양방검증),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t=2.395$, $df=82$, $p < .05$, 양방검증). 공감에서는 인지공감($t=-2.27$, $df=44.14$, $p < .05$, 양방검증), 정서공감($t=-2.77$, $df=83$, $p < .01$, 양방검증). 성대응에서는 환상($t=4.707$, $df=78.42$, $p < .001$, 양방검증), 자위($t=2.251$, $df=81.95$, $p < .05$, 양방검증), 포르노이용($t=3.011$, $df=80.20$, $p < .01$, 양방검증), 실제 성행위($t=4.927$, $df=73.48$, $p < .001$, 양방검증). 충동성에서 무계획 충동성($t=2.231$, $df=81$, $p < .05$, 양방검증), 인지충동성($t=2.068$, $df=80$, $p < .05$, 양방검증), 성충동대처 성욕통제($t=1.998$, $df=81$, $p < .05$, 양방검증) 등의 하위변인 들에서 유의미한 결과 나타남.

2-4. 프로그램 효과의 영향요인분석

-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 분노, 공감, 우울의 변인이 모두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Delta R^2=.938$, $F(9,69)=31.06$, $p < .001$).
-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에 대한 설명력
 - 충동성: 30.4%의 효과를 설명($\Delta R^2=.304$, $F(1,68)=31.067$, $p < .001$), 이후 자존감이 포함되면 43.9%($\Delta R^2=.439$, $F(2,67)=28.022$, $p < .001$), 강간통념이 포함되면 55.7%($\Delta R^2=.557$, $F(3,66)=29.862$, $p < .001$), 양성평등이 포함되면 62.8%($\Delta R^2=.628$, $F(4,65)=30.104$, $p < .001$)였음. 프로그램 효과는 4가지 변인만으로도 62.8%의 예측력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변인들을 예시하였다고 할 수 있음.

2-5.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에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
- 진행자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은 긍정적 평가.
- 총 교육은 평균 34시간 교육받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평균 83점으로 양호함.

3. 제언

- 프로그램 효과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전에 비해 우울감 감소, 자존감 향상,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 공감능력 향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를 하는 것 감소, 충동성이 낮아졌으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의식도 향상되어 6가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
- 정서공감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 나아가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상황이나 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재발방지에도 좋은 영향을 기대함.
- 성적공상을 통해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면이 줄어들고 충동성도 감소되어 우발적인 행동을 통한 성범죄의 재발방지에도 효과적일 것.
-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의 강간통념, 성대응, 충동성, 성충동 대처에 고학력 자들에 비해 취약함.
-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들이 강간에 대한 인지왜곡이 더 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인 행동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긍정적인 실제 대처방안에 대한 기술습득이 필요하여 보임.
- 교육시간에서 외국의 경우 1000시간의 교육을 하는 현실이며, 본 연구에서도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짧을 때보다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남. 즉 차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시간이 증가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충동성이 30%가 넘는 영향을 주고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까지의 영향력이 62.8%임.

V. 성폭력 가해자 예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1. 연구 방법

1-1. 연구 대상

- 법원으로부터 집행 유예를 받아 보호관찰소에 위탁되어 온 성폭력 가해남성 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

1-2. 측정 도구

-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 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성태도에 대한 요인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음.
- 범죄 관련 요인 : 범죄 전력, 성범죄 피해자 관련 요인, 책임 수용 여부
- 심리적 요인 : 우울, 분노, 자존감, 공감, 충동성
- 성태도에 대한 요인 : 성충동 대처, 강간통념, 성대응, 양성평등

1-3. 통계적 분석 방안

-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통해 분석함.

2. 연구 결과

2-1. 연구 대상의 특성

- 전체 대상자 7명 모두 남성.
- 29세에서 69세 까지였으며, 평균 44세.

1) 일반적 사항

- 결혼상태 : 결혼 상태는 이혼(별거포함)이 가장 많았음.
- 학력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이하의 학력이

많음.

- 직업 :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이 각 2명씩으로 가장 많음.
- 음주 습관 : 비음주자가 가장 많음.

2) 성범죄 전력

- 최초 입건 연령 : 25세 이상이 가장 많음.
- 폭력 범죄 전력 : '해당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과거 성범죄 전력 : 이번이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시설 총 수용 기간 : 수용기간은 없음.
- 폭력 사용 여부 :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음.
-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 '책임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3)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유형 :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연령 : 18세 이상인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수, 성별 : 대상자 모두 한 명의 여성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 대상자와 피해자의 연령차이가 7명 가운데 10살 미만인 4명, 10살 이상이 3명이었음.

2-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척도변인
 -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Z=2.197$,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 공감능력 향상($Z=1.89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가 감소($Z=1.897$,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 충동성이 낮아짐($Z=1.78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 양성평등의식 향상($Z=2.201$,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 척도 하위변인
 -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Z=1.863$, 동률

값 수=7, $p < .05$, 일방향),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Z=2.205$,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성폭행 피해책임 귀인($Z=2.201$,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피해자가 경솔했다($Z=1.78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Z=2.375$, 동률값 수=7, $p < .01$, 일방향)에서 긍정적인 사고변화.

- 공감능력 : 정서공감능력 향상($Z=1.826$, 동률값 수=4, $p < .05$, 일방향).
- 스트레스상황에서 성적대처: 실제 성행위 대처가 감소($Z=1.841$, 동률값 수=4, $p < .05$, 일방향).
-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감소($Z=2.043$,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2-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프로그램에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평가.
- 진행자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평가.
- 총 교육은 평균 39시간 교육받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평균 81점으로 양호함.

3. 제언

- 성폭력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공감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대응, 충동성, 양성평등의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
- 효과를 보인 척도들의 하위요인에서도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됨.
 - 강간통념 가운데 피해자 과거 성경험,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 책임귀인, 피해자가 경솔하다,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 대해 인지왜곡이 개선됨.
 - 공감능력 가운데 정서공감이 개선되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것임.
 -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인 대응을 하는 면에서 실제 성행위를 하는 면이 감소되고 충동성도 저하되어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앞서 연구된 자료를 배경으로 새로운 치료프로그램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예비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됨.

- 기존 프로그램과의 효과성 비교연구를 하지 못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짐.

VI.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실태조사

1. 연구 방법

1-1. 연구 대상

-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12곳 31명 대상.

1-2. 측정 도구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로 성폭력 가해자 상담과 관련된 상담 시 어려웠던 점, 가해자 상담경험 등을 묻는 1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1-3. 통계적 분석 방안

-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 빈도 분석을 통해 각 문항 별 응답사항을 알아봄.

2. 연구 결과

2-1. 연구 대상의 특성

- 12기관 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 31명 모두 여성 응답자임.
- 연령은 4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8명, 30대 4명임.
- 학력 :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대졸 13명, 석사 15명, 박사 2명.
- 전공 : 전공은 사회복지학 16명, 심리학 6명, 여성학 2명, 교육학 3명, 법학3

명, 기타 6명.

2-2. 상담 경력 및 관련 사항

- 상담경력
 - 개인상담이 0-20년의 경력에 평균 5.23년
 - 집단상담은 0-15년에 평균 4.48년
 - 성폭력 가해자 상담의 경우에 개인상담은 평균 4.68년, 집단상담은 평균 6.13년의 상담경력을 가짐.
- 성폭력 가해자 개인상담 경험
 - 10-20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개인상담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성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경험
 - 평균 14집단, 60명 내외의 성폭력 가해자를 집단 상담함.
- 가해자 상담의 훈련배경을 묻는 질문
 - 기관에서의 면접상담 및 슈퍼비전을 통해 훈련받은 경우가 가장 많음.
- 가해자 상담의 관점
 - 여성주의와 인지행동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2-3.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 관련 내용

- 집단+개인상담 형태의 상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성교육을 가장 많이 시행함.
- 보호관찰소가 성폭력 가해자를 가장 많이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 가해자 상담 시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

- 초기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다루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기 단계에서는 왜곡된 인치체계 교정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음.
- 종결 단계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음.

2-5.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관련 기타사항

- 기관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으로 주로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함.

- 가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능력을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음.
-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이라고 하였음.
- 진행자로서의 어려움이나 한계로는 가해자들의 뿌리 깊은 통념을 다루는 능력부족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음.
- 프로그램 참여하는 가해자가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상담자는 주로 가해자의 방해이유를 탐색한다고 함.

3. 제언

- 성폭력 가해자의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상담훈련배경이 주로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하고 더욱 전문적인 상담훈련이 필요함.
- 상담훈련 시에 상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영역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Ⅶ. 결론 및 정책제언

- 성대응 행동을 예측하는 반사회성, 충동성, 분노, 양성평등의 간과 등의 요인은 성폭력 가해자 치료개입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함을 적시.
-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보고는 다분히 사회적 바람직성 및 긍정적 응답태도로서 상당부분 곡해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만 함.
-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넘어서서 면대면 면담 등을 통한 개별 심층사례연구들이 동원되어야만 보다 적나라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규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 여러 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왕이면 여러 부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획득의 표준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계부처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개입 및 대응방안도 매우 다양함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우울감 감소, 자존감 향상, 강간통념 개선, 공감능력 향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 감소, 충동성이 낮아졌으며, 양성평등의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음.
- 학력수준, 초범/재범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져 성폭력 가해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
- 교육시간에서도 40시간 이상의 경우 프로그램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경우 1000시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효과성 연구가 필요함.
- 프로그램 효과에 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의 영향력이 60%가 넘어 이 4가지 요소는 프로그램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외국과 달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치관과 인권을 존중하는 양성평등교육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운동 같은 것을 통한 중심적 역할이 기대됨.
- 앞서 연구된 자료를 배경으로 새로운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예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음.
- 예비연구에서 강간통념, 공감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대응, 충동성, 양성평등의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기존 프로그램과의 효과성 비교연구를 하지 못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프로그램 효과비교 연구가 요구됨.
-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시행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들이 비교적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상담훈련배경이 대부분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기관이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함.
- 상담훈련 시에 상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영역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거의 모든 기관에서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됨

제 1 부

서 론 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성폭력 가해자 특성

제 2 절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

제 3 절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모델 개관

제 4 절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효과성

제 5 절 국내외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의 개입현황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발생건수가 15.1에서 27.7건으로 8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외, 2007). 또한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성폭력범죄 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 인구 10만 명 당 추정피해율은 4665.9건이나 되며 공식적인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강간·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 면에서 110.7배, 10만 명당 피해율 면에서는 168.4배나 많은 것이라고 한다(여성가족부, 2008).

강간범 8,847명 중 이전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4,862명(55%)이나 된다는 2004년 범죄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Marshall(1989a)은 성범죄자들의 특성으로 대인관계기술의 부족, 자기확신감의 결여, 공감능력의 부족 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타인과의 성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Marshall & Laws, 2003; Lowden, Hetz, Harrison, Patrick, English, & Pasini-Hill, 2003). 성학대치료협회(ATSA: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Aos, Phipps, Brnoski, & Lieb,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가

해자들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해 많은 내용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송원영, 2006).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 강간통념을 비롯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인지적인 왜곡을 수정하고 그들의 성적인 태도, 충동성 등을 억제하는 등의 교화·교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여성가족부, 2005)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에 바탕을 둔 치료적 개입으로서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가해자 교정·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나 관련자료, 개입 방안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특성과 치료적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진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교정·치료적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교정·치료 개입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지닌 특성을 수긍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 치료나 전국의 성폭력 가해자 상담, 치료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 대상 교육과 상담 전문가들에게 확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기존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교정·치료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 인지적 왜곡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는 인지적 왜곡으로 대표적인 예로 강간통념을 비롯하여 부인(denial)과 축소, 합리화 등을 들 수 있다. Howells(1979)는 입원된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은 수감된 통제집단에 비해 남녀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자를 외모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아동을 덜 위협적이고 성인보다 관계 맺기 쉬운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Malamuth(1981)는 강간범과 보통 사람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강간범들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묘사에 성적인 흥분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또한 성폭행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적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를 유혹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해석한다. Hudson 등(1993)은 강간범들과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분노, 혐오, 공포감을 종종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복종하고 자신들처럼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즐기기 위해 행동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는 Baumeister(1991)가 말한 인지적 왜해(cognitive deconstruction) 현상을 통해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정보의 차단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Ward 등, 1997). 인지적 왜해는 ‘사람이 어떤 금지된 행동에 관여함으로써 극심한 혐오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 한다’는 개념으로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이론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추상적인 단계에서 그 일의 의미와 자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수용 받지 못할 일을 할 때는 그것을 훨씬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루어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함으로써 장기적인 결과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려 노력하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 역시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그 행

동을 실행하는 것에만 주의를 두게 되며 그것의 실패 단성이나 검거 된 이후 겪을 곤란함과 같은 생각들을 차단시킴으로써 그러한 가해 행동이 유지되고 진행될 수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2. 공감능력

공감(empathy)이란 감정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Moore(1990)는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요인으로 공감능력을 연구했으며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Davis(1983)에 의하면 공감에는 인지적 요소로 조망수용 능력과 상상이 있고 정서적 요소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있다고 한다. Marshall 등(1995)도 공감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 인식, 조망 수용, 동정적인 감정적 반응의 경험, 위로나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의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공감은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분명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성범죄의 원인으로서 지적하였다(Fernan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전반적인 공감능력과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특정적인 공감(victim-specific empathy)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Hudson 등(1993)은 성폭력 가해자와 폭력 가해자들은 감정 인식 기술이 부족하고 특히 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Fernandez 등(1999)은 세 가지 조건에서의 공감을 비교해 보았는데 각각 아이가 사고를 당한 장면, 아이가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 가해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강간범과 일반인에 비해 공감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고 특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성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은 대조

집단에 비해 자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송원영, 2004).

3. 자존감

자존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적응적인 삶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에 반해 자존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Marshall 등, 2009).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필요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려는 시도를 기꺼이 할 수 있는(Tice, 1991) 반면,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Tice & Baumeister, 1990).

많은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이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보다 약하고 무력한 존재에게 향해지게 되며, 여자나 아이들이 쉽게 그 대상이 된다. Baumeister(1993)와 Marshall(1996)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낮은 수준의 파트너를 찾는다.
-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인지적 왜곡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한다.
- 정서적인 고통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다.
- 성취의 목표를 낮게 잡는다.
- 계획표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자기 자신을 매력적이 아니라고 본다.
- 예방적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한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순응도 결과).

성폭력 가해자들 또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고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더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Marshall 등(2009)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이 공감능력의 결여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거나 친밀감을 경험할 기회가 적으며 성(sex)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어 하고, 비록 그것이 강제로 된 성관계일지라도 원하게 된다고 한다. Cortoni 등(1996)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은 친밀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coping strategy)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호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적절한 자기노출,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다양한 친밀감 형성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Ward, McCormack, & Hudson, 1997).

자존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 사이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흔히 보이는 아전인수격인 편향(self-serving bias)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해석 등에서 일어나며,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가진다(송원영, 2006).

성폭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은 그들의 일생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체포, 처벌 과정에 대해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폭행범들 보다 더욱 비난받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Marshall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치심(shame)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자신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가해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가해를 했다는 인식을 막게 된다고 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가해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 성폭행을 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행한 성폭행에 대해 가해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한 심한 고통 때문에 자존감에 손상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한다.

4. 사회적 기술

광범위한 사회적 기술의 손상은 성폭력을 저지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Barlow, 1974; Stermac, Segal & Gilles, 1990; McFall, 1990).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타인과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정서적 친밀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강압적이고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욕구를 달성하려고 한다.

Marshall과 Barbaree, Fernandez(1995)는 강간범과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적절한 주장하기 행동에 대해 그들이 가진 생각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강간범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합당하지 못한 요구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은 현저하게 주장적인 표현이 기저에 있는 반응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주장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Kalichman(1991)은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은 특성 분노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고, 다른 연구자들은 강간범들은 분노한 상태이며 적대적이라고 보고했다(Fiqua, Lang, Plutchik & Holden, 1987; Hudson & Ward, 1997). 또한 노출증 환자들은 분노를 다스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Blair & Lanyon, 1981).

많은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인과의 애정적인 관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Fagan & Wexler, 1988; Tingle, Barnard, Robin, Newman & Hutchinson, 1986). Marshall(1989a)은 성폭력 행동이 일정 수준의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역기능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 Marshall은 어떤 남성들에게는 성과 친밀감이 불가분의 관계로 성이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Hatfield & Rapson, 1996)는 점에 주목했다. 성이 친밀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면, 동등한 성인 파트너와 자신의 욕구를 맞춰 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며 아이와 그들 부모의 애착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와 아이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때, 아이들은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을 할 기회,

굳건한 자기가치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연습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형성된 애착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이런 필수적인 기술, 태도, 자기믿음 획득에 실패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키워나가게 된다(Marshall & Marshall, 2000).

최근의 연구에서는 애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넘어 성인이 되어서의 애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정서적인 고독감을 느낀다고 한다. Ward 등(1995)은 특히 성폭력 가해자들 중 몰입형(preoccupied) 성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통제하기 쉬운 피해자(예, 아동)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연구에서 발견했다. Marshall과 Marshall(2000)은 수감된 성폭력 가해자들의 애착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Ward 등(1995)이 밝혀내었던 사실과 같이 몰입형의 사람들은 어린이 피해자를 선택하고 폭력행동 이전에 외모를 꾸미는 행동을 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연애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5. 대처 방식과 정서 조절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coping)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자원에 대해 가치를 매기거나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특정한 내외적인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끊임없는 인지적, 행동적 변화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나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은 실제로 대처 양식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idigh와 Tomiko(1991)는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린이 성폭행범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자기 비난을 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후자의 반응은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Cortoni(1998)는 어린이 성폭행범이 특히 문제가 되는 화제에 대해 전형적으로 정서 중심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Looman(199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상 성행동(성적 공상, 포르노그래피, 혹은

실제 생활)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성행동으로 빠져드는 반응은 대처양식에 결함이 있거나 대처전략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Cortoni와 Marshall(2001)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전형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처 방식으로 성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제 2 절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

성폭력을 포함한 인간의 정신 병리는 항상 생물심리사회(bio-psycho-social)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성폭력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다차원적인 원인과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동일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에 성폭력 가해자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성폭력의 심각도, 성폭력의 종류, 피해자 연령, 피해자의 성별, 성폭력 발생이 가족인가 가족 외인가에 따라서 성폭력을 분류하는 면에서도 쉽지 않다. 성폭력의 분류에 관한 한 다차원적인 성폭력 행동과 다차원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는 것이 성폭력에 관한 결론이다(Hudson, Ward, & McCormack, 1999).

1. 생물학적인 이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적인 욕구와 공격성이 높다. 남성 호르몬 수용기관 중간 편도체로부터 시상하부를 통해서 소뇌 영역에 퍼져있다(Panksepp, 1998). 그런데 성적인 영역과 공격적인 영역은 서로 연결이 되어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더 공격적이고, 측두엽에 연관이 되어 있고, 여성은 양육과 다른 사회적인 동기에 연관된 영역과 공격성이 연결되어 있고, 대상(cingulate) 영역이 더 활성화 되어 있다. 한편 인간의 두뇌는 성욕(sexuality), 애착(attachment), 및 양육(nurturing)의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Insel, 1997; Panksepp, 1998). 바소프레신(Vasopressin) 호르몬은 영역 설정, 남성과의 공격적인 상호작용, 남녀 교제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고 남성이 많이 분비된다.

옥시토신(Oxytocin) 호르몬은 양육을 조장하고, 성교, 수유 시에 분비되어 여성이 많이 분비되며 남성은 성교 중에 분비된다. 남성은 성교 중에 여성에 대한

애정과 보호를 느끼게 되어 유대감(bonding)에 작용한다. 남성은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과 애착과 유대감을 강하게 느낀다. 성인 남성의 경우 애정과 양육의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연결되고, 아동과 성인의 경계선을 조정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성적인 흥분으로 이어지면서, 성행위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경험한 남성은 사회적인 인지가 발달해서 성적인 경계에 대한 통제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남성이나 여성은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욕구 조절에 실패하는 취약점이 있다. 할아버지가 어린 아동을 귀여워 하다가 성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 애착 이론

Bowlby(1969)에 의하면 인간은 양육자와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내적인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적인 작동모델이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Hazan and Shaver, 1987). 안정 애착은 신뢰, 우정, 긍정적인 정서와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만, 불안정 애착은 불신, 회피, 불안, 공감의 결여,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 회피 애착은 정서가 결여된 성적인 행동, 신체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적인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잡기, 신체접촉에 집착하게 된다. 아동기의 취약한 애착이 학대적인 환경 즉 성적인 학대, 폭력, 혼돈된 환경과 연결되면 폭력적,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이 초기 애착관계를 중요시 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3. 발달 이론

발달적인 모델은 Hall과 Hirschman이 주장한 4부 모델(quadripartite model)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모델은 강간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인데 나중에 아동의 성 학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장된 것이다. 성폭행은 발달과정에서 4가지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신체적인 성적 흥분에 대한 통제 결여
- 자신의 성적인 공격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인지적 발달
- 정서적인 결핍 또는 학대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적 통제의 결여

- 성격적인 문제

Marshall과 Barbaree의 통합적인 모델도 발달 모델에 속한다. 이 모델은 발달적인 과정에서 개인의 취약한 점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더 발전시킨 모델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초기 발달기에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서적, 성적인 욕구를 변태적으로 충족하게 된다. 개인의 성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가 두되에서 융합되어서 성적인 공격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발달적 취약 모델은 인간의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에 인지적인 모델과도 잘 통합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의 취약성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알아차리고 도와 줄 수 있는 면에서는 효과적이다.

4. 사회문화적인 환경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환경이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가부장적인 가치관,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치관이나 행동 들, 여성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또래의 영향

아동과 가해자가 접근이 가능하고 근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문방구 할아버지와 아동들과의 접촉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접적인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붓아버지와 딸과의 한 집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가족들과 피해 아동과의 접촉하는 환경에서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삼촌과의 동거 등이다.

2) 상황적인 이론

성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조건은 성적으로 흥분하지만, 분노, 권력의 취약성, 여성에 대한 두려움, 왜곡된 태도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 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인지 왜곡을 하면서 물질 남용을 하고, 또래 압력을 느끼고, 포르노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두뇌 손상 환자일 수도 있다.

제 3절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모델 개관

McAllister(1970)는 동성애자에게 18시간 동안 물을 차단한 뒤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발기반응의 정도에 따라 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회기를 진행하여 그들의 성지향성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Abel 등(1987)은 일반적으로 다른 요소가 비교적 적게 작용하는 아동 성추행의 경우는 성적인 강화물이 대부분인 반면 근친강간과 같이 통제나 지배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사회기술훈련이 포함된 성치료프로그램들이 이어서 개발되었고 1975년에는 행동치료협회(AABT)의 심포지움에서 성학대자 행동치료협회(Association for th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Abusers, 현재의 ATSA)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치료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인지적 재구조화, 공감능력 증진과 같은 인지행동치료의 요소들이 보다 풍부하게 추가되었다.

통합적 접근은 Marshall, Fernandez를 비롯한 캐나다의 Ontario 지역에 있는 교정국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의 모든 가해자들은 그들의 안전요구와 재범 가능성, 치료 욕구에 따라 평가되고 처우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모두 Millhaven Assessment Unit에서 받게 되고 이후 5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관리된다.

Bath institution에는 16가지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고등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지 기술, 분노 조절, 약물 남용을 비롯한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강한 후에 듣게 되어 있으며 치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의 웰빙을 강조하는 치료 모델은 새로운 나(new me)와 이전의 나(old me)의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한다(Haaven & Coleman, 2000). 즉 성폭력을 가해

한 사람은 이전의 나이고 새로운 나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즉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적인 변화와 변화된 삶이 치료의 목적이다. 단순히 성폭력을 자제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건강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적인 접근은 단순히 성적인 피해를 안 주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Ward & Steward, 2003). 좋은 삶이론(good lives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외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맞춤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송원영(2006)은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공은경(2004)과 임영선(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집단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은진(200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치료 효과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강간통념을 비롯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인지적인 왜곡을 수정하고 그들의 성적인 태도, 충동성 등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변천 과정

성폭력에 초기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Abel과 그 동료들이 한 연구(1987)들인데, 이들은 561명의 소아 기호적 성도착자들을 연구한 결과 성적인 관심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인 관심은 법적으로 성폭력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보다는 이성 복장 착용, 물품 음란 증등을 통한 성적관심을 보인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성행동에 관한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였다.

1) 초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성적인 정신질병(sexual psychopath)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 질병자로 분류하면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일종

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도 되었다. 1960년까지 미국의 약 25주 이상이 이러한 법을 통과했고 이러한 법에서는 정신병적인 성격(psychopath personality), 정신병적인 공격자(psychopathic offender),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들(sexually dangerous) 등의 이름으로 이들을 불렀다. 그러나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명칭은 성적인 정신병자(sexual psychopaths)라는 이름이 이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변태적인 행동과 정신병적인 경향이 연합되면 사회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위험한 인물로 분류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 초기 치료의 특징

1950-1960년대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정신분석이론을 도입했다(Wood et al., 2000). 즉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구를 성적으로 집착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는 정신분석적 입장이었고, 프로그램 역시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18개월 동안 치료받은 후에 석방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실하다는 증거는 없었다. 1954년-1960년 사이에 이러한 치료를 받은 1,921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약 20%가 재발했다. 그러나 연구 설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 연구의 신빙성이 문제시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Brown, 2005).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당시의 치료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인간중심적이고 내담자 중심적인 치료방법은 아주 실망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Harris, Rice, & Quincy, 1998).

2) 1970년대 치료 접근

1970년대 성폭력 치료자에 대한 치료 분위기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nothing works)라는 분위기였다(Martinson, 1974). 다른 많은 연구자들도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률이

높고 치료 과정에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역시 방법론적인 면에서 정확하지 않았기에 결론 부분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효과가 없다는 너무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들을 다시 정리한 바에 의하면 38개의 연구 중에 16개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Thornton, 1987). 따라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는 식은 정치적인 고려나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관이 성폭력 가해자들은 다룰 수 없다고 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 성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행동적 치료 접근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적인 접근이 효과가 적거나 없다는 결론으로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이들에게 시도되었다. 행동주의적인 접근은 성폭력은 학습되었고 성폭력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소를 강조한다. 초기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사고나 인지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했고, 행동에 대한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성폭력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른 행동주의적인 접근은 학습된 성적인 행동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이러한 성적인 흥분을 행동주의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880년대에도 일탈적인 성적상상은 자위하는 행동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Laws & Marshall, 2003).

행동주의적인 원칙을 성적일탈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기법은 성적인 흥분과 혐오자극의 연합을 통해서 성적인 일탈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다. 아동과 관련된 성적자극을 제시해 주고,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약을 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기 자극을 동시에 제공해서 자극 통제를 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적인 요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행동적인 요법이 성폭력을 재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Kelly, 1982), 문제는 이러한 가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증명해 내지 못했다. 또한 치료 장면에서 보였던 치료효과가 다른 일상생활에 전이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행동주의적인 치료기법이 한계가 있다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성행동은 복잡한 구조와 과정을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인지, 동기 등을 고

려해야 한다는 면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방향이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변태적인 성행동을 감소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성행동을 개발해서 이들이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게 된 것이다(Brown, 2005). 또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인지나 가치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

인지행동적인 치료적 접근은 행동주의적인 치료적 접근에서 발달 되었다. 인지라는 용어는 인간의 내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성에 대한 인식, 통념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행동은 가해자가 그 당시에 소유한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 개인적 사고방식,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 등이 성폭력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또한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적인 일탈적 환상 등의 인지적인 요소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지행동 치료가 인간의 불안, 우울, 섭식장애, 중독 문제, 마약 문제 등 각종의 문제 해결에 근거 있는 치료 방법으로 밝혀진 후에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접목이 시도 되었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 치료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의 여러 나라들이 인지 행동적인 기반에 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근거 중심의 인지행동 치료가 성폭력 가해자들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2.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들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과연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1) ‘어떤 효과가 있다’ (something works) 입장

1970년 후반과 1980년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그에 대한 연구 분석 역시 메타 분석도 이루어 졌다. Losel(1995)은 성폭력에 관한 500개의 연구결과를 분석해서 효과 사이즈가 0.05-0.36 정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었지만, 효과 사이즈의 평균은 아직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해서 무슨 요인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2)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 (what works) 입장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McGuire(2000)는 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률을 10%만 감소할 수 있어도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어도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성폭력 가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용기를 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교도소와 같은 처벌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성폭력 재발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는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비행율 25%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Lipsey, 1995).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를 교도소 중심의 처벌에 초점을 둔 결과 이들의 성폭력 가해 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근거 중심의 치료 개발이 현재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근거 중심으로 타당한 성폭력 치료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처벌적으로 가두는 효과이상의 효과를 증명해야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초기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들이 고전적인 분석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근거 중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성폭력 가해자 치료에 시도하고 인지행동치료가 효과 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폭력 모델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모델을 조명해 보고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살필 필요가 있다.

1) Finkelhor의 아동 성폭력의 통합적 이론(integrated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Finkelhor(1984)는 최초로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제시한 사람이다. 4가지 전제 조건으로 구분했다.

① 동기

성폭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욕구나 동기가 있어야한다. 가해자는 아동을 성적인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동기가 성폭력의 첫 번째 단계이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동을 주위에서 물색하게 된다. 가해자는 이러한 아동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면서 자신의 동기를 강화한다.

② 내적인 억제를 무력화하기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학습을 통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러한 내적인 성폭력 동기나 의지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무력화하려는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지 왜곡이 일어나면서 아동에게 별로 해가 안 된다, 상대방도 즐길 것이라는 등의 인지 왜곡 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내적인 인지적 요소를 무력화시키는 힘에 저항하도록 해야 한다.

③ 외적인 억제 요소를 무력화하기

내적인 저항을 극복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해서 아동에게 잘 보이려고 시도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보호막을 교묘히 따돌린다. 즉 외적인 사회적 제도의 저항을 극복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다.

④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신체적인 힘, 무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무력화하면서 강간의 목적을 이루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 모델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성폭력을 실행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지식에 근거한 모델이지 검증된 모델은 아니고 현상적인 면만을 다룬 모델이다. 즉 이러한 모델의 약점은 성적인 동기나 저항을 극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나 변별적인 요인들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아동 성폭력가해자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2) 성폭력 유지 모델 (maintenance model)

Feldman(1977)이 주장한 모델이며, 이 모델은 초기에 성적인 공격을 유발하는 요소와 현재의 환경에서 행동을 유지하는 요소의 관계를 구별하려고 시도한다. 즉 성적인 공격에 초점을 두고 공격 후에 행동을 어떻게 유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덜 강조한다.

① Wolf의 변태적 성욕의 다중 요인 이론

Wolf(1985)에 의하면 초기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 성화적인 행동, 방임적인 태도가 성적인 변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학대를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인은 더 약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이러한 사람들은 술, 마약, 포르노물 등에 접하게 되면 자신의 억압적인 태도를 무력화 시켜주어서 변태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술 등의 외적인 요소와 결합되면 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모델이다.

Wolf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관계와 성적인 환상에 관해서 쾌감을 느끼고 자신이 무기력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일탈적인 상상에 대해서 자위를 하게 되면 일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의 순환에 관한 Wolf의 입장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적인 사건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무력감이나 부적절한 감정을 촉발 시키면, 가해자들은 자신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러한 변태적

인 성적상상을 하다보면 성폭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내게 되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동도 치밀하게 한다. 성폭력이 성공하면, 순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은 성폭력이라는 행위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가해자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성폭력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 Wolf의 성폭력 지속 모델이다.

이런 모델에 의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순환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을 각 단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재발 방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다중 요인 모델은 초기 성폭력을 촉발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성폭력 행동이 발생할 당시의 행동을 설명하고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요인을 확인하기, 성폭력을 반복적이고 지속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모델은 가해자들이 성폭력 발생의 초기 과정보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자신들의 성폭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성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최근의 모델

(1) Marshall과 Barbee(1990)의 통합적인 모델(Integrated Theory)

이 모델은 성폭력의 여러 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볼 때는 통합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일도록 준비되어있고, 사회적으로도 성적인 공격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외에서도 개인적인 분노, 만취, 기회를 노림 등의 요인들이 피해자와 상호작용할 때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애착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Marshall과 Barbee(1990)가 제안했는데,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합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은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는 남성도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Marshall과 Barbee는 생물학적 성적욕구와 공격성을 제기한 반면에 생물학

적인 면은 공통이지만, 성적인 욕구, 성적인 매력, 성적인 대상 선정과 부모 행동을 강조했다. 또한 인간의 애착이 성적이고 남녀 행동과 행동적인 통제와 공감과 상대방의 관점을 갖게 되는 면, 감정의 통제 및 강제적인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아동의 성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면도 있다. 이 모델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적용한다면,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델에 의하면 성폭력의 동기가 어린 시절 정서적인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자리 잡고 있고, 자신의 정서적인 동기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성충동이나 성폭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Ward 와 Siegert 의 경로 모델(pathway model)

이 모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함이 성폭력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가. 친밀감의 결함
- 나. 성적인 흥분 조절 결함
- 다. 정서적인 조절 능력 결함
- 라. 인지적인 왜곡

Ward와 Siegert(2002)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가는 첫째 경로는 병인론적인 측면인데, 가해자들은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정상적인 성적 각본을 가지고 있기에 정상 범위 내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대상자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들은 친밀감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이 부족하기에 성폭력을 사용한다.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 시절에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결과로 성인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성폭력이라는 경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변태적인 성적 각본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동을 선호하는 하는 각본이나, 가학적인 변태적 각본을 소유하는 이유로 인해서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내적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스키마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부적절한 성경험, 성피해 경험, 변태적인 학습, 또는 포르노에서 변태적

인 성행위를 학습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경로는 정상적인 성적인 각본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 조절이 안 되어서 성범죄는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평소에서는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고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나 성적인 긴장을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경로는 반사회적인 인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즉 성에 대한 인지를 왜곡한 사람들을 말한다.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가부장적인 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성적인 면에서 여성에 대해서 통제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인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집단은 다양한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변태적인 성적 각본과 성격적인 결함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소아기호증을 보이는 심각한 성폭력 가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로를 가질 수 있기에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만으로 이들을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로 모델은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관한 설명은 다양하게 제시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애착문제,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포르노 또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왜곡을 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사이코패스와 같은 반사회적인 성적 소유자의 성폭력 등 다양한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성폭력 재범이 어떻게 유지되는 지에 대한 관점이 취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Ward와 Hudson의 자기 통제 모델

Ward와 Hudson(1998)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설명을 시도했다. 즉 회피-수동적(avoidance-passive), 회피-적극적(avoidance-active), 접근-자동적(approach-automatic or approach-passive)와 접근-적극적(approach-explicit or approach-active)로 구분했다. 즉 적극 수동적인 가해자는

평소에는 성폭력을 회피하지만, 성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기술의 부재, 또는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대처 기술의 부재로 인해서, 충동적인 상황에서 성폭력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성폭력을 몰래 생각하면서 시도하기도 한다.

회피-적극적인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변태적인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하며, 성폭력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변태적인 내용에 자위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변태적인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며 자신의 성충동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에 실제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들의 대처 방식이 실제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접근-자동적인 가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의도를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황적인 요소를 보면서 기회를 노리는 가해자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근-적극적인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하려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계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델을 검증하는 면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통제 모델을 가지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을 평가하려고 했을 경우에 평가자들이 87명의 가해자들을 평가할 때 80% 내적 일치도를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Bickley & Beech, 2002). 그러나 Marshall과 Serran(2000)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의문점을 제기 하면서,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흥분이나 충동을 극복하지 못해서 성폭력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경로 모델은 다른 성폭력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성폭력 가해자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때, 어떤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정교화 해야 할 것인가는 당면한 연구과제이다.

(4) 성폭력 발생에 관한 여러 모델을 통한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모델

위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 가해자 모델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모델은 치료를 실시한 후에 검증 가능해야 한다. 치료 효과검증 없이 그럴듯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
- 효과적인 성폭력 모델은 성폭력 발생 초기 과정, 실행과정, 유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성폭력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추행범과 심각한 성격 장애자인 성폭력 가해자들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모델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접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폭력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집단 프로그램에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맞는 성폭력 모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상황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폭력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성폭력 모델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통합적이어야 한다.

4) 프로그램 내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McPherson 등(1994)은 755명의 성인과 745명의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결과, 80%의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성교육, 대화, 인지왜곡, 자기 주장훈련, 개인적인 피해/외상, 재발 사이클, 재발 방지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2/3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피해자 사과, 충동 억제, 가치 명료화하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행동, 성역할 정형화, 일기쓰기, 이완 기법과 스트레스 관리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가해자가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비슷한 성폭력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Schartz(1992)는 Washington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일탈적인 성적 환상을 확인해서 수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것을 발견했다.

영국에서 실행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들은 4가지의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두었는데, 일탈적 성적 흥분 패턴을 변화하기, 왜곡된 사고 수정하기, 사회적인 유능감을 증가시키고, 성적인 학대 결과와 가해 순환에 관한 교육시키기를 강조했다(Bekett, 1994).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성적인 흥분을 통제하기, 부정하기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증가하고, 가족식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들이었다(Prostor, 1996).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5)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들

① 부정을 최소화하기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최소화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Barbaree(1991)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처 최소화하기, 과거의 성폭력 행동을 최소화하기, 성폭력 행동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내적으로는 성폭력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면에서 볼 때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 행동을 인정할 경우에 법적, 사회적으로 받는 제재와 수치심 때문에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정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을 연속선상에서 조명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은 다른 범죄는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성폭력에 관해서는 최소한만 인정하려는 경향도 있다(Grubin and Gunn, 1990). Hudson과 그 동료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면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저하시키려는 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자신의 성폭력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행한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솔직하게 직면해서 고백 식으로 공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인지적 왜곡과 인지적 재수정

여성 주의적인 입장과 인지적인 접근에서는 인간의 성에 관한 태도나 신념이 성적인 공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Hanson et al., 1991). 특히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폭력 행동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가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행동적인 입장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적인 공격 행동과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사회신념을 발달시켰다고 주장한다. 성희롱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고 성폭력을 행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Abel et al., 1989). 즉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온 가치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인지적인 구조가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가지는 인지적인 왜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들은 성인과 섹스를 원한다.
- 아동들과 합의하에 섹스를 했다.
- 아동과 섹스를 할 때 아무런 강제나 압력이 없었다.
- 성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아동에게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
- 아동이 성인에게 성적으로 유혹했다.
- 성인들은 무슨 비용을 들어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인간은 성적인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 성적인 충동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점, 여성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라고 말했다는 점, 여성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강간은 여성에게 해로운 것이 절대 아니다, 여성이 먼저 요구했기에 강간당할만하다 등의 성적인 왜곡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최소화하려는 동기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이러한 자신들의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 공감 결여

성폭력자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와 어려운 점을 끼쳤는지에 관해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명백할 것 같은 피해자 공감 능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arshall & Eccles, 199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역할을 취하는 과정과 공감적 정서적인 반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감정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감정을 경험하고 나누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Marshall 등(1994)은 공감적인 4가지 요소 모델을 제시했다. 1)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기, 2)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3)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체험하는 능력, 4) 그 사람을 향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공감 능력 향상을 많이 언급하는데, 공감 능력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인식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그러한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체험해서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인가를 경험으로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 아니고, 정서적, 체험적인 공감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④ 성적인 흥분과 일탈적인 성적 환상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은 변태적인 성적인 환상을 초기에 하고 그 환상을 유지하다가 현실에 옮기려고 시도할 때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성문화적인 영향이 일탈적인 성적환상에 영향을 준다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의 환상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초기에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을 하면서 흥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가족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가해자들 중에서 50% 이하의 성폭력 가해자들과, 가족 내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한 30% 미만의 가해자만이 변태적인 성적 환상을 하면서 성적으로 흥분했다고 보고 했다 (Marshall & Eccles, 1991). 이들은 이 연구에서 26%의 비성적인 가해자 역시 아동들의 나체 사진이나 강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했다고 지적했다. 즉 소위 말하는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정상인에게서도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인 환상을 실행에 옮기는가를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성폭력을 예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을 하면서 그 환상으로 이어지는 다른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포르노를 보면 변태적인 성적환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Gee et al., 2003). 또 다른 연구들은 포르노와 성폭력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다(Seto et al., 2001). 그러나 성적인 통제 능력이 취약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포르노를 통해서 변태적인 성적인 환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성적환상이 성폭력을 실행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또한 일탈적인 성적환상은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성폭력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이 어느 순간 작동하는가를 초기에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⑤ 성충동 대처 방식

성폭력 가해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슬픔에 성충동을 일으켜서 성폭력을 했다고 진술한다.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러한 점을 여과 없이 보도하기에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충동이 발생하면 억제하기가 어려워 성폭력을 행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충동이란 욕구가 있을 발생하는 것이고, 충동이 있어도 성폭력 대상자를 선정하고 충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요소가 작동하기에 가해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충동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충동의 초기, 중기, 행동 실현 단계에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충동 조절 방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⑥ 재발 방지

성폭력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가 필수적이다. 성폭력 재발 방지 모델은 본래는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 모델에서 개발된 것을 성폭력에 적용하면서 시도 되었다. 재발 방지의 내용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이전과 같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 상상을 하고 성적인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하고 습득한 여러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발 방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면이 부족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⑦ 양성 평등적인 의식 전환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양성 평등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연구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강간통념 같은 여성의 성을 왜곡하는 내용을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려한다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는 양성이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의 성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 변화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

⑧ 자존감 향상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다. 즉 이들은 자존감이 낮기에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분노를 느끼고 분노 강간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이 낮으면 남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에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인 가치관이기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여러 프로그램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태면, 심리적인 보약과 같은 자존감이 향상 되어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요소가 필히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신의 장점을 나열

하고 자신에게 칭찬하는 식의 피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자존감 향상은 특정 회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존감 역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껴보고,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알아차리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⑨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에 관해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강조한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술 한잔하다 보니 여자가 생각이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한다. 즉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고 성적인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라고 주장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나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술 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코올 치료도 병행을 해야 할 것이다.

⑩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

성폭력에 대한 애착관계 이론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안정애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부나 유기를 경험한 아동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을 충동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자위를 시도하다가, 포르노에 접촉해서 일탈적인 성적환상이나 방법을 배우고, 성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또한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자신들도 성적인 피해를 경험했기에 많은 정서적인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성적인 쾌감이 주목적이 아니고, 성관계를 통한 정서적인 충족과 만족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대인관계가 아주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에 대인관계를 적절히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훈련, 일탈적인 성적상상을 수정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기저에 핵심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처감정을 치유해 주어서 표면적인 욕구나 인지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각 참가자들에게 집단에서 상처 치유 작업을 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치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이러한 상처에 대한

치유 없이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재발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⑪ 사회 기술 훈련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탈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술과 여성 폭력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비록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행동은 제재를 가하고 질타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성적인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들에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술 훈련이 필수적이다. 사회 기술 훈련의 핵심은 대화이기에 구체적인 대화 훈련이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제4절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 비용을 고려한 효과

교도소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1달러를 기준해서 볼 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비용이 5달러이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7달러 수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처벌 위주로 비용을 사용하면, 그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50-70센트 정도라고 한다(Aos et al., 1999).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인지 행동 치료를 실시하면 그 비용을 1달러 대비, 효과적인 면에서는 2.54-11.48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의 Vermont주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100명을 단위로 해서 치료를 받은 가해자와 안 받은 가해자의 재발률이 모두 6%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비용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치료 받은 가해자가 6%의 재발률을 보이고, 치료를 받지 않은 가해자가 7%의 재발률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약 35,028달러의 절약효과를 보였지만, 치료받지 않

은 가해자의 재발률을 8%로 가정하면 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했다(McGrath, 1995).

Baker 등(1998)은 뉴질랜드의 Kia Marama 교도소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가해자들의 재발률 감소를 근거로 해서 3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타 다른 프로그램의 비용 면에서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심리치료 효과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률이 8%정도만 감소되어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Baker et al., 1998). 프로그램 참여로 재발률이 1%만 감소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여성의 고통을 감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치료효과를 단지 돈의 액수로만은 계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 미치는 조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가해자들의 중도 탈락률이 적어야 재발률을 감소할 수 있다. 간단한 원리로 보면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중도에 탈락하는 가해자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치료에 대한 동기가 낮고, 태도에서도 경직되어 있었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알아차림이 적었다(Dwyer, 1995).

Abel 등(1988)은 중간 탈락의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했는데, 1) 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2) 성격장애 진단 3)성적인 피해 대상을 무분별하게 선택하거나, 변태적인 성행동이였다. 즉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완결해서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더 많이 받으면 중간 탈락률이 적고, 피해대상자를 무분별하게 선택해서 성폭행을 한 사람일수록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지고, 성격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Browne 등(1998)은 프로그램을 완수한 사람과 중간 탈락자의 구별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경찰에 체포된 경력, 마약 사용 전과, 무직자 들이었다. 대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완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재발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에 대한 순응 정도

프로그램에 협조적이고 순응하는 참가자들이 행동 변화가 높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묘히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성향이 있기에 진정으로 프로그램에 순응적인가는 쉽게 알 수 없다. Beech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람들은 10%만 재발했지만, 그렇지 않게 분류된 사람들은 23%가 재발했다. 위험도가 낮은 가해자들은 아무도 재발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진정으로 순응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과제 성실이 수행하기, 회기 중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참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다. 대체로 재발률이 높은 가해자들은 정신 병력이 심하고, 폭력적인 전과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2) 가해자 특성

프로그램에 반응을 잘 보이는 가해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저항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폭력 전과가 많고, 고정적인 성적 환상을 보이고, 심한 정신 병력을 보이는 가해자들이다 (McGarth, 1991). 또한 남아를 가해한 사람은 프로그램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집단 치료에서는 물질 남용 문제를 보인 사람들은 더 치료에 순응적이기도 했다(Marques et al., 2000).

그러나 대체로 외적인 통제 요소를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덜 보이는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3) 프로그램의 특성

재발률을 줄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행동적인 요소를 가진 프로그램이었다(Alexander, 1999).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험도를 고려하고, 인지행동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증가시키면서 참가자의 범죄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접근이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올리는 것이다.

Marshall과 Serran(2002)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1) 목표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2)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3) 장기적인 면에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피해자 공감 능력을 증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추후 회기를 가져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4) 집단의 응집력

성폭력 가해자 집단의 응집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의 결속력이 강해야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Brown, 2005). 집단의 결속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를 위협해서는 안 되고, 집단 구성원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많이 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집단의 응집력이 높고 효과도 좋다. 성폭력 집단의 분위기를 잘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치료자의 특징

프로그램의 효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로그램 진행자 변인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 및 원리를 숙지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치료자의 숙달된 기술, 경험, 스타일에 관련이 많다. 이외에도 치료자의 지지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스타일의 치료자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Marshall과 그 동료들(2002)은 치료자의 스타일이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치료자 영국의 HM 교소의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치료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8가지 특징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치료자가 따뜻하고, 지시적이고, 자신감 있고,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면서도 참가자들에게 직면을 시도하는 것들이었다.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만들어진 다른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13가지의 특징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특징과 치료의 효과에 관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치료자의 공감적이고 따뜻한 특징은 치료를 통한 변화 항목 중 7가지와 긍정적인 상관관이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치료자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명되었다. 지시적이면서 보상이나 강화를 해 주는 특징은 5가지의 변화 항목과 상관관이 있었고, 확고하면서도 지지적인 특징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감소하는 것과 상관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 Marshall과 그 동료들은 공감하면서 따뜻한 태도로 지식적이면서 강화해 주는 4가지 특징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특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다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각 프로그램마다 치료자의 훈련 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Marshall은 반박했다.

3. 재발률과 관련된 성공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적인 재발률이다. 그러나 재발률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기본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 재발률이 0%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성폭력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참석한 후에 1%라도 재발을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Laws의 견해는 변화의 예상치가 너무 낮다는 비난을 받았다(Brown, 2005). 그러나 재발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 가해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와의 재발률이 통계적으로 5%의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게 되면 의미 있는 재발률의 변화라고 규정한다(Brown, 2005).

1) 재발률에 대한 연구

㉠ 재발률의 측정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50% 정도만 경찰에 보고된다고 하고 보고된 범죄자들의 기소율은 3%라고 주장한다(Marques, Day et al., 1994). 성범죄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만이 경찰에 보고된다. 그리고 재범을 규정하는 것도 체포된 것을 재범으로 간주해야 할지 또는 기소된 것을 간주해야 할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Marques와 Day 등(1994)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률은 33%라고 제시했다.

㉠ 성폭력 가해자 재발률 관찰 기간

성폭력 가해자들이 재범한 기간을 6개월로 할 지 또는 1년으로 할 지 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관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범률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 성폭력 가해자들의 상대적 낮은 재발률

Hanson과 Bussiere(1996)의 연구에 의하면 23,393명의 범죄자에 관한 61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죄의 재발률은 36%에 비해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률은 13%로 추정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이러한 수치는 성폭력 가해자는 재발률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Friendship과 Thornton(2001)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률을 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198년에 석방된 가해자들의 재발률은 12%이었는데, 1993년에 석방된 가해자들은 재발률이 4%라는 수치를 발표했다. 문제를 이들이 아무런 성폭력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이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효과를 보여 주지 않은 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을 보면 완벽하지 않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 접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하기란 어렵다.

㉢ 재발률 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Doob와 Brodeur(1989)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재발률을 준거로 삼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재활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했다. 즉 성폭력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들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에서 프로그램의 의의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성폭력 가해자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재범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기에 재발률을 간과 할 수 없다.

㊦ 북미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효과

위에서 지적했듯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vidson(1984)은 온타리오 교도소에서 아동 성추행과 강간범을 대상으로 경찰에 체포된 기록을 중심으로 재발률을 추적한 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은 35%의 재발률을 보였지만, 치료받은 가해자들의 재발률은 11%라고 보고 했다(Brown, 2005). Gordon(1989 cited in Grossman et al., 1999) 역시 아동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추행자들과 강간범들의 재발률을 경찰 기록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10%라고 발표했다. Marshall과 Barbaree(1988)도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1-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34.5% 인 것에 비해서 치료를 받은 가해자들은 13.2%로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Kingston 행동클리닉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가해자들의 재발률은 3%라고 보고했다.

1990년대에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Freeman-Longo와 Knopp(1992)에 의하면 치료를 받은 남성들 중에서 재발률을 50% 정도 줄였다고 보고했다. McGrath 등(1995)은 역시 Vermont 주에서 인지행동 치료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발률은 1.4%이었는데, 통제집단의 재발률은 15.6% 있다. 이들의 연구에 참가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체로 중간 이하의 위험군들 이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발률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로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재발률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최근에 실시했기에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인지

행동적인 접근을 했을 때 가해자들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이코패스에 대한 치료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고, 치료에도 어렵고 재발률이 높은 집단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들의 치료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에게 사회 기술 훈련을 시켜 놓았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해서 더 여성을 조정하고 통제할 위험성을 길어 주어서 이들의 문제를 악화 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arbaree, Lanton, & Peacock, 2001).

① 사이코패스의 특징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대인관계에서 1) 과장성, 이기심, 조종하기, 지배하기, 힘을 사용하기, 상대방을 약탈하기, 냉혈적인 면이 있고, 2) 정서적으로 피상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장기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고, 원칙이나 목적이 없고, 공감능력의 부족, 진정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결여 되고, 3) 이들의 생활 방식은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감각자극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규준이나 법규를 쉽게 범하고 현시적 또는 암묵적인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감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다(Hare, 2003). 사이코패스는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피상적인 매력을 보이면서, 병적인 거짓말, 교활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충동성, 무책임과 얼음처럼 냉정함을 보인다.

② 심리치료의 효과를 고려할 때의 고려 사항

초기의 사이코패스에 대한 심리치료의 견해는 이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Cleckley, 1941; Hare, 1991;). 이들에 대한 치료에는 비관주의적인 입장이 아주 팽배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거세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실제로 치료 받는 상황에서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여러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치료에 저항한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결과에 관한 42개의 연구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단일 사례를 포함해서 60%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 했기에 사이코패스 역시 치료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Salekin, 2002).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치료 형식 보다는 치료자와 직접 만나서 치료가 이루어 졌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걸쳐서 주당 평균 4회의 치료를 하는 집중적인 치료를 한 경우에는 61%가 성공적인 치료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연구 방법이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진단 방법이 부정확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15% 미만이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의 변화 보다는 재발률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확증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시사 하는 바는 사이코패스인 경우도 장기간 개인치료와 집단치료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변화 가능성을 시사 했다는 점이다.

③ 싸이코 패스를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될 것인가?

Hart와 Hare(1997)는 사이코패스들에게 통찰력 중심의 집단 상담을 실시하면, 이들은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교묘히 조종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면으로 이용하기에 오히려 해롭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즉 사이코패스들을 집단에서는 치료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심리치료를 종결하면, 치료 집단에서 배운 상대방 공감적 기법을 사용해서 여성을 농락하는 방법으로 역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부 치료자들은 이들에게는 사회 기술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Langton(2003)은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76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연구를 실시했다. 이 경우에 재발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재발에 관한 자료를 사용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사이코패스의 집단의 재발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재발률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집단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집단이 심리치료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재발률에서는 두 집단 간의 재발률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사이코패스 집단에 대한 치료의 효과성 연구에 관해서는 가능한 개인치료를 중심으로 집단 치료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외국의 자료이기에 국내 사이코패스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한 후에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시사 하는 바는 사이코패스 성폭력 가해자들은 치료 중에 치료자를 조종하려는 능력이 뛰어 나기에

치료자는 이들의 언변에 넘어 가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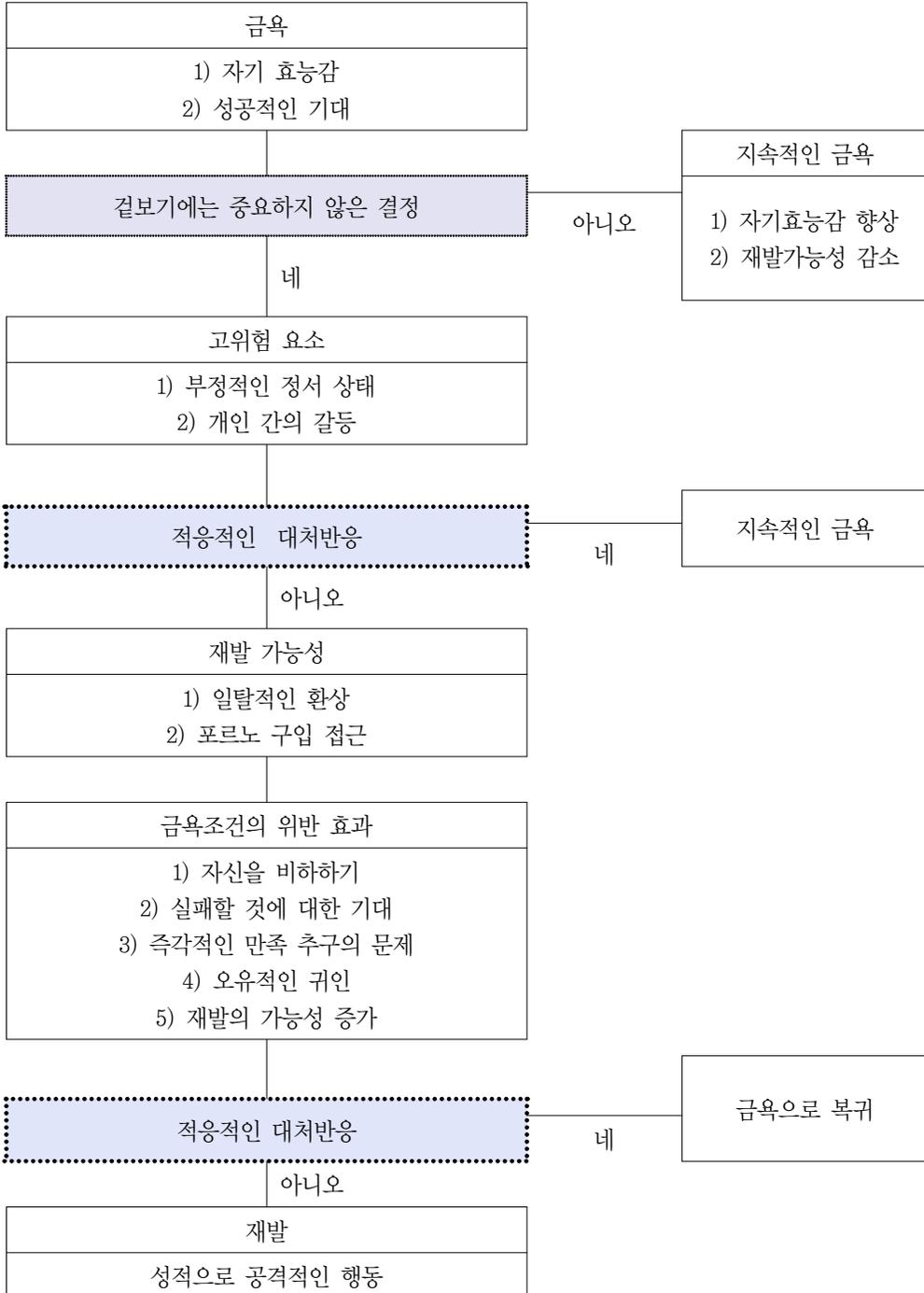
4. 재발 방지 모델과 성폭력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안

1) Marques 등의 재발 방지 모델

재발 방지라는 개념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198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Marlatt 등(1983)이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발 방지는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었다. 이러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는 오랜 동안 검증을 받아 오지 못했지만, 각종 중독 프로그램들에서는 재발 방지 모델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실시해왔다. Marques, Day와 Nelson(1992)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모델을 <표 1>과 같이 제안했다.

이 재발 방지의 모델은 가해자들의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가해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해자들은 위협적인 행동 즉 일탈적인 성적 환상을 하거나 포르노를 보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 단계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자신을 비하하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전에 실행했던 성폭력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도하면, 실제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에 의한 성폭력 재발 방지는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 최종 단계까지 가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어벽을 쌓은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표 1〉 재발 방지 모델과 성폭력 프로그램 효과성



2) 성폭행 가해자 재발 방지 모델의 약점

성폭력 방지 모델은 제시된 후에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재발 방지 모델을 실행해 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달았다(Rice & Harris, 2003). Thornton(1997)은 기존의 재발 방지 모델의 약점으로 1) 재발 방지 모델은 지속적으로 변태적인 성행동에 초점을 두기에, 그러한 행동을 더 눈에 띄게 만들고 유혹적이게 하며, 2) 재발 방지 대책은 동기가 높은 내담자들에 적합하지만, 재발에 대한 동기가 낮은 성폭력 자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3)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성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자기 조절 재발 방지 모델

Ward & Hudson(2000)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자기 조절 재발 방지 모델(self-regulation model of the relapse process: SR)을 제시했다. 이 SR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할 때 내적 과 외적인 과정을 고려했다. 즉 목표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감찰하고, 행동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만족했는가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목표 행동은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과 회피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를 회피하는 행동은 대체로 불안하고, 실패할 가능성에 관해서 반추하는 인지적인 요소와 연관이 있다.

이들은 역기능적인 자기 조절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지된 행동을 실행하는 면에서 실패로 연결되는데, 실제적인 목표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이다. 셋째, 기술을 잘 못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잘 못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이다. 목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면에서 완벽해도 목표를 잘 못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성폭력 전과자가 아동과 친밀하게 잘 지내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재발 방지 모델의 장점은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지적해 주기에 각 단계에서 정서조절을 통해서 성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란 결국은 그에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기에 순간순간 정서에 관련된 인지와 성적인 일탈적인 환상을 다루면서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4) Ward와 Hudson의 9단계 자기 조절 모델

이들은 재발로 연결될 수 있는 4가지 경로를 설정했는데,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회피-수동적(avoidant-passive), 회피-적극적(avoidant-active), 접근-자동적(automatic), 접근-구체적(approach-explicit)로 구분했다.

○ 제 1단계: 생활사건

이 단계에서 가해자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과하는 의미를 가지고 생활한다. 대체로 자신의 삶에서 명시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암묵적인 가치관이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한다.

○ 제 2 단계: 일탈적인 성행위 또는 활동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성적인 욕구나 성폭력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단계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체로 성적인 욕구와 성폭력적인 행동과 연상을 많이 하기에 가학적인 행동을 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에 성폭력을 한 사건이나 대상을 연상할 수도 있다.

○ 제 3단계: 성폭력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기

이 단계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탈적인 성행위 또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성폭력에 관련된 목표를 세우게 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변태적인 욕망을 실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사고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 숙고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가해자는 성폭력에 관해서 회피할 것인가 또는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재발하는 가해자들은 아동이나 성인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제 4단계: 전략을 세우고 선택하기

이 단계에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전략이나 각본을 만들어 내는데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회피-수동적 전략

이 전략의 특징은 성폭력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것을 방지하는 전략에는 수동적이어서 성폭력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변태적인 성적환상과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는데 실패하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기술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 회피-적극적 전략

이러한 전략의 특징은 성폭력에 관련된 환상이나 성폭력 행동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대로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단계 가해자들의 문제점은 성폭력이나 환상을 대처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는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성폭력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접근-자동적 전략

이 전략은 성폭력에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가해자들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강하기에 갑자기, 단기간에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다. 즉 이들은 계획적이면서 충동적인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 접근-구체적 전략

이 전략을 사용하는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구체적이고 사전에 잘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성이나 아동

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이러한 가해자들은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성폭력에 관한 스키마나 가치관을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 제 5단계: 고위험적인 상황 촉발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세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순간적으로 평가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교훈을 사용한다면,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폭력을 방지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다음 단계의 성폭력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

○ 제 6단계: 실수 단계

이 단계는 성폭력을 하기 직전의 단계이다. 즉 성폭력을 하려고 아동이 자는 방에 침입하는 행동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을 물색하고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회피-수동적인 전략을 가진 가해자는 회피-적극적인 전략으로 바꿀 것이고, 회피-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성폭력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번 한 번만 하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또한 접근-자동적인 가해자는 이미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고, 접근-구체적인 가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 제 7단계: 성폭력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특징들이 성폭력의 심각도와 범위에 영향을 준다. 만성적이고 성격 장애를 가진 가해자들은 이 단계에서 심각한 성폭력을 행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가해자들은 이 단계에서 또 다시 여성에게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분노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

○ 제 8단계: 성폭력 후의 평가 단계

이 단계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행위가 일단 종료 되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단계이다. 특히 남성은 성행위를 통해서 사정을 하고 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좀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성폭력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졌던 가해자들은 자신이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을 접근하려고 했던 가해자들은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들이 또 다시 잡혀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 제 9단계: 미래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설정하기

성폭력 재발 방지의 최종 모델은 자신들의 성폭력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해서 가해자들이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억제를 하려는 목표를 가졌지만 실패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와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접근-자동적인 가해자들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성폭력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구는 충족할 수 있지만,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후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접근-구체적인 가해자들은 재발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기에 성폭력 행동을 쉽게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SR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발 과정을 역동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접근-구체적인 가해자는 사이코 패스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성폭력 치료의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고, 재발에 대한 동기도 적기에 재발 방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위의 모델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Ward와 Hudson의 9단계 자기 조절 모델



5) 성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연구의 결론

①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기존의 문헌 연구들의 결과는 성폭력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떤 대상에게 효과가 있는가도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효과가 있다 없다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과 소위 말하는 궁합이 맞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가가 추세이다.

집단 프로그램은 대체로 정형화된 방식으로 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해자들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해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정형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집단 리더가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있다는 프로그램은 인지 행동적인 접근이었다. 즉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동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왜곡된 성에 대한 가치관,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를 알아차려서 대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인지 행동적인 치료가 효과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가부장적인 성적인 요소들을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조직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성적인 가치관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해서 자신의 성적인 만족과, 여성에게 복수하고 굴욕을 가져다주려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지 행동적인 심리학적인 접근은 그 한계성을 들어 내 줄 수 있기에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인지행동적인 접근의 장점은 성폭력 가해들이 성폭력 상황이나 성폭력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사고를 조장하는 밑바닥에는 성폭력에 관한 도식 즉 스키마가 작동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스키마를 다루지 않으면, 표면적인 인지나 사고를 다루어 주기에 한계가 있다. 문제는 성폭력 스키마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적어도 이러한 스키마를 알아차리고 그 스키마를 관리하는 방법은 가해자들이 숙지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면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사전 준비

대체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실시할 경우에 이들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하고 집단 규칙을 알려 주고, 교육 내용을 인식 시키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집단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때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치료 회기가 늘어나야 하고, 치료자 역시 내담자를 동기화하는 인터뷰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을 지는 단기적인 속성의 프로그램, 치료자의 훈련 부족 등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치료자의 태도와 전문성

치료자는 대체로 따뜻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치료자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치료자는 동시에 가해자들을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들의 책임회피,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알고 적절하게 이들의 문제를 직면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는 석사 이상으로 이 분야에서 2000시간의 실습과 슈퍼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이들 종사자들의 철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 프로그램의 요소 면의 효과성

효과 있는 프로그램은 가해자들의 자존심 향상, 피해자 상처 공감 능력 향상,

성적인 인지 왜곡 수정, 일탈적인 성적인 환상 교정, 사회 기술 훈련, 성충동 조절, 재발 방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 외에 성폭력 가해자들 역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 많기에 이들의 상처 치유를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㉔ 성폭력 재발 방지 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핵심은 재발 방지다. 기존의 재발 방지 모델은 중독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성폭력 재발방지에 사용했는데,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치료 시간이 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충동 조절과 재발 방지 모델을 개발하고 효과검증에 의한 재발 방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㉕ 성폭력 프로그램의 치료 시간 면에서의 효과성

외국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들은 최소 2년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해도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40시간 교육을 하다가 이제 90시간으로 확장 되었는데, 이러한 면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㉖ 비용 면에서 효과성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을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교도소에 관리하는 비용과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면에서 비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치료 프로그램에 더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 몇 명의 재발을 방지 했다고 해도 우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질적인 면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5절 국내·외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의 개입

1. 외국의 가해자 교정·치료의 개입현황

아직 까지도 성폭력 가해자들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충분한 심리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예도 성폭력에 관련된 사람들의 1/3정도만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교도소 외부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는 가해자들이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에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도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하고 후진국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캐나다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 현황

캐나다는 1992년부터 매년 1,500명의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행동주의, 인지행동주의, 역동적인 접근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3개월에서 36개월의 기간 동안에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들은 인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접근에서도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나라들에 보급되었다. 캐나다는 교정치료국(Correctional Services of Canada: CSC)에서 전국적인 치료를 통괄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1994년도에는 법인 권고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Corporate Adviser Sex Offender Programme)을 설립해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치료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SC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프로그램도 인증해 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근거할 것, 2) 형사적인 욕구 조건을 충족시킬 것, 3)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4) 기술 중심이어야 할 것, 5) 프로그램의 강점들이 있어야 할 것, 6) 지속적인 교육 제공하기, 7)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8) 평가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도자, 참가

자를 위한 매뉴얼도 잘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면에서 많이 참고할 사항이다.

①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절차

개인이 성폭력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신고를 받으면,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치료 계획이 수립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2년 이상 형의 언도받으면 주정부의 감옥으로 송치된다. 수감자들에게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곳으로 머물기 전에 모든 평가 절차들이 이루어진다. 성폭력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죄수는 다른 죄수들과 별도의 장소에 수감되어서 성폭력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으면 집행 유예나 교도소에서 출감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수감 중에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받고 있다.

CSC는 필요한 경우에 이들에게 개인치료도 제공한다. 개인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자들이 제공한다. 고위험 군에서 저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치료가 잘 진행된다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필히 실시한다.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5가지 요소는 1) 자신의 성폭력 상황 개방하기, 2) 피해자 공감하기, 3) 재발 방지, 4) 사회기술훈련, 5) 인간의 성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② Barbaree와 동료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Barbarize는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 stage I >

- 프로그램에 순응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화 작업하기
- 자신의 성폭력 행동 수용하고 인정하기
- 자신의 성폭력 최소화하는 행동 인정하기
- 인지적인 왜곡 수정하기
- 피해자 공감 능력을 증가해서 피해자의 상처를 알아차리는 능력 증가시키기

< stage II >

- 행동적인 연쇄성을 이해하기
- 성폭력 행동의 촉발적인 사건 알아차리기
- 재발 방지 개발과 활용하기
- 변태적인 성적환상과 성적흥분 제거하기
- 사회적인 자원과 지지 확보하기

< stage III >

- 지역 사회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기
- 세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5개월에 걸쳐서 주당 5일을 실시하고 매회기 3시간 실시하기
- 8개월에 걸쳐서 기초 수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을 4개월 동안에 주 4회 실시하기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단기간 즉 90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stage I과 II는 수용소에서 실행되지만, state III는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때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상담자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사회적응 과정을 도움 받고 프로그램 내용을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계적인 훈련과 아울러, 교도소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계 되어서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이다.

③ Bath Programme: Marshall이 지도하는 프로그램

- 초기 : 참가자에 대한 위험도를 상, 중, 하로 평가 분류한다.

-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집단:
 -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집단을 실시한다.
 - 10-12명 정도가 한 집단을 이룬다.
 - 1주에 3시간 씩 집단에 참여하고 최소 3개월 참여한다.
 - 치료의 목표: 부정과 자신의 행동 최소화하기 문제점 다루기, 피해자 공감, 자

존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재발 방지 계획 만들고 실천하기

○ 위험도 중상위 가해자 집단

이들에게도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더 깊고 깊게 다룬다. 대체로 폐쇄집단 그룹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의 삼각도를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인간의 본능인 성적인 욕구 충족과 연관된 점을 감안하면, 성폭력 가해자들을 단 기간에 걸쳐서 변화 시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험도의 평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장기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성폭력 가해자들의 위험도와 심각도를 초기에 평가해서 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가해자 치료 현황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캐나다에서 개발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체는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 정부의 교정국이나 법무국에서 실시한다. 각 주는 자신들의 독특한 법으로 규정된 가해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1994년에 90개의 교도소를 중심으로 710개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국의 프로그램도 인지행동적인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사적인 단체 즉 종교 단체, 지방의 사회적인 단체, 개인상담소 등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정부의 교정국과의 상호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39개 주에서는 교도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더 많은 주들이 교도소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프로그램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마다 성폭력 가해자 수가 많이 다르고 처리 방법도 시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도 주마다 다른데, 28개 주는 성폭력 가해자가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1년 이상 걸리지만, 19개 주는 약 3년 기간이 필요하고, 8개 주는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North Dakota와 Arizona는 심지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공통되는 요소는 가해자의 평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심리교육, 인지행동 집단 치료, 집중적인 치료(집단 또는 시설), 지역 사회에서 연장 교육과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14개 주만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해서 관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7개 주만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는 대부분이 교도소와 지역 사회이지만, Washington 주에서는 중간 정도의 보호 장치 하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이라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인 특성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하고, 인터넷 포르노에 접촉해서 성적인 환상이나 자극을 받아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인지행동 치료기법에 근거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1980년대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입 과정에서도 인지행동 기법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도입했다.

① Gracewell 거주지 치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988년도에 영국에서 유일한 주거지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신들의 주거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 것 때문에 주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학교와 가깝고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외부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기에 주민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센터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센터는 1994년 결국은 폐쇄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센터에서는 고위험 군에 대한 치료 효과도 좋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다른 곳에 전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6-13개월 치료 기간이었고, 가해자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었다. 치료는 집단치료와 개인치료, 저녁, 주말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치료 프로그램 4가지 요소

- 1) 피해자 알아차리기와 공감하기
- 2) 공격 행동에서 성적인 환상의 역할 알아차리기
- 3) 성과 성관계
- 4) 자기주장 훈련과 분노 조절

② 교도소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SOTP program 개발

1991년 Kenneth Baker 내무장관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The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OTP)을 발표해서 본격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4년 이상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 성폭력 행동을 열거하고 강조하기
- 성폭력 행동을 중지하기
-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 좀 더 자유스러운 삶을 영유하기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를 위해서는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은 교도관 심리학자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가해자들의 위험도를 신중하게 평가한 후에 참여 하도록 한다.

③ 최근 영국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경향

2002년에 영국과 Wales의 HM 교도소 서비스 총 디렉터 국가의 보호관찰서의 총 서비스 디렉터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평가와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초기 구금상태에서 석방과정까지 매끄럽게 협조관계를 해서 교도소와 지역 사회에서 법원이 명령한 절차대로 가해자들이 참가하도록 하겠다.

두 서비스 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성폭력 가해자들을 협조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는 성폭력 가해자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비협조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국에서는 협조적인 관리 하에, 각 교도소의 프로그램을 협조적으로 지지하고, 직원들의 선발 훈련 과정에도 협조하고, 성폭력 가해자 평가 과정, 질 높은 서비스의 전달체계, 사후 관리기관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인증 절차를 마련해서 근거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과 Wales에서는 이미 인증된 27개의 프로그램을 매년 감사를 실시해서 재 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대체로 집단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3명의 직원이 한 집단에 같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각 가해자들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한다.

④ 추후 프로그램

1996년에 인증된 추후 프로그램(Booster Program)은 성폭력에 관련된 핵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해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 18개월 이내에 35회기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2-3개월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서 치료 효과가 적거나 소극적이어서 재발 위험이 높은 가해자들을 위한 좋은 사후 관리 모델이 되고 있다.

Mann과 Thornton(1988)은 SOT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가. 이 프로그램은 25개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고,
- 나. 단기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조직적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 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비전문 치료자를 사용하고
- 라. 프로그램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치료의 스타일에도 강조를 하고

마. 매년 인증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후발 주자이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작업과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조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면은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4) 호주

호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늦었지만,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늦었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고 복역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고 이들에 대한 치료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주의 북부, 남부와 Tasmania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교도소와 지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이 성폭력을 부정하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고, 학습과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성적인 가해자들의 변태적인 환상 및 성적인 흥분 조절을 다룬다. 또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에 가해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실시하지만, 지역 보건에 관련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법적인 관할 지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위험도가 높은 집단은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위험도가 낮은 집단은 지역 사회에 근거지를 둔 집단에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 뉴질랜드

1989년에 뉴질랜드의 법무부에서 성폭력으로 확정된 죄수를 가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도를 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창자인 Hudson(1995) 등은 수감된 성폭력 가해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고, 치료 받지 않은 수감자들의 재발률이 높고,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시도했다.

① Kia Marama 프로그램

60개의 침실이 딸린 건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디를 주위에 조성했고, 5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교도관들은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의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도 맡고 있다. 주요한 프로그램은 29주(33회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상담도 같이 제공한다. 집단은 대체로 8-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료자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회기를 주당 3회기 제공한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외부에 나가면 전담 요원이 이들을 지역의 다른 치료소에 연결을 시켜주고, 자조 모임에도 연결을 시켜 주어서 재발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행된다.

㉠ 규정 안내와 집단 정형화하기: 집단 규정 안내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실시하는데, 이 시기에는 집단의 규칙, 규제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를 받는다(6회기 동안).

㉡ 자신의 성폭력 이해하기: 17회기 동안에 걸쳐서 진행한다. 이 회기들에서는 자신들의 성폭력 범행들에 관해서 자세히 진술하고 털어 놓는다. 또한 성에 관한 왜곡된 인지도 표현하게 해 주어서 자신들의 성폭력 발생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재 조건화 치료 단계로서 내적인 성적 민감성을 알아차리고 자위를 통해 성적인 재 조건화를 시도한다.

㉢ 피해자의 성폭력 영향 알아차리기와 공감훈련을 실시: 이 주제로 12회기 동안 실시하는데,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경험한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의 증언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보도록 한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자에 관한 자서전적인 증언을 쓰도록 하고, 피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역할도 해본다.

㉣ 감정 통제하기: 12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정서에 관한 인지 모델을 설명해 주고, 성적인 가해 행동과 연관된 정서를 알아차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한다.

㉤ 재발 방지 훈련: 이 훈련은 12회 동안 실시한다. 재발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해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 이 프로그램들을 수료한 가해자들은 추후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6) 유럽과 그 외의 나라들

유럽 연합은 정책적인 면에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각 나라의 다양하고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 국가들의 프로그램들은 정신 분석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에 따라서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각국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교도소와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매년 인증 작업을 벌이는 감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근거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집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치료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 여성 가해자들이나 청소년 가해자들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자신의 성폭력 부정을 다루기, 인지왜곡을 다루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하기, 재발 방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사회 기술훈련 향상하기 등이다.
-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요소로서 성적인 흥분과 환상을 교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집중도에서는 정확한 모델이 없다. 그러나 대체로 기간이 긴 것이 사실이다.

2. 우리나라의 성폭력 교정·치료의 개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정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체로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성폭력 가해자들의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 있다.

(1) 치료 기간이 단기간

교도소에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2주라는 단 기간에 걸쳐 하루 2-4시간에 실시해서 총 20-40시간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났다. 시간이 늘어난 점은 이전에 비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2) 교도소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의 어려움

교도소의 분위기상 성폭력 가해자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창피하고 멸시하는 분위기이기에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들을 교도소에서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상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고, 다른 범죄자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근거 중심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부족

현재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에 배포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로 근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또한 현재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한 치료자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강사들을 이용해서 교육 식으로 이루어 실시하기에 교육의 전체적인 면에서 연결성이 적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4) 훈련된 성폭력 가해자 치료자들의 부족

최근에 법무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자들을 특채해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있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치료하기에

는 태부족한 상태에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 나가서 집단 치료를 하는 상담원들도 집단 상담기술이나 역동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에 집단치료 보다는 주입식의 집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 가해자 치료 전문양성이 시급하다 보겠다.

(5) 교도관들의 부정적인 태도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대체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에 부정적이기에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성폭력 치료과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보호관찰소도 있다.

제 2 부

성폭력 가해자 특성 연구

제 3 장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연구

제 1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통계적 분석 방안

제 2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2.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3.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4.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제 3 절 제언

제 3 장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범죄로 인해 서울, 경기, 호남, 경상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등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자료 중 누락된 항목이 많은 1부를 제외하고 141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중 보호관찰소는 서울, 경기, 호남 지역에서 7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도소는 경상 지역의 3곳에서 7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 도구

1) 우울 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Beck(1978)이 고안하고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역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2) 분노 척도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척도(STAXI-K : Koream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중 현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되며 상태분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 이었다(전경구 등, 1997).

3) 성충동 대처 척도

박영숙, 전영민(2001)년 제작한 중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중 고등학생용 성 대처행동 검사 문항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성욕통제, 성적공상, 성적행동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숙, 전영민(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 요인별로 .66, .69, .78이었다.

4) 자존감 척도

자존감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3,5,8,9,10번은 역환산하여 처리한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평가되며 총점의 범위는 0~30점이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다.

5) 사회적 고립감척도

Mau(1992)가 개발한 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 강완숙(2000)의 소외감 도구를 근거로 하여 이은숙(200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이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고립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강간통념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강간에 대한 통념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범위는 20~180점이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7) 공감 척도(K-EQ)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하고 Lawrence 등(2004)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 척도를 허재홍, 이찬중(2007)이 번안, 수정하여 만든 K-EQ(Korean Empathy Quotient)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된다. 허재홍, 이찬중(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8) 성대응 척도

성범죄자의 성과 관계된 대응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Cortini와 Marshall(2001)의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CUSI : Coping Using Sex Inventory)를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유·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성적 행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 성적 환상, 자위행위, 포르노그래프 이용, 강제적 성행위 등의 네 가지 범주의 행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CUSI의 총 16문항 중 4번 문항 '고정적인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를 제외하고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라는 문항을 첨부하여 전체 16문항으로 보완,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평가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성행위를 자주 사용할수록 점수가 높다.

9) 충동성 척도

충동성척도는 Barratt BIS-II(Barratt Impulsiveness Scale-II)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이다. 23개 문항으로 인지충동성(6문항), 운동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문항 1,3,4,5,6,8,9,11,16,19,23번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Stober(2001)의 SDS-17을 김용석 등(2008)이 번안하여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 개발한 것이다.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11) CAGE 알콜의존척도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는 Ewing(1984)이 개발한 음주문제 선별검사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는 금주에 대한 생각, 주위 사람들의 비난, 음주에 대한 죄책감, 해장술 경험 여부를 묻는다. 4문항에서 1개 이상 “예”라고 답한 경우 알콜 중독가능자로 간주한다. Mayfield 등(1974)과 Ewing(1984)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3점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정의하였다. 김진영(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12) 양성평등척도

이번 연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11문항으로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한다. 총점은 1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13) 수치심척도

1987년 Harder와 동료 연구자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고자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FQ()를 심중운(1999)이 번안하여 만든 것이다. 이 척도는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한다. 전체 10문항으로 ‘당혹감’, ‘유치함’ 등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Harder와 Zalma(199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14) YSQ 척도(유기학대, 정서결핍)

Young(1990)의 초기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식질문지를 번안하여 만든 이동우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나와 완전히 다르다’에서부터 ‘나와 완전히 일치 한다’의 6점 척도이며 총 9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부적응 도식이 뚜렷함을 나타낸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5개 상위영역하의 18개 하위 도식척도로 구성되며, 각 하위 도식척도는 5문항으로 되어있다. 하위 척도 중 유기, 불신/학대와 정서결핍에 관련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3〉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요인

심리도식영역	하위도식	문항번호
단절과 거절	정서적 결핍	1, 4, 7, 10, 13
	유기	2, 5, 8, 11, 14
	불신/학대	3, 6, 9, 12, 15

15) PCL-R(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PCL-R은 Hare(1991)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구들과는 달리 개인 내적 심리요인, 즉 기생적인 생활방식, 다양한 범죄력, 문란한 성생활, 책임의식 부재, 공감능력 부재, 기만경향 등을 측정한다. 한국판 PCL-R의 내적합치도(α)는 .84이며 평가자간 신뢰도(ICC)는 .93인 것으로 알려졌다(Hare 저, 조은경, 이수정 역, 2008). 각 문항은 0~2점(0=아니다, 1=아마도, 2=그렇다)으로 평가되며 총점 범위는 0~40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문항을 자기보고형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통계적 분석 방안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성폭력 가해자 전체를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일반적인 사항과 성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빈도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 t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별 비교를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대응 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예측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전체 대상자 141명을 보호관찰소 집단과 교도소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연령대별 분포와 평균 연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 평균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집단별 평균 연령 비교 결과

	전체 (%)	보호관찰소 (%)	교도소 (%)	
20대(18~29세)	29(22.0)	22(33.3)	7(10.6)	$\chi^2=19.25$ 0**
30대(30~39세)	39(29.5)	24(36.4)	15(22.7)	
40대(40~49세)	47(35.6)	14(21.2)	33(50.0)	
50대 이상	17(12.9)	6(9.1)	11(16.7)	
평균	37.87(10.04)	34.38(10.42)	41.36(8.36)	$t=-4.248$ **
연령(SD)	04)))	

** $p < 0.1$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40대(40~49세)가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소 집단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도소 집단에서는 40대가 50.0%로 가장 많았다. 집단 간에 연령대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250$, $p < 0.1$).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87세 이었고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집단의 평균 연령은 각각 34.38세, 41.36세로 교도소 집단의 평균 연령이 보호관찰소 집단의 평균 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248$, $p < .01$).

1) 일반적 사항

각 집단별 결혼 상태, 학력, 직업, 음주습관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표 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각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결혼 상태는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집단 모두 미혼이 각각 44명(65.7%), 31명(47%)으로 제일 많았다. 학력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고등학교 중퇴/고졸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음주 습관에 있어서는 주 1~2회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결혼상태, 학력, 음주습관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220^{**}$, $p < .01$).

〈표 5〉 일반적 사항 비교 결과

		전체 (%)	보호관찰소 (%)	교도소 (%)	χ^2
결혼 상태	미혼	75(56.4)	44(65.7)	31(47.0)	4.733
	기혼(동거)	23(17.3)	9(13.4)	14(21.2)	
	이혼(별거)	34(25.5)	14(20.9)	20(30.3)	
	기타	1(0.8)		1(1.5)	
학력	초졸 이하	13(9.7)	7(10.3)	6(9.1)	.261
	중졸 이하	31(23.1)	16(23.5)	15(22.7)	
	고졸 이하	60(44.8)	29(42.6)	31(47.0)	
	전문대졸/ 대학중퇴	23(17.2)	14(20.6)	9(13.6)	
	대졸 이하	6(4.5)	2(2.9)	4(6.1)	
	대학원 이상	1(0.7)		1(1.5)	
직업	학생	6(4.8)	3(4.5)	3(5.2)	19.220**
	판매/서비스	22(17.6)	8(11.9)	14(24.1)	
	사무직	5(4)	4(6.0)	1(1.7)	
	임시직	11(8.8)	11(16.4)		
	노동/노무	17(13.6)	10(14.9)	7(12.1)	
	생산/기능	23(18.4)	7(10.4)	16(27.6)	
	농수산	3(2.4)	2(3.0)	1(1.7)	
	기타	38(30.4)	22(32.8)	16(27.6)	
음주 습관	안 함	26(4.8)	13(20.0)	13(22.4)	.611
	월 1회	22(4.8)	13(20.0)	9(15.5)	
	주 1~2회	31(4.8)	17(26.2)	14(24.1)	
	월 2~3회	28(4.8)	15(23.1)	13(22.4)	
	주 3~5회	16(4.8)	7(10.8)	9(15.5)	

* $p < 0.5$, ** $p < 0.1$

2) 성범죄 전력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내용과 이번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최초 입건 연령에 대해 보호관찰소 집단은 13~18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도소 집단에서는 19~24세와 25세 이상이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보호소에 관련된 성폭력 가해자들이 연령이 교도소에 관련된 성폭력 가해에 비해서 연령이 낮은 것은 성폭력의 심각도가 비교적 사소한 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린 시절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지속하면 청소년 후반기에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성범죄 전력에 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는 응답이 각각 41,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총 수용 기간에서는 보호관찰소 집단은 2년 미만 이 교도소 집단에서는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수용 기간 내 문제 행동은 두 집단 모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전에 폭력 범죄 전력에 대한 내용에서도 해당 없다는 응답이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았다.

집단별로 성범죄 전력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수용 기간과 과거 성범죄 전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1.131, p<.01, \chi^2=12.060, p<.05$). 그 외에 최초경찰입건연령, 폭력범죄전력, 이번 사건 폭력 사용 여부, 성범죄 유형, 책임수용, 수용 기간 내 징벌 경험 유무에서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성범죄 전력 비교 결과

		전체 (%)	보호관찰소 (%)	교도소 (%)	χ^2
최초 입건 연령	13세 미만	86,3(6,3)	2(3,1)	6(9,5)	8,325
	13~18세	43(33,9)	27(42,2)	16(25,4)	
	19~24세	25(19,6)	8(12,5)	17(27,0)	
	25세 이상	35(27,6)	18(28,1)	17(27,0)	
	해당 없음	16(12,6)	9(14,1)	7(11,1)	
과거 성범죄 전력	5회 이상	4(3,1)		4(6,3)	12,060*
	4회	2(1,6)	1(1,6)	1(1,6)	
	3회	12(9,4)	2(3,1)	10(15,6)	
	1회	31(24,2)	20(31,3)	11(17,2)	
	이번이 처음	79(61,7)	41(64,1)	38(59,4)	
폭력 범죄 전력	3회 이상	10(8,2)	4(6,5)	6(10,0)	4,142
	1~2회	39(32)	25(40,3)	14(23,3)	
	해당 없음	73(59,8)	33(53,2)	40(66,7)	
이번 사건 폭력 사용	현저한 폭력 사용	28(21,9)	16(24,2)	12(19,4)	.447
	폭력 사용 않음	100(78,1)	50(75,8)	50(80,6)	
성범죄 유형	피해자와 직접접촉	78(61,4)	37(56,9)	41(58,6)	1,135
	접촉 없었음	49(38,6)	28(43,1)	21(30,0)	
책임수용	부인함	29(22,5)	18(27,7)	11(17,2)	2,042
	수용함	100(77,5)	47(72,3)	53(82,8)	
시설수용 기간	5년 이상	61(50,4)	17(29,3)	44(69,8)	31,131**
	2~5년	30(24,8)	14(24,1)	16(25,4)	
	2년 미만	30(24,8)	27(46,6)	3(4,8)	
수용기간 내 징벌	유	25(19,7)	9(14,5)	16(24,6)	2,047
	무	102(80,3)	53(85,5)	49(75,4)	

* $p < 0.5$, ** $p < 0.1$

3)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항목이 표 7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18세 이상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한 명의 여성이었다. 피해자와의 연령차는 10살 이내와 10살 이상이 비슷한 편이었고, 피해자가 여성, 남성 모두인 경우도 있었다.

각 집단별로 성범죄 전력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76, p<.01$) 그 외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유형과 성별,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피해자와의 관계 비교 결과

		전체 (%)	관찰소 (%)	교도소 (%)	χ^2
피해자와관계	알던사람(친족아님)	25(19.5)	13(20.0)	12(19.0)	1.001
	친족	11(8.6)	4(6.2)	7(11.1)	
	모르는 사람	92(71.9)	48(73.8)	44(69.8)	
피해자 유형	장애인/13세 미만	13(10.2)	5(7.8)	8(12.7)	2.542
	13~18세	27(21.3)	11(17.2)	16(25.4)	
	18세 이상	87(68.5)	48(75.0)	39(61.9)	
피해자와 연령차	10살 이상 차이	56(44.1)	23(35.9)	33(52.4)	3.482
	10살 이내 차이	71(55.9)	41(64.1)	30(47.6)	
피해자수	1인	96(73.8)	57(86.4)	39(60.9)	10.876**
	2인 이상	34(26.2)	9(13.6)	25(39.1)	
피해자 성별	여성	129(98.5)	65(98.5)	64(98.5)	.000
	여성, 남성 모두	2(1.5)	1(1.5)	1(1.5)	

* $p < 0.5$, ** $p < 0.1$

2.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한 결과에서 자존감 척도와 공감 척도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자존감 척도에서는 보호관찰소 집단이 교도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t=-2.293, p<.05$) 공감 척도에서도 보호관찰소 집단이 교도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048, p<.05$).

〈표 8〉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성폭력 가해자		관찰소		교도소		t
	M	SD	M	SD	M	SD	
우울	13.25	9.64	13.91	10.418	15.52	9.338	-.935
분노	13.60	4.57	13.49	3.710	13.48	4.533	.021
성충동 대처	20.97	4.89	21.52	4.645	20.68	4.828	1.042
자존감	19.84	4.56	18.04	5.197	19.90	4.271	-2.293*
소외감	3.79	4.10	4.29	4.430	3.43	3.583	1.055
강간통념	65.46	32.67	69.07	29.836	67.42	32.029	.306
공감	50.90	8.14	48.78	8.284	51.67	7.878	-2.048*
성대응	25.25	9.97	24.45	8.121	25.76	11.047	-.788
충동성	25.92	9.18	27.43	7.737	24.85	10.048	1.639
사회적 바람직성	43.27	4.56	41.21	5.289	42.48	6.235	-1.298
알콜의존	1.79	1.37	1.42	1.226	1.83	1.361	-1.439
양성평등	18.84	5.12	19.93	5.251	18.94	5.223	1.102
수치심	19.29	7.88	19.23	6.839	18.71	7.991	.330
YSQ	35.44	14.49	31.54	14.449	36.28	14.632	-1.560
PCL-R	28.54	5.63	28.29	5.231	28.51	6.834	-.159

* $p < 0.5$

3.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성폭력 가해자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9>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성대응과 PCL 척도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20, p<.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치심과 YSQ 척도($r=.536, p<.01$), 강간통념과 YSQ 척도($r=.526, p<.01$), 양성평등과 강간통념 척도($r=.508, p<.01$), YSQ와 충동성 척도

($r=.505, p<.01$)도 각각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울과 자존감 척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 관계($r=-.519, p<.01$)를 나타내고 있다.

4.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성대응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14개 척도 중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제외한 13가지 변인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단계적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F 값은 32.965($p<.01$)로 유의하였으며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7%이었다. 성대응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반사회적 성격특성(PCL-R), 분노, 성충동대처, 양성평등 척도이었다.

〈표 10〉 성대응 전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적 변인	B	β	t	F	Adj-R2
성대응	PCL	.706	.388	5.824**	32.965	.477
	분노	.565	.245	3.708**		
	성충동대처	.505	.250	3.964**		
	양성평등	.337	.183	2.781**		

* $p<.05$, ** $p<.01$

<표 9>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우울	-													
2-분노	.468**	-												
3-성충동대처	.112	.236**	-											
4-자존감	-.519**	-.380**	-.088	-										
5-소외감	.414**	.416**	.295**	-.464**	-									
6-강간통념	.354**	.406**	.311**	-.338**	.360**	-								
7-공감	-.086	.040	-.010	.214**	-.132	.044	-							
8-상대응	.295**	.471**	.385**	-.288**	.348**	.444**	.125	-						
9-충동성	.214*	.297**	.102	-.450**	.347**	.282**	-.210**	.407**	-					
10-사회적 비판직성	-.216*	-.015	.332**	.337**	-.010	-.023	.258**	.127	-.232**	-				
11-알콜의존	.228*	.089	.095	-.101	.155	.208*	.030	.122	.150	.023	-			
12-양성평등	.291**	.255**	.088	-.467**	.279**	.508**	-.096	.420**	.427**	-.141	.036	-		
13-수치심	.466**	.479**	.379**	-.346**	.378**	.477**	-.097	-.367**	.354**	.084	.284**	.229	-	
14-YSQ	.452**	.484**	.258**	-.428**	.461**	.526**	-.138	.414*	.505**	-.028	.203*	.457**	.536**	-
15-PCL	.062	.323**	.151	-.086	.274**	.406**	.189	.620**	.458**	.098	.007	.424**	.266**	.404**

* $p < .05$, ** $p < 0.1$

제 3 절 제 언

본 연구는 성범죄로 수감 중인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수감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7.87세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보호관찰소 집단과 교도소 집단의 평균 연령은 각각 34.38세, 41.36세이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48, p<.01$).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집단의 평균 연령이 보호관찰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대 비율도 교도소 집단은 보호관찰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40-50대(66.7%)가 많았다.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미혼이 가장 많았으나 보호관찰소 집단은 절반이 넘는 비율(65.7%)이었고 교도소 집단은 47% 정도이었다. 교도소 집단은 보호관찰소 집단보다 별거를 포함한 이혼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 학력 역시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42.6%, 47.0%)이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 학력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 대한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음주습관에서도 두 집단 모두 술을 아예 안마시거나 월 1회 정도 마시는 경우보다 주에 1-2회 이상으로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고 비율도 유사하였다. 직업에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9.220^{**}, p<.01$).

성범죄 전력 양상에서 시설 수용 기간에서 교도소 집단은 5년 이상(69.8%)이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소 집단은 2년 미만(46.6%)이 가장 많았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1.131, p<.01$). 시설 수용 기간은 보호관찰소 집단은 2년 미만(46.6%), 교도소 집단은 5년 이상(69.8%)이 가장 많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1.131, p<.01$).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에서 두 집단 모두 이번이 처음인 경우(61.7%, 64.1%)가 가장 많았고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2.060, p<.05$).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 수는 보호관찰소 집단은 1인 이상이 86.4%, 교도소 집단이 60.9%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0.876, p<.01$). 이 외의 일반적 사항, 성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미혼의 30~40대로 평균 학력수준 고졸 이하, 기타 직업군 종사자가 가장 대표적인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었

다.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의 성폭력가해자들을 비교했을 때, 교도소 집단이 평균 연령 41세에 재소기간 5년 이상, 피해대상 2인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별거 및 이혼 경향 및 최초 입건 연령이 약간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제반 심리적 특성의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도소 집단이 보호관찰소 집단보다 자존감이 높고, 공감수준도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이는 더 오랜 수용기간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교정개입에 따른 보다 바람직한 응답태도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전체 141명의 응답에 근거했을 때, 성폭력 가해자의 성대응 행동은 반사회적 성격특성(PCL-R)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20, p<.01$)를 보이며, 수치심과 대인관계의 단절과 거절(YSQ) ($r=.536, p<.01$), 강간통념과 YSQ 척도($r=.526, p<.01$), 양성평등과 강간통념 척도($r=.508, p<.01$), YSQ와 충동성 척도($r=.505, p<.01$)에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우울과 자존감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r=-.519, p<.01$)를 나타냈다. 성폭력가해자들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결핍에 관련된 스키마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정서적인 결핍이 높은 사람이 긍정적인 강간 통념을 소유하고 충동 조절에 문제를 보이면 성폭력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성폭력 가해자의 성대응 전략은 반사회적 성격특성, 분노, 성충동 대처, 양성평등 관련사고 등, 4가지 변수가 47.7%의 설명량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는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는 단시일에 변화를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에, 분노, 성충동 대처, 양성평등사고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일부 소수의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달리 다수의 실제 사례의 응답을 기초로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상은 유사하지만, 보호관찰소군이 좀 더 어리고 피해자의 수가 적은 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폭력가해자의 특성은 유사한 양상으로 이들의 성대응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4가지 정도로 대표될 수 있었다. 물론 여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던 관계로 강간통념과 대인관계의 단절과 거절의 심리도식(YSQ) 같이 중요한 변수들이 통계적인 예측변수에서는 높은 상호상관 탓에 추출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성폭력 가해자들의 성대응 행동을 예측하는 반사회성, 충동성, 분노, 양성평등의 간과 등의 요인은 성폭력

가해자 치료개입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수강 명령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보고는 다분히 사회적 바람직성 및 긍정적 응답태도로서 상당부분 곡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한 성행동의 예측변수들과 가해자의 제반 인구학적 특성을 밝힌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넘어서서 면대면 면담 등을 통한 개별 심층사례 연구들이 동원되어야만 보다 적나라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규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성폭력 가해자의 예방 및 치유, 재활(사회복귀), 재발 방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과 조화로운 역할 분담 없이는 금번 연구처럼 상당히 연구진행(특히 대상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제한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계속 보일 것이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왕이면 여러 부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획득의 표준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성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단계 및 사법, 교정절차, 치유 및 재활, 사회복귀, 재발방지의 전 단계에서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성폭력 사범의 특성을 추적 기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조사양식이 있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특성연구의 기초자료가 축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 부처에서 원스톱 서비스 형식으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대응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 전문인력이 사태의 초기부터 개입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면밀히 수집하는가 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연 어떠한 전문가가 성폭력가해자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관계부처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개입 및 대응방안도 매우 다양함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3 부

성폭력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제 4 장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제 1 절 연구 방법

제 2 절 연구 결과

제 3 절 제언

제 5 장 성폭력 가해자 예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제 1 절 연구 방법

제 2 절 연구 결과

제 3 절 제언

제 6 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실태조사

제 1 절 연구 방법

제 2 절 연구 결과

제 3 절 제언

제 4 장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연구에서 실시한 가해자 프로그램은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 문제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처벌 위주의 성폭력 가해자 정책에서 전환하여 가해자 특성연구를 기반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성인식과 왜곡된 인지체계를 수정하여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의 상습적인 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점은 성폭력 가해자의 폭력적 행동이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피드백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선행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한다. 둘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의 가해자 관점의 시각을 피해자 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 등을 수정한다. 셋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인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한다. 넷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인정을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에서 여성주의 인지행동적 접근을 위해 성폭력은 피해자의 부주의나 원인제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성 중심적 사고와 권력 불평등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킨다. 이에 여성주의 관점은 가해자의 성인식 및 통념의 인식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변화를 강조한다. 또한 인지행동접근은 가해자의 개인적 인지왜곡의 수정,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공감훈련, 사회적 대처기술의 향상 등을 통한 행동변화를 강조하여 성폭력 가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준다.

집단치료 프로그램으로 총 15회기에 회기당 3시간 30분씩 진행하며 가해자가 성폭력 행동의 선행원인을 인정하고, 잘못된 인지를 수정하고, 피해자의 상처 공감능력과 성폭력 위험상황 대처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

적 구성요소로는 성범죄의 고유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의 성인식과 강간통념, 인지왜곡, 공감결핍, 낮은 자존감이다.

성폭력 행위의 변화를 위하여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행위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과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둘째, 성폭력 행위 과정에서, 단지 술과 자제할 수 없는 성충동으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체계가 문제하는 것을 다룬다. 셋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의 책임인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후유증 이해와 상처공감훈련을 한다. 넷째,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의 자존감향상과 위험상황대처기술을 증진시켜, 가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강화시킨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초기단계는 주로 참여자들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상화, 합리화, 정당화, 최소화 등의 방어기제와 왜곡된 성인식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중기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직면하는 과정으로 성폭력 사실의 부인과 인정, 성폭력 행위의 책임성 인정, 성폭력 행이 발생과정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인식하기 등의 참여자들의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후기 단계는 참여자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피해자 상처공감훈련, 위험상황 대처기술훈련, 자존감 향상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우울, 강간통념, 공감수준, 성대응, 고독감을 변인을 중심으로 9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사례에 따라 변차가 있으나 대부분 5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보였다(변혜정 등, 2005).

현재 이 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대상자 성폭력 성인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2006년 전국 7개 지역 11개 기관에서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부터 비로소 미흡하지만 체계적으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13개 기관에서 확대시행하고 있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경상도, 강원도에 소재한 8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 9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사전, 사후에 실시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설문결과 누락문항이 있는 척도를 제외하여 척도에 따라 대상자가 56~91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기술통계, t 검정, 다중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우울 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Beck(1978)이 고안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역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2) 분노 척도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척도(STAXI-K : Koream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중 현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되며 상태분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다(전겸구 등, 1997).

3) 성충동 대처 척도

박영숙, 전영민(2001)년 제작한 중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중 고등학생용 성대처행동 검사 문항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성욕통제, 성적공상, 성적행동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숙, 전영민(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 요인별로 .66, .69, .78이었다.

4) 자존감 척도

자존감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3,5,8,9,10번은 역환산하여 처리한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평가되며 총점의 범위는 0~30점이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다.

5) 강간통념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강간에 대한 통념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범위는 20~180점이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6) 공감 척도(K-EQ)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하고 Lawrence 등(2004)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 척도를 허재홍, 이찬종(2007)이 번안, 수정하여 만든 K-EQ(Korean Empathy Quotient)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된다. 허재홍, 이찬종(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7) 성대응 척도

성범죄자의 성과 관계된 대응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Cortini와 Marshall(2001)의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CUSI : Coping Using Sex Inventory)

를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유·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성적 행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 성적 환상, 자위행위, 포르노그래프 이용, 강제적 성행위 등의 네 가지 범주의 행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CUSI의 총 16문항 중 4번 문항 ‘고정적인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를 제외하고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는 문항을 첨부하여 전체 16문항으로 보완,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평가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성행위를 자주 사용할수록 점수가 높다.

8) 충동성 척도

충동성척도는 Barratt BIS-II(Barratt Impulsiveness Scale-II)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이다. 23개 문항으로 인지충동성(6문항), 운동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문항 1, 3, 4, 5, 6, 8, 9, 11, 16, 19, 23번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9)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Stober(2001)의 SDS-17를 김용석 등(2008)이 번안하여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 개발한 것이다.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10) 양성평등척도

이번 연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11문항으로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한다. 총점은 1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3. 통계적 분석 방안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대응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중졸이하/고등중퇴이상), 성범죄 전력(초범/재범), 피해자의 연령(13세 미만/13세 이상), 프로그램 교육시간(40

시간미만/40시간 이상)을 나누어 독립 t 검증 또는 Mann-whitney검증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척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전체 대상자 91명의 사전 사후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91명은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69세 이상의 성인으로 평균 37세 정도였다.

1) 일반적 사항

결혼 상태는 88명 가운데 49명이 미혼이었으며, 20명이 이혼(별거포함)상태, 기혼(동거포함)이 1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89명 가운데 고졸이하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중퇴/졸업이 20명,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가 16명, 초 등 중퇴/졸업이 4명, 대졸이 11명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학력적인 면에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은 87명 가운데 기타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대상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이 16명, 생산/기능직이 11명, 노동/노무직이 9명, 학생 8명, 사무직이 7명, 농수산이 3명, 임시직/아르바이트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84명 가운데 비음주자가 22명이고, 주 1~2회가 20명, 월 1회가 16명, 월 2~3회와 주 3~5회는 동일하게 13명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경우 52명이 소주를 마시고 13명만이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성범죄 전력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은 91명 가운데 교도소가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관찰소 18명, 구치소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입건연령은 90명 가운데 13~18세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25세 이상은 동일하게 23명, 13세 미만이 3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 있는 사람들 18명 가운데 17명이 이전에 입

건경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성범죄 유형은 86명 가운데 60명이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26명만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범죄 전력은 87명 가운데 65명이 첫 성범죄라고 하였으며, 1회가 14명, 3회가 5명, 4회가 2명, 5회 이상이 1명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전 폭력범죄 전력은 82명 가운데 57명이 과거 전력이 없었으며, 1~2회가 21명, 3회 이상이 4명이었다.

성범죄 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한 경우가 85명 가운데 66명으로 19명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다. 수용기간은 85명 가운데 5년 이상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3명, 2년 미만이 11명, 없는 경우 7명의 순이었다. 현 기관에서의 징벌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85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76명이 징벌경험이 없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에서는 답변한 88명의 피해자 중 1명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고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이었으며, 전혀 모르는 관계가 56명, 알던 사람이 26명, 친족인 경우가 6명의 순이었다. 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인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12명으로 두 번째로 성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3~18세의 중고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11명이었다. 또한, 89명의 응답자 가운데 55명은 피해자와의 연령차가 10살 미만이라고 답했으나, 34명은 자신과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경우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수로 살펴보면 89명 중 68명 1인이고 21명은 2인 이상으로 보고하고, 성범죄 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가해자가 86명 가운데 66명이고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20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구통계학적 정보

		명	%
성별 (N=91)	여성	0	0
	남성	91	100
결혼상태 (N=88)	미혼	49	55.7
	기혼 (동거포함)	19	21.6
	이혼 (별거포함)	20	22.7
	기타	0	100
학력 (N=89)	무학	0	0
	초등중퇴 / 졸업	4	4.5
	중학중퇴 / 졸업	20	22.5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42.7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6	18
	대학졸업	11	12.4
	대학원 이상	0	0
직업 (N=87)	학생	8	9.2
	판매 / 서비스직	16	18.4
	사무직	7	8.0
	임시직 / 아르바이트	2	2.3
	노동 / 노무직	9	10.3
	생산 / 기능직	11	12.6
	농수산	3	3.4
	기타	31	34.1
소속 (N=91)	보호관찰소	18	19.8
	교도소	68	74.7
	구치소	5	5.5
최초 경찰입건연령 (N=90)	13세 미만	3	3.3
	13 ~ 18세	24	26.7
	19 ~ 24세	23	25.6
	25세 이상	23	25.6
	해당없음	17	18.9
성범죄 유형 (N=86)	피해자와 직접접촉이 있음	60	69.8
	접촉이 없었음	26	30.2
성범죄 전력 (N=87)	5회 이상	1	1.1
	4회	2	2.3
	3회	5	5.7
	1회	14	16.1
	이번이 처음	65	74.7

과거 폭력범죄전력 (N=82)	3회 이상	4	4.9
	1 ~ 2회	21	25.6
	해당없음	57	69.5
이번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N=88)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26	29.5
	친족	6	6.8
	전혀 모르는 사람	56	63.6
이번 사건 피해자 유형 (N=87)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12	13.8
	13 ~ 18세	11	12.6
	18세 이상	64	73.6
피해자 성별 (N=88)	여성	87	98.9
	남성	1	1.1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N=89)	1인	68	76.4
	2인 이상	21	23.6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N=89)	10살 이상 현저한 차이	34	38.2
	10살 차이까지는 아님	55	61.8
이번 가해 시 폭력사용(N=86)	현저한 폭력 사용	20	23.3
	폭력 사용하지 않음	66	76.7
이번 가해관련 책임수용(N=85)	책임을 부인함(항소 등)	19	22.4
	책임을 수용함	66	77.6
총 시설수용기간 (N=85)	5년 이상	34	40.0
	2 ~ 5년	33	38.8
	2년 미만	11	12.9
	없음	7	8.2
현 보호관찰기간 또는 재소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징벌경험) (N=85)	있다	9	10.6
	없다	76	89.4
평소 음주정도 (N=84)	안 함	22	26.2
	월 1회	16	19.0
	주 1 ~ 2회	20	23.9
	월 2 ~ 3회	13	15.5
	주 3 ~ 5회	13	15.5
주종 (N=68)	없음	3	4.4
	소주	52	76.5
	맥주	13	19.1
	평균		표준표차
연령(N=86, 단위:세)	37.09		10.685
주량(N=56, 단위:병)	2.23		1.954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우울, 분노, 자존감,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대응, 충동성, 사회적 바람직성, 성충동대처, 양성평등의 10가지 변인 가운데 척도에 성실히 답변하는 지를 가리기 위해 포함된 사회적 바람직성을 제외한 9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우울감이 감소($t=2.013$, $df=78$, $p<.05$, 일방향)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t=3.280$, $df=87$, $p<.001$, 일방향),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t=4.245$, $df=84$, $p<.001$, 일방향). 또한, 공감능력이 향상($t=3.771$, $df=88$, $p<.001$, 일방향)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를 하는 것도 감소하였다($t=2.864$, $df=85$, $p<.05$, 일방향). 이와 함께, 충동성이 낮아졌으며($t=1.958$, $df=80$, $p<.05$, 일방향),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의식도 향상($t=3.349$, $df=87$, $p<0.001$, 일방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t=4.070$, $df=84$, $p<.001$, 일방향),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t=2.584$, $df=84$, $p<.01$, 일방향), 성폭행 피해책임 귀인($t=3.566$, $df=84$, $p<.001$, 일방향), 피해자가 경솔했다($t=3.346$, $df=84$, $p<.0001$, 일방향),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t=2.053$, $df=84$, $p<.05$, 일방향),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t=3.828$, $df=84$, $p<.001$, 일방향)에 대한 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되었다.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는 공감능력에서는 인지공감능력($t=2.905$, $df=88$, $p<.01$, 일방향)과 정서공감능력($t=6.201$, $df=88$, $p<.001$, 일방향)이 향상되었다. 스트레스상황에서 성적인 대처를 하는 하위요인에는 환상, 자위, 포르노 이용, 실제 성행위를 하는 범주들이 있으며 환상($t=2.462$, $df=85$, $p<0.01$, 일방향), 자위($t=1.742$, $df=85$, $p<.05$, 일방향), 포르노 이용($t=3.473$, $df=85$, $p<.001$, 일방향)를 통한 대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충동성은 하위차원인 무계획 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가운데 무계획 충동성이 감소하였다($t=3.092$, $df=85$, $p<.01$, 일방향). 성충동이 있을 시에는 성욕통제, 성적공상, 성적행동을 하는 것 가운데 성적공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t=1.943$, $df=86$, $p<.05$, 일방향).

〈표 12〉 프로그램 효과

		사전 M(SD)	사후 M(SD)	t
우울(N=79)		12.77(9.515)	10.82(10.38)	2.013*
분노(N=90)		12.56(3.308)	12.25(3.621)	.811
자존감(N=88)		19.34(5.422)	21.17(5.892)	-3.280*
강간 동념 (N=85)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10.61(7.209)	7.95(6.464)	4.070***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16.06(9.728)	13.91(9.250)	2.584**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14.36(8.629)	11.91(8.818)	3.566**
	피해자의 경솔	5.84(4.00)	4.51(3.435)	3.346***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5.75(3.90)	4.91(4.198)	2.053*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6.63(4.445)	5.27(3.742)	3.828***
	전 체	59.25(33.25)	48.48(31.23)	4.245***
공감 (N=89)	인지공감	30.07(7.233)	32.33(8.976)	2.905*
	정서공감	10.91(2.381)	12.27(2.071)	6.201***
	사회기술	14.72(2.33)	14.80(3.327)	.255
	전 체	55.69(8.577)	59.39(11.524)	3.771**
성대응 (N=86)	환상	4.70(1.776)	4.30(1.715)	2.462*
	자위	6.70(2.377)	6.30(2.507)	1.742*
	포르노 이용	4.52(1.938)	3.88(1.506)	3.473***
	실제 성행위	7.11(2.296)	6.81(2.578)	1.296
	전 체	23.02(6.960)	21.30(7.165)	2.864*
충동성 (N=81)	무계획충동성	19.64(4.713)	18.21(5.028)	3.092**
	운동 충동성	12.27(3.186)	12.09(3.679)	.541
	인지 충동성	13.89(3.040)	13.59(3.328)	.886
	전 체	47.01(9.474)	45.40(10.633)	1.958*
성충동 대처 (N=87)	성욕통제	12.89(2.408)	12.44(2.537)	1.592
	성적공상	1.83(0.865)	1.63(0.864)	1.943*
	성적행동	7.53(2.458)	7.35(2.706)	.584
	전 체	22.24(3.507)	21.42(3.771)	1.933*
양성평등(N=88)		18.94(5.03)	17.20(5.11)	3.349***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 가운데 학력, 성범죄 전력(초범/재범), 첫 입건연령, 피해자의 연령, 교육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를 검증하였다.

학력수준에서는 학력을 중졸이하와 고등중퇴이상의 학력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강간통념척도에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의 강간통념이 더 높았으며($U=475.000$, $N1=22$, $N2=63$, $p < .05$), 하위요인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U=506.000$, $N1=22$, $N2=63$, $p < .05$),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U=453.000$, $N1=22$, $N2=63$, $p < .05$),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U=493.000$, $N1=22$, $N2=63$, $p < .05$), 피해자의 경솔($U=465.000$, $N1=22$, $N2=63$, $p < .05$)에서 더 강간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대응 척도에서는 저학력자들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U=483.000$, $N1=22$, $N2=63$, $p < .05$), 환상($U=453.000$, $N1=22$, $N2=63$, $p < .05$), 실제 성행위($U=503.000$, $N1=22$, $N2=63$, $p < .05$)의 하위요인에서도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더 높은 수준이었다. 충동성척도에서도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이 충동성이 더 높았으며($U=413.000$, $N1=22$, $N2=59$, $p < .05$), 하위요인에서는 무계획 충동성($U=450.500$, $N1=22$, $N2=59$, $p < .05$)과 인지충동성($U=451.500$, $N1=22$, $N2=59$, $p < .05$)에서 유의미하게 고학력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충동대처척도에서는 학력이 낮은 경우 성충동대처의 결과가 높았고($U=524.500$, $N1=23$, $N2=64$, $p < .05$), 하위요인인 성욕통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의 수준이 높았다($U=390.000$, $N1=23$, $N2=64$, $p < .01$).

성범죄 전력 가운데 초범과 재범에 따른 결과는 성대응 척도에서 재범자들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U=462.000$, $N1=61$, $N2=22$, $p < .05$), 4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위($U=502.000$, $N1=61$, $N2=22$, $p < .05$), 포르노이용($U=498.500$, $N1=61$, $N2=22$, $p < .05$), 실제 성행위($U=448.500$, $N1=61$, $N2=22$, $p < .05$)의 3가지 요인에서 재범자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충동척도에서도 재범자들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고($U=472.500$, $N1=62$, $N2=22$, $p < .05$), 성적공상($U=434.500$, $N1=62$, $N2=22$, $p < .01$), 성적행동($U=472.000$, $N1=62$, $N2=22$, $p < .05$)의 하위요인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강간통념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서 재범자들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U=496.000$, $N1=61$, $N2=22$, $p < .05$)(표 14 참조).

피해자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는 성충동대처척도에서만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음 ($U=276.500$, $N_1=12$, $N_2=73$, $p<.05$). 이에 성충동대처척도의 하위유형에서 성적행동($U=281.000$, $N_1=12$, $N_2=73$, $p<.05$)에서도 13세 이상의 대상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른 결과는 교육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대상자와 40시간 이상인 대상자 간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자존감 ($t=-2.05$, $df=82$, $p<.05$, 양방검증), 강간통념($t=2.369$, $df=82$, $p<.05$, 양방검증), 공감($t=-2.28$, $df=83$, $p<.05$, 양방검증), 성대응($t=4.283$, $df=79.95$, $p<.001$, 양방검증), 성충동대처($t=2.926$, $df=81$, $p<.01$, 양방검증)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하위요인들을 보면 강간통념에서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t=2.733$, $df=82$, $p<.01$, 양방검증),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t=2.395$, $df=82$, $p<.05$, 양방검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공감에서는 인지공감($t=-2.27$, $df=44.14$, $p<.05$, 양방검증), 정서공감($t=-2.77$, $df=83$, $p<.01$, 양방검증)이 성대응에서는 환상($t=4.707$, $df=78.42$, $p<.001$, 양방검증), 자위($t=2.251$, $df=81.95$, $p<.05$, 양방검증), 포르노이용($t=3.011$, $df=80.20$, $p<.01$, 양방검증), 실제 성행위($t=4.927$, $df=73.48$, $p<.001$, 양방검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충동성에서도 무계획 충동성($t=2.231$, $df=81$, $p<.05$, 양방검증), 인지충동성($t=2.068$, $df=80$, $p<.05$, 양방검증)의 하위요인에서 수준차이를 보였고, 성충동대처에서는 성욕통제($t=1.998$, $df=81$, $p<.05$, 양방검증)의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표 15 참조).

〈표 13〉 학력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

		중졸이하 M(SD)/(N1)	고등중퇴이상 M(SD)/(N2)	U
우울(N=79)		12.20(10.76) N1=20	10.61(10.22) N2=59	498.500
분노(N=89)		12.33(3.93) N1=24	12.26(3.54) N2=65	767.000
자존감(N=88)		20.79(5.60) N1=24	21.31(6.03) N2=64	706.500
강간 통념 (N=85)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9.86(6.79)	7.19(6.24)	506.000*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18.13(9.52)	12.20(8.66)	453.000*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15.54(10.05)	10.49(8.06)	493.500*
	피해자의 경솔 강간에 대한	53.90(3.74)	3.93(3.19)	465.000*
	허위조작	5.81(4.20)	4.76(4.49)	525.000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6.13(3.82)	4.84(3.47)	571.000
전 체		61.40(32.05) N1=22	43.42(29.57) N2=63	475.000*
공감 (N=89)	인지공감	30.75(7.62)	32.81(9.42)	676.500
	정서공감	11.70(2.07)	12.52(2.04)	608.000
	사회기술	14.95(2.03)	14.78(3.67)	761.500
	전 체	57.41(9.65) N1=24	60.12(12.12) N2=65	665.000
성대응 (N=85)	환상	5.13(2.12)	4.03(1.46)	453.000*
	자위	6.31(1.61)	6.31(2.77)	600.000
	포르노 이용	3.77(1.47)	3.93(1.53)	644.500
	실제 성행위	7.27(2.11)	6.68(2.72)	503.000*
전 체		22.50(5.67) N1=22	20.96(7.64) N2=63	483.000*
충동성 (N=81)	무계획 충동성	20.31(5.02)	17.41(4.85)	450.500*
	운동 충동성	13.09(2.68)	11.78(3.92)	482.000
	인지 충동성	14.90(2.97)	13.18(3.29)	451.500*
	전 체	49.81(8.72) N1=22	43.86(10.84) N2=59	413.000*
성충동 대처 (N=87)	성욕통제	14.08(2.27)	11.85(2.38)	390.000**
	성적공상	1.47(.66)	1.68(.92)	677.000
	성적행동	7.21(2.81)	7.43(2.65)	691.500
	전 체	22.78(2.71) N1=23	20.98(3.97) N2=64	524.500*
양성평등(N=88)		18.00(4.84) N1=24	16.65(5.10) N2=64	643.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성범죄 초범/재범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

		초범 M(SD)/(N1)	재범 M(SD)/(N2)	U
우울(N=79)		11.22(11.02) N1=58	10.42(8.24) N2=21	600.000
분노(N=86)		12.17(3.60) N1=64	12.90(3.90) N2=22	571.000
자존감(N=85)		21.46(6.03) N1=63	19.90(5.28) N2=22	561.000
강간 통념 (N=83)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7.55(6.33)	9.00(7.06)	560.000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12.88(8.88)	16.63(9.97)	526.500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11.63(9.13)	12.68(8.43)	628.500
	피해자의 경솔 강간에 대한	4.21(3.41)	5.31(3.52)	563.500
	허위조작	4.59(4.28)	6.45(4.73)	497.000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4.78(3.37)	6.45(4.05)	496.000*
	전 체	45.67(30.90) N1=61	56.54(31.54) N2=22	533.500
공감 (N=86)	인지공감	32.17(9.44)	32.31(6.92)	677.500
	정서공감	12.45(2.11)	11.77(1.97)	574.000
	사회기술	14.78(3.59)	14.77(2.56)	674.500
	전 체	59.40(12.07) N1=64	58.86(9.49) N2=22	696.500
성대응 (N=83)	환상	4.16(1.69)	4.86(1.75)	493.500
	자위	6.11(2.42)	7.00(2.77)	502.000*
	포르노 이용	3.67(1.31)	4.50(1.89)	498.500*
	실제 성행위	6.60(2.60)	7.63(2.47)	448.500*
전 체	20.55(6.73) N1=61	24.00(8.10) N2=22	462.000*	
충동성 (N=79)	무계획 충동성	17.50(5.06)	20.00(4.82)	475.500
	운동 충동성	11.82(3.74)	12.63(2.85)	516.500
	인지 충동성	13.37(3.18)	14.36(3.67)	509.000
	전 체	44.14(10.54) N1=57	48.50(10.46) N2=22	464.500
성충동 대처 (N=84)	성욕통제	12.38(2.59)	12.40(2.42)	676.500
	성적공상	1.46(.76)	2.09(.97)	434.500**
	성적행동	6.95(2.38)	8.54(3.14)	472.000*
	전 체	20.80(3.63) N1=62	23.04(3.84) N2=22	472.500*
양성평등(N=85)		16.77(4.86) N1=63	17.31(5.60) N2=22	659.500

* $p<.05$, ** $p<.01$, *** $p<.001$

〈표 15〉 프로그램 교육시간에 따른 효과차이

		40시간 미만 M(SD)	40시간 이상 M(SD)	t
우울(N=79)		10.67(9.32)	11.34(12.25)	.786
분노(N=85)		12.32(3.47)	12.26(4.16)	.943
자존감(N=84)		20.32(5.34)	23.06(6.60)	.043*
강간 통념 (N=84)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8.68(7.24)	6.40(4.35)	.075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15.74(9.57)	10.16(7.71)	.008**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13.44(9.28)	8.76(7.11)	.019*
	피해자의 경솔 강간에 대한	4.83(3.56)	3.73(3.01)	.157
	허위조작 피해자의	5.77(4.62)	3.83(3.86)	.054
	음란성과 출신배경	5.51(3.88)	4.76(3.37)	.377
전 체		54.00(31.91)	37.66(27.01)	.020*
공감 (N=85)	인지공감	30.60(7.39)	35.63(10.80)	.028*
	정서공감	11.83(1.96)	13.10(2.07)	.007**
	사회기술	15.10(3.20)	14.70(3.09)	.571
전 체		57.54(10.66)	63.43(12.56)	.025*
성대응 (N=84)	환상	4.83(1.89)	3.43(.81)	.000***
	자위	6.68(2.87)	5.60(1.54)	.027*
	포르노 이용	4.20(1.73)	3.36(.80)	.003**
	실제 성행위	7.57(2.87)	5.43(1.04)	.000***
전 체		23.29(7.96)	17.83(3.67)	.000***
충동성 (N=80)	무계획 충동성	19.05(5.27)	16.51(4.23)	.028*
	운동 충동성	12.05(3.07)	11.96(4.55)	.923
	인지 충동성	14.07(3.18)	12.50(3.42)	.042*
전 체		46.67(10.58)	42.64(10.50)	.107
성충동 대처 (N=83)	성욕통제	12.88(2.57)	11.72(2.44)	.049*
	성적공상	1.74(.87)	1.51(.87)	.269
	성적행동	7.75(2.75)	6.68(2.62)	.090
전 체		22.38(3.74)	19.93(3.46)	.004**
양성평등(N=84)		17.72(5.39)	15.90(4.39)	.098

* $p < .05$, ** $p < .01$, *** $p < .001$

4. 프로그램 효과의 영향 요인 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울, 분노, 자존감, 강간통념, 공감, 성대응, 충동, 성충동대처, 양성평등의 변인을 모두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 분노, 공감, 우울의 변인이 모두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Delta R^2=.304$, $F(9,69)=31.06$, $p<.001$).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충동성으로 30.4%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Delta R^2=.304$, $F(1,68)=31.067$, $p<.001$), 자존감까지는 43.9%($\Delta R^2=.439$, $F(2,67)=28.022$, $p<.001$), 강간통념이 포함되면 55.7%($\Delta R^2=.557$, $F(3,66)=29.862$, $p<.001$), 양성평등은 62.8%($\Delta R^2=.628$, $F(4,65)=30.104$, $p<.001$)로 4가지 변인만으로도 60%이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 프로그램에 대한 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R2	ΔR^2	F	β	t
충동성	.314	.304	31.067***	.234	6.562***
자존감	.455	.439	28.022***	.265	7.403***
강간통념	.576	.557	29.862***	.224	6.524***
양성평등	.649	.628	30.104***	.281	8.534***
분노	.708	.685	31.015***	.230	6.918***
공감	.774	.752	35.894***	.271	7.600***
우울	.830	.811	43.210***	.297	8.486***
성대응	.878	.862	55.010***	.252	7.613***
성충동대처	.938	.928	100.432***	.260	7.572***

*** $p < .001$

5.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재발방지, 성충동 통제, ‘동의’의 개념 이해, 평등한 존재로서의 여성, 성폭력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피해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평가하였다. 시행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장소, 매 회 상담시간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진행자와 관련된 질문들에서는 친절하고, 진행자가 참가자의 입장을 이해하

고 존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행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주려하고, 진행자가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고 충분히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진행자가 내담자의 가치관이나 내담자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90명 가운데 32명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는 강간통념과 같은 영역에서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들의 총 교육시간은 15~90시간이었으며, 평균 34시간가량을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볼 때 45~99점까지 분포하고 평균 83점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7〉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명(%)	그렇다 명(%)	그렇지 않다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명(%)	전체 명(%)
성폭력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53 (58.9)	31 (34.4)	5 (5.6)	1 (1.1)	90 (100)
성충동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48 (53.3)	34 (37.8)	7 (7.8)	1 (1.1)	90 (100)
'동의' 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55 (61.1)	30 (33.3)	4 (4.4)	1 (1.1)	90 (100)
여성이 평등한 존재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59 (65.6)	25 (27.8)	5 (5.6)	1 (1.1)	90 (100)
성폭력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4 (71.1)	21 (23.3)	3 (3.3)	2 (2.2)	90 (100)
피해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62 (68.9)	24 (26.7)	3 (3.3)	1 (1.1)	90 (100)
성폭력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겠다	58 (64.4)	29 (32.2)	3 (3.3)	0 (0)	90 (100)
프로그램 진행장소는 쾌적하였다	44 (48.9)	28 (31.1)	15 (16.7)	3 (3.3)	90 (100)
진행자는 친절하게 해주었다	66 (73.3)	23 (25.6)	1 (1.1)	0 (0)	90 (100)
매회 상담시간은 적절했다	53 (58.9)	30 (33.3)	6 (6.7)	1 (1.1)	90 (100)
진행자는 내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59 (65.6)	29 (32.2)	2 (2.2)	0 (0)	90 (100)
진행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15	17	27	31	90

입장위주로 교육하려 하였다	(16.7)	(18.9)	(30.0)	(34.4)	(100)
진행자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52 (57.8)	33 (36.7)	5 (5.6)	0 (0)	90 (100)
진행자는 프로그램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였다	59 (65.6)	28 (31.1)	3 (3.3)	0 (0)	90 (100)
진행자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고 있다	61 (67.8)	26 (28.9)	2 (2.2)	1 (1.1)	90 (100)
	N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간	86	33.74	22.06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91	82.71	16.29		

제 3 절 제언

본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91명의 대상자를 교정·치료하였다. 그 결과 치료효과를 위해 사용한 우울, 분노, 자존감,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대응, 충동성, 사회적 바람직성, 성충동대처, 양성평등의 10가지 척도변인 가운데 척도에 성실히 답변하는 지를 가리기 위해 포함된 사회적 바람직성을 제외한 9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성폭력 가해자들은 전에 비해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를 하는 것도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충동성이 낮아졌으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의식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가지 가운데 6가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특히 참가자들이 보여준 치료 효과의 요인 중 공감 능력 향상과, 충동성 조절 능력 향상, 역기능적인 사고가 향상된 것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변화 요인이기에 아주 의미가 있다.

더불어 각 척도들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책임 귀인, 피해자가 경솔했다,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 대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프로그램 참가 전에는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통념

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인지변화가 있었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사고로 인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서도 변화를 보여 자신의 책임을 귀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의 3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인지공감능력과 정서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Marshall 등(1994)은 공감적인 4가지 요소 모델에서 나타났듯이 공감능력 가운데 정서공감과 체험적인 공감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듯이 정서공감능력이 향상되는 변화되기 어려운 요인에서의 공감능력향상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 나아가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상황이나 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재발방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인 대처를 하는 척도에서는 환상, 자위, 포르노 이용, 실제 성행위를 하는 범주들이 있으며 환상, 자위, 포르노 이용을 통한 대처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지치료자들이 일탈적인 성적환상이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본 프로그램 결과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시 성적인 면에만 몰두하는 것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동성의 하위차원인 무계획 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가운데 무계획 충동성이 감소하여 계획 없이 우발적인 행동을 통한 충동표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충동이 있을 시에는 성욕통제, 성적공상, 성적행동을 하는 것 가운데 성적공상을 통해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변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스트레스 상황이나 성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행동화하는 것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감능력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 개선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자신의 노리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치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가운데 학력, 성범죄 전력(초범/재범), 첫 입건연령, 피해자의 연령, 교육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를 검증하였다.

학력수준에서는 학력을 중졸이하와 고등중퇴이상의 학력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의 강간통념이 더 높아 성적인 부분에서 고졸 중퇴이상의 학력자들에 비해 부적응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은 강간통념척도의 하위요인에서도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경솔에서 강간통념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해 학력이 더 높은 대상자들에 비해 인지왜곡이 더 심하였다. 학력이 낮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학업의 기회가 적어서 좀 더 가부장적인 성적인 통념의 영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성인지를 고려한 강간 통념이나 양성 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대응 척도에서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이 부적응적인 성적 대응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하위요인에서도 학력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이 환상, 실제 성행위를 통한 성적 대응을 더 많이 하여 고학력자들에 비해 실제적으로 성행위를 통해 대응하여 보호관찰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학력 수준이 낮을 경우 더 성폭력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충동적인 면에서도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이 충동성이 더 높았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무계획 충동성과 인지충동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은 경우 충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성충동대처 척도에서도 학력이 낮은 경우 성충동이 있을 경우 부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성욕통제에서 중졸이하의 학력자들이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여 성폭력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력 가운데 초범과 재범에 따른 결과는 재범자들이 초범자들보다 자위, 포르노, 실제 성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범자들에 비해 재범자들이 성충동을 더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적공상, 성적행동을 통해 성적 충동을 해결하여 초범자들에 비해 성적인 방법으로 성충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외에도, 강간통념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서 재범자들이 더 유의하게 높아 하위요인이기는 하지만 초범자들에 비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지가 왜곡되어 있다.

피해자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차이는 13세를 기준으로 볼 때 성충동대처 척도에서 13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성충동에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더욱이 성충동대처척도의 하위유형 가운데 성적행동을 13세 이상의 대상에게 성폭력을 가한 대상자들이 성충동이 있을 시 성적인 행동화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른 결과는 교육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대상자와 40

시간 이상인 대상자 간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자존감, 강간통념, 공감, 성대응, 성충동대처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하위요인들을 보면 강간통념에서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공감에서는 인지공감, 정서공감이 성대응에서는 환상, 자위, 포르노이용, 실제 성행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충동성에서도 무계획 충동성, 인지충동성의 하위요인에서 수준차이를 보였고, 성충동대처에서는 성욕통제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40시간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프로그램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에도 프로그램 시간은 최소한 40시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000시간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충동성으로 프로그램 효과의 1/3가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까지의 영향력이 60%가 넘어 이 4가지 변인이 효과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 부분에서 기술한 다양한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 모델에서 알코올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외적인 환경적 제재요인들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충동성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프로그램 효과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어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회기 가운데 충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며 꼭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을 다루는 회기는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기관에서 15시간의 짧은 시간동안만 프로그램에 성폭력 가해자들을 참여시키는 상황에서 최소한 15시간의 프로그램에도 앞서의 4가지 변인은 필수적인 요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의 요인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려한다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는 양성이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의 성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 점이 고무적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충동성,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을 비롯하여 분노, 공감, 우울변인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프로그램에 회귀 내용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 5장 성폭력 가해자 예비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결과

본 예비프로그램은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에게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성폭력 개념이해와 성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상처공감을 통한 책임인정, 공감능력을 통한 관계형성 기술 습득, 자존감회복, 위험대처 기술의 습득이다.

프로그램의 과정은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행동의 선행원인을 인정하고, 잘못된 인지를 수정하고, 피해자 상처공감능력과 성폭력 위험상황 대처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의 치료적 구성요소는 성범죄 고유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가해자의 성인식과 강간통념, 인지왜곡, 상처공감 결핍, 낮은 자존감 등이다.

향후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확정하기 위해,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 법원으로부터 집행 유예를 받아 보호관찰소에 위탁되어 온 성폭력 가해남성 7명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본 예비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영역 즉 자존감향상, 충동조절, 대처전략을 더욱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우울 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Beck(1978)이 고안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역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2) 분노 척도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1997)가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척도(STAXI-K : Koream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중 현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되며 상태분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다(전겸구 등, 1997).

3) 성충동 대처 척도

박영숙, 전영민(2001)년 제작한 중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중 고등학생용 성 대처행동 검사 문항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성욕통제, 성적공상, 성적행동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숙, 전영민(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 요인별로 .66, .69, .78이었다.

4) 자존감 척도

자존감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3,5,8,9,10번은 역환산하여 처리한다. 각 문항은 0~3점으로 평가되며 총점의 범위는 0~30점이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다.

5) 강간통념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강간에 대한 통념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범위는 20~180점이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6) 공감 척도(K-EQ)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하고 Lawrence 등(2004)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 척도를 허재홍, 이찬중(2007)이 번안, 수정하여 만든 K-EQ(Korean Empathy Quotient)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기술'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된다. 허재홍, 이찬중(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7) 성대응 척도

성범죄자의 성과 관계된 대응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Cortini와 Marshall(2001)의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CUSI : Coping Using Sex Inventory)를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유·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성적 행위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 성적 환상, 자위행위, 포르노그래프 이용, 강제적 성행위 등의 네 가지 범주의 행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CUSI의 총 16문항 중 4번 문항 '고정적인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를 제외하고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라는 문항을 첨부하여 전체 16문항으로 보완,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평가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성행위를 자주 사용할수록 점수가 높다.

8) 충동성 척도

충동성척도는 Barratt BIS-II(Barratt Impulsiveness Scale-II)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이다. 23개 문항으로 인지충동성(6문항), 운동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문항 1,3,4,5,6,8,9,11,16,19,23번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9)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Stober(2001)의 SDS-17를 김용석 등(2008)이 번안

하여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 개발한 것이다.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된다.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10) 양성평등척도

이번 연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11문항으로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가한다. 총점은 1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3. 통계적 분석 방안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특성 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Wilcoxon 검정을 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전체 대상자는 7명으로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29세에서 69세까지로 평균 44세로 나타났다.

1) 일반적 사항

결혼상태는 7명 가운데 4명이 이혼(별거포함)상태였고, 학력은 4명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었고 3명은 고졸이하의 학력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은 1명 뿐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 2명, 생산/기능직이 2명 등이 분포였다. 음주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내담자가 3명이었으며, 월1회 2명, 주1~2회 음주를 하는 경우가 2명이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모두 소주를 마셨으며, 주량은 2병이었다.

2) 성범죄 전력

성범죄 시 대상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7명 가운데 6명으로 나타

났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한 경우가 7명 가운데 5명이었다. 이외에도, 수용기간은 없고 초범인 경우가 많았으며, 현 기관에서 징벌경험도 없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전혀 모르는 관계였던 경우가 6명으로 단지 1명만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범죄 대상자의 연령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심신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2명이었으며, 5명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3명은 10살 이상 현저한 나이차가 있는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8〉 예비 프로그램 인구통계학적 정보

		명	%
성별 (N=7)	여성	0	0
	남성	7	100
결혼상태 (N=7)	미혼	1	14.3
	기혼 (동거포함)	1	28.6
	이혼 (별거포함)	4	57.1
	기타	0	0
학력 (N=7)	무학	0	0
	초등중퇴 / 졸업	0	0
	중학중퇴 / 졸업	1	14.3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8.6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3	42.9
	대학졸업	1	14.3
직업 (N=7)	대학원 이상	0	0
	학생	0	0
	판매 / 서비스직	2	28.6
	사무직	1	14.3
	임시직 / 아르바이트	0	0
	노동 / 노무직	0	0
	생산 / 기능직	2	28.6
	농수산	0	0
	기타	2	28.6
소속 (N=7)	보호관찰소	7	100
	교도소	0	0
	구치소	0	0
최초 경찰입건연령 (N=7)	13세 미만	0	0
	13 ~ 18세	0	0
	19 ~ 24세	0	0

	25세 이상	5	71.4
	해당없음	2	28.6
성범죄 유형 (N=7)	피해자와 직접접촉이 있음	4	57.1
	접촉이 없었음	3	42.9
성범죄 전력 (N=7)	5회 이상	0	0
	4회	0	0
	3회	1	14.3
	1회	2	28.6
	이번이 처음	4	57.1
과거 폭력범죄전력 (N=7)	3회 이상	0	0
	1 ~ 2회	3	42.9
	해당없음	4	57.1
이번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N=7)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1	14.3
	친족	0	0
	전혀 모르는 사람	6	85.7
이번 사건 피해자 유형 (N=7)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2	28.6
	13 ~ 18세	0	0
	18세 이상	5	71.4
피해자 성별 (N=7)	여성	7	100
	남성	0	0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N=7)	1인	6	85.7
	2인 이상	1	14.3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N=7)	10살 이상 현저한 차이	3	42.9
	10살 차이까지는 아님	4	57.1
이번 가해 시 폭력사용(N=7)	현저한 폭력 사용	1	14.3
	폭력 사용하지 않음	6	85.7
이번 가해관련 책임수용(N=7)	책임을 부인함(항소 등)	2	28.6
	책임을 수용함	5	71.4
총 시설수용기간 (N=7)	5년 이상	0	0
	2 ~ 5년	0	0
	2년 미만	0	0
	없음	7	100
현 보호관찰기간 또는 재소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징벌경험) (N=7)	있다	0	0
	없다	7	100
평소 음주정도 (N=7)	안 함	3	42.9
	월 1회	2	28.6
	주 1 ~ 2회	2	28.6
	월 2 ~ 3회	0	0
	주 3 ~ 5회	0	0
주종 (N=7)	없음	3	42.9
	소주	4	57.1
	맥주	0	0
	평균	표준편차	
연령(N=7, 단위:세)	44.71	14.00	
주량(N=7, 단위:병)	0.71	0.75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우울, 분노, 자존감, 강간통념, 공감능력, 성대응, 충동성, 사회적 바람직성, 성충동대처, 양성평등의 10가지 변인 가운데 척도에 성실히 답변하는 지를 가리기 위해 포함된 사회적 바람직성을 제외한 9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Z=2.197$,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공감능력이 향상($Z=1.89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대처가 감소되고($Z=1.897$,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충동성이 저하되었으며($Z=1.78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양성평등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Z=2.201$,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강간에 이르게 하는 역기능적인 사고 가운데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Z=1.863$,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Z=2.205$,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성폭행 피해책임 귀인($Z=2.201$,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피해자가 경솔했다($Z=1.782$, 동률값 수=6, $p < .05$, 일방향),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Z=2.375$, 동률값 수=7, $p < .01$, 일방향)에서 긍정적인 인지변화가 일어났다. 공감능력에서는 정서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Z=1.826$, 동률값 수=4, $p < .05$, 일방향). 이외에도, 스트레스상황에서 성적대처를 하는 것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통한 대처행동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Z=1.841$, 동률값 수=4, $p < .05$, 일방향), 충동성에서도 무계획 충동성 감소하였다($Z=2.043$, 동률값 수=7, $p < .05$, 일방향).

〈표 19〉 예비 프로그램 효과

척도	Z	p
우울	-.524a	0.6
분노	-1.289b	0.197
자존감	-.938b	0.348
강간통념	-2.197a	0.028
공감	-1.892b	0.058
성대응	-1.897a	0.058
충동성	-1.782a	0.075
사회바람직성	-.762b	0.446
성충동대처	.000c	1
양성평등	-2.201a	0.028

3.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재발방지, 성충동 통제, ‘동의’의 개념 이해, 평등한 존재로서의 여성, 성폭력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피해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평가하였다.

진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프로그램 진행 장소, 진행자의 친절도, 매 회 상담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진행자가 참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행자의 가치관이나 입장위주로 교육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담자의 문제에 진행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주려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진행자가 프로그램 준비를 충분히 하고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담자들이 반응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50~99점까지 분포하고 평균 81점 정도로 호의적인 만족수준을 보였다.

〈표 20〉 예비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그렇다 명(%)	그렇다 명(%)	그렇지 않다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명(%)	전체 명(%)
성폭력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4(57.1)	2(28.6)	0(0)	1(14.3)	7 (100)
성충동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4(57.1)	2(28.6)	1(14.3)	0(0)	7 (100)
'동의' 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4(57.1)	2(28.6)	1(14.3)	0(0)	7 (100)
여성이 평등한 존재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4(57.1)	3(42.9)	0(0)	0(0)	7 (100)
성폭력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57.1)	3(42.9)	0(0)	0(0)	7 (100)
피해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4(57.1)	3(42.9)	0(0)	0(0)	7 (100)
성폭력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겠다	4(57.1)	2(28.6)	1(14.3)	0(0)	7 (100)
프로그램 진행장소는 쾌적하였다	3(42.9)	2(28.6)	2(28.6)	0(0)	7 (100)
진행자는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3(42.9)	4(57.1)	0(0)	0(0)	7 (100)
매회 상담시간은 적절했다	2(28.6)	5(71.4)	0(0)	0(0)	7 (100)
진행자는 내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었다	3(42.9)	4(57.1)	0(0)	0(0)	7 (100)
진행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입장위주로 교육하려 하였다	1(14.3)	2(28.6)	4(57.1)	0(0)	7 (100)
진행자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4(57.1)	3(42.9)	0(0)	0(0)	7 (100)
진행자는 프로그램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였다	4(57.1)	3(42.9)	0(0)	0(0)	7 (100)
진행자는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고 있다	4(57.1)	3(42.9)	0(0)	0(0)	7 (100)
	N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간	7	39.43	1.512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7	81.57	15.61		

제 3 절 제언

본 연구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프로그램 실시 결과 강간 통념이 역기능적인 통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대한 오인식, 여성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오해하여 해석하는 것, 성폭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 피해자가 경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인지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그 가운데 정서적인 면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과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 성행위를 통해 대처해 왔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태도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나타난 우울감, 자존감, 성충동 대처에서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상자가 74%였던 것에 비해 예비 프로그램에서는 보호관찰소에 있는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로도 추측된다. 이외에도, 단지 7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해 정확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며, 정확한 기존 연구와의 효과성 비교를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6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실태조사

제 1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12곳, 31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여 설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로 인구통계학적인 질문을 비롯하여 가해자 상담 시 어려웠던 점, 가해자 상담경험 등을 묻는 1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부록 1참조).

3. 통계적 분석 방안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빈도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12개 기관,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31명 모두 여성에 연령은 4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8명, 30대 4명 등의 순이었다.

1) 일반적 사항

학력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대졸 13명, 석사 15명, 박사 2명으로 나타

났으며 전공은 심리학 6명, 사회복지학 16명, 여성학 2명, 교육학 3명, 법학3명, 기타 6명이었다.

〈표 21〉 연구대상의 특성

	내 용	명
성 별 (N=31)	여성	31
	남성	0
연 령 (N=30)	20대	1
	30대	4
	40대	15
	50대	8
	60대	2
학 력 (N=30)	전문대졸	0
	대졸	13
	대학원졸(석사)	15
	대학원졸(박사)	2
전 공	심리학	6
	사회복지학	16
	여성학	0
	교육학	3
	신학	0
	법학	3
	기타	6

2. 상담경력 및 관련 사항

상담경력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경우 개인상담이 0~20년의 경력에 평균 5.23년, 집단상담은 0~15년에 평균 4.48년으로 답하였다. 성폭력 가해자 상담의 경우 개인상담은 0~15년의 경력 분포에 평균 4.68년, 집단상담은 0~20년에 평균 6.1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 개인상담 경험은 10~20명의 개인상담 경험이 9명, 50명 이상이 8명, 5~10명이 6명으로 반응하였고 성폭력 가해자 집단은 1~50집단에 평균 14.14집단에 3~99명으로 평균 60.59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집단에서 상담하였다. 가해자 상담의 훈련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관에서의 면접상담 및 슈퍼비전 시간이 평균 7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는 기관에서의 성폭력 상담원 교육 평균 51.06, 상담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훈련 평균 45.97시간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상담의 관점으로는 여성주의와 인지행

동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지행동, 문제해결중심, 여성주의의 관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2〉 상담경력 및 관련 사항

		내 용	명
개인상담한 성폭력 가해자 수(집단상담 참여자 미포함) (N=30)		5명 미만	3
		5명 미만~10명 미만	6
		10명 이상~20명 미만	9
		20명 이상~30명 미만	1
		30명 이상~40명 미만	3
		40명 이상~50명 미만	0
		50명 이상	8
성폭력 가해자 상담관점 (N=30)		없음	0
		여성주의 관점	1
		인지행동 관점	5
		여성주의+인지행동 관점	21
		정신분석 관점	0
		문제해결중심 관점	2
		기타	1
상담경력 (N=31) (단위: 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	개인상담	평균(표준표차)
		집단상담	
	성폭력 가해자 상담	개인상담	6.74(4.60)
		집단상담	4.48(3.94)
기타 상담		5.23(4.18)	4.68(3.628)
상담한 성폭력 가해자 집단(N=28)		6.13(5.81)	14.14(14.28)
		집단명	60.59(40.594)
가해자 상담훈련배경 (N=31) (단위: 시간)	대학원의 상담실습 및 슈퍼비전		21.71(55.08)
	상담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훈련		45.97(89.465)
	기관에서의 면접상담 및 슈퍼비전		72.94(138.25)
	기관에서의 성폭력 상담원교육 (64시간 교육)		51.06(55.10)
	상담기관에서의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워크숍		19.06(20.2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보수교육	21.16(30.57)
		훈련받지 않았다	0(0)

3.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내용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 형태는 31명 가운데 29명이 집단+개인상담을 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1명, 집단상담 1명으로 응답했고 응답자 31명 가운데 24명이 주진행자로 7명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유

형은 24명이 심리치료, 2명이 예술치료, 28명이 성교육, 소시오·사이코드라마 4명, 명상치료 3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를 의뢰받은 곳은 보호관찰소라는 답변을 26명이 하였고, 다음으로는 교도소였으며, 법원 및 경찰과 가해자 자신이 상담 의뢰하였다.

〈표 23〉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내용

	내 용	명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형태 (N=31)	집단상담	1
	개인상담	1
	집단+개인상담	29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방식(N=31)	주진행자	24
	보조진행자	7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문항)	심리치료	24
	예술치료	2
	성교육	28
	소시오드라마, 사이코드라마	4
	명상치료	3
	기타	10
성폭력 가해자 의뢰처	보호관찰소	26
	교도소	16
	법원 및 검찰	10
	대학 내 대책위	5
	가해자 개인	10
	일반회사	1
	노동단체	0
	기타	11

4. 가해자 상담 시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

가해자 상담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다루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라포 형성,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의 순서였다. 중기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책임 인정케하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다루기,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결 단계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다음으로 자존감 회복시키기와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스트레스 대처기술 증진시키기와 의사소통 기술 향상시키기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표 24〉 가해자 상담 시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

	내 용	명
성폭력 가해자 상담 초기단계에서 어려운 점	라포 형성	4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12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태도 다루기	13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8
	성폭력 개념 이해시키기	0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2
	기타	0
	성폭력 가해자 상담 중기단계에서 어려운 점	라포 형성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3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행위 다루기	5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14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2	
책임 인정케 하기	8	
기타	2	
성폭력 가해자 상담 종결단계에서 어려운 점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2
	책임 인정케 하기	2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6
	스트레스 대처기술 증진시키기	5
	의사소통기술 향상시키기	5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8
	자존감 회복시키기	6
	기타	1

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기타사항

기관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은 31명 가운데 26명이 여성가족복지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그 다음 7명이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프로그램 진행시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능력, 가해자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케 하는 능력, 가해자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 등의 순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

문에서는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자존감 향상,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책임인정과 분노조절,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피해자 상처 공감의 순서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진행자로서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해자들의 뿌리 깊은 통념을 다루는 능력부족,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기타, 가해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의 순서로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가해자가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진행자가 취한 조치로는 가해자의 방해이유를 탐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에 답을 한 응답자가 많고,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순서로 반응하였다.

〈표 2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기타 사항

	내 용	명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26
	자체 프로그램	7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가해자와의 관계형성능력	5
	가해자에 대한 지식	0
	가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12
	문제행동 지적할 수 있는 능력	11
	가해자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	5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케 하는 능력	4
	가해자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	0
	기타	3
	책임 인정	20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	3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분노 조절	1
	피해자 상처 공감	5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2
	의사소통기술 향상	6
	자존감 향상	0
	가해자들이 두려워서 그냥 모른	8
	척하거나 무시했다	0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 가해자가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진행자가 취한 조치	문제행동을 지적했다	0
	퇴장시켰다	0
	진행자인 내가 진행을 거부했다	0
	집단이 유지되지 못할까봐 비위를	0
	맞췄다	17
	가해자의 방해이유를 탐색했다	9
	기타	

제 3 절 제언

본 성폭력 가해자 특성연구에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한 성행동의 예측변수들과 가해자의 제반 인구학적 특성을 밝힌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넘어서서 면대면 면담 등을 통한 개별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과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더불어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획득에 있어 여러 부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획득의 표준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성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수사단계 및 사법, 교정절차, 치유 및 재활, 사회복귀, 재발방지의 전 단계에서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성폭력 사범의 특성을 추적 기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조사양식이 있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특성연구의 기초자료가 축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4 부

결론 및 정책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성폭력 가해자 특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정책을 건의한다.

첫째,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원스톱 서비스 형식으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대응 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 전문 인력이 사태의 초기부터 개입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교정·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에 대한 개입 및 대응방안도 매우 다양함을 인식하여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예방, 치료개입, 재활, 사회 복귀, 재발방지의 전 영역을 어느 한 부처가 모두 관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소관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조정과 협력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수준에 맞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도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학력 수준에 따라 중졸미만의 학력자들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절한 성대응을 하고 성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며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범자와 재범자들의 인지왜곡수준이 달라 외국에서의 프로그램처럼 성폭력 가해자의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교정치유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다 전문화된 치료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넷째,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40시간을 기준으로만 한 것으로 외국의 가해자 프로그램이 1,000시간까지 교육되는 것을 볼 때 추후 프로그램 시행시간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들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반사회성이나 충동성, 낮은 자존감 등의 요인은 단기간 내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특성들도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성폭력의 재범률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양성적 성평등 의식구조의 개선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매우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에서 충동성조절이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나

타나 추후 어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던지 회기 내용 가운데 충동성조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존감, 강간통념, 양성평등을 합한 경우 프로그램 효과에 60%가 넘는 영향을 주고 있어 일부 기관에서 15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최소한 앞서의 4가지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한다. 단, 이러한 단기간 개입의 경우 그 효과성이 제한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향후 시행여건을 개선하여 40시간 이상 시행시간을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요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4번째로 중요한 프로그램 효과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따른 요인을 감안하여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프로그램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여성가족부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2008).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사회복지연구, 38, 5-32.
- 대검찰청 (2005). 범죄분석.
- 박영숙, 전영민 (2001). 청소년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75-793.
- 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2005).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이영준, 오태성 (2004).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공감.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송원영 (2006).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폭력피해자 치유·가해자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2005.
- 심중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열 (2005).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 :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경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전영실 외(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3.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8.
- Abel, G. G., Becker, J. V., Cunningham-Rathner, J., Rouleau, J., & Murphy, W.(1987). Self-reported sex crimes of nonincarcerated paraphiliacs. Journal of Interpersonal

- Violence, 2(1),3-25.
- Abel, G. G., Gore, D. K., Holland, C. L., Camp, N., Becker, J. V., & Rathner, J. (1989). The measurement of cognitive distortions of child molesters. *Annals of Sex Research*, 2, 135-53.
- Abel, G. G., Millelman, M. S., Becker, J. V., Rathner, J., & Rouleau, J. L. (1988). Predicting Child Molesters Response to Treatment in R. A. Prentky and V. L. Quinsey (eds) *Human Sexual Aggression: Current Perceptives*: New York: Annals of Sex Research, 2, 135-53.
- Abel, G. G., Rouleau, J. L. (1990). The nature and extent of sexual assault, in W. L. Marshall, D. R. Laws and H.E. Barbaree (Eds). *Hand Book of Sexual Assault:The issues,Theories,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Plenum Publishing, pp.9-12 .
- Bourke, M. L. and Donohue, B. (1996). Assessment and Treatment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Child Sexual and Human Sexuality*,13(3/4):25-42.
- Alexander, M. A. (1999).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icacy revisited.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2), 101-16
- Aos, S., Phipps, P., Brnoski, R., Lieb, R. (2001). *The Compatative Cost and Benefits of Programs to Reduce Crime*. ver. 4.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Baker, L., Hudson, S., Wales, D., & Riley, D. (1998). *And There Was Light: Evaluating the Kia Marama Treatment Program for New Zieland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New Zieland Department of Corrections.
- Barbaree, H. E. (1991). Denial and minimization among sex offenders: assessment and treatment outcomes. *Forum of Correction Research*, (On-line), 3(4), http://www.csc-sc.gc.ca/text/pblct/forum/e034/034h_e.pdf
- Barbaree, H. E., Lanton, C. M., & Peacock, E. J. (2001, October). Psychopathy, treatment behavior and sexual offender recidivism: an extended follow-up. Par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San Antonio, Texas.
- Barlow, D. H. (1974). The treatment of sexual deviation: Toward a comprehensive behavioral approach. In K. S. Calhoun, H. E. Adams & K. M. Mitchell(eds.), *Innovative treatment methods in psychopathology*(pp. 121-147). New York: John Wiley & Sons.
- Barratt, E. S. (1983). The biological basis of impulsiveness: The significance of timing and rhythm disor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386-391.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eis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Beech, A. R., Erikson, M., Friendship C., & Ditchfield, J. (2001). A Six-year Follow up of men going through Probation-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Research Findings NO. 144. London: HMSO.
- Bekett, R. C., Beech, A. R., Fordham, A S. (1994).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Seven Treatment Programs*. London: HMSO.
- Bickley, J., & Beech, A. R. (2002). An Investigation of the Ward and Hudson Pathway Model of the sexual offense process with child abus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4), 371-93.
- Blair, C. D. , & Lanyon, R. I. (1981). Exhibitionism: Etiology and treatment. *Psychological Bulletin*, 89, 439-463.
- Bourke, M. L., & Donohue, B. (1996). Assessment and Treatment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Child Sexual and Human Sexuality*, 13(3/4): 25-42.
- Brown, S.(2005). *Treating Sex Offender*. Willan Publishing..
- Browne, K. D., Foreman, L., & Meddleton, D. (1998). Predicting treatment dropout in sex offenders. *Child Abuse Review*, 7, 402-19.
- Cleckley, H. (1941).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 Mosby.
- Cortoni, F. T. & Hanson, P. K. ((2005): *A Review of the Recidivism Rates of Adult Female Sexual Offender*, Research Report No. R-169. Ottawa. ON: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Cortoni, F., Heil, P., & Marshall, W. L. (1996).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Chicago.
- Cortoni, F., & Marshall, W. L. (2001). Sex as a coping strategy and its relationship to juvenile sexual history and intimac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 27-43.
- Davis, M.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oob, A. N., & Brodeur, J. P. (1989). Rehabilitating the debate on rehabilitatio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1(2), 179-92.
- Fagan, J., & Wexler, S. (1988). Explanations of sexual assault among violent delinqu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363-389.

-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 17-31.
- Feldman, M. P. (1977). *Criminal Behavior: Psychological Analysi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Finkelhor, D. (1979).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 Finkelhor, D. (1984). *Child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Fiqua, N. A., Lang, R. A., Plutchik, R., & Holden, R. (1987).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sex and violent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 Comparative Criminology*, 31, 211-226.
- Freeman-Longo, R., E., & Knopp, F. H. (1992). State of the art sex offender treatment: outcome and issues. *Annals of Sex Research*, 5(3), 141-60.
- Friendship, C., & Thornton, D. (2001). Sexual reconviction for sexual offenders discharged from prison in England and Wales implications for evaluating treatment.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 285-92.
- Gee, D., Ward, T. & Eccleston, L. (2003). The function of sexual fantasies for sexual disorders: A preliminary model. *Behavior Change*, 20(1), 44-60.
- Grossman, L. S., Martis, B., & Fichtner, C. (1999). Are sex offenders treatable? A research overview. *Psychiatric Services*, 50(3), 349-61.
- Groth, A., & Nicholas : *Men who Rape*. New York: Plenum Press.
- Grubin, D. & Gunn, J. (1990). *The Imprisoned Rapist and Rape*.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 Haaven, J. L. & Coleman, E. M. (2000). Treatment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ex offender. In D. R. Laws. S. M. Hudson & Wa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A Sourcebook*(pp.369-388). Thousand Oaks, CA: Sage
- Hanson, R. K. (1998). Working with sex Offenders. Keynote address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eatment of Abusers, Glasgow, Scotland.
- Hanson, R. K., Broom, L., & Stephenson, M. (1991). Assessing treatment outcome for sexual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4(3-4), 177-208.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6). Sex offender risk predictors: a summary of research results. *Forum of Correction Research*, 50(3), 349-61.
- Hare, R. D. (1991). *Manuel for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2003).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2nd Editioin Technical

- Manue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Inc.
- Hart, S. D., & Hare, R. D. (1997). Psychopathy: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criminal conduct. In D. Stoff, Breiling & J.D. Maser(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22-35). New York: Wiley.
- Harris, G. T., Rice, M. E., & Quinsey, V. L. (1998). Appraisal and management fo risk in sexual aggressor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4(1-2), 73-115.
- Hatfield, E., & Rapson, R. L. (1996). *Love & Sex: Cross-cultural perspectives*. Boston: Allyn and Bacon.
- Hazan, C. and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wells, K. (1979). Some meanings of children for pedophiles. In M Cook & G. Wilson (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p. 519-526. Oxford: Pergamon Press.
- Hudson, S. M., Marshall, W. L., Wales, D. S., McDonald, E., Bakker, L. W., & McLean, A. (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 199-211.
- Hudson, S. M., Marshall, W.L., Ward, T., Johnson, P.W., Jones, R.L. (1995). Kia Marama: a cognitive-behavioral program for incarcerated child molesters. *Behavior Change*, 12(2), 69-80.
- Hudson, S. M., & Wad, T. (1997). Intimacy, loneliness, and attachment style in sex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325-339.
- Kalichman, S. C. (1991). Psychopatholog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riminal sexual offenders as a function of victim ag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 187-197.
- Kelly, R. J. (1982). Behavioral re-orientation of pedophiliacs: can it be don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387-408
- Langton, C. M.(2003). *Contrasting approaches to risk assessment with adult male sexual offenders: an evaluation of recidivism prediction shemas and utility of supplementary clinical information for enhancing predictive accur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Laws, D. R. & Marshall, W. L. (2003). A. Brief History of behavioral and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es to sexual offenders: Part 1. Early developments. *Sexual Abuser: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2), 75-92.
- Lipsey, M. W. (1995). What Do We Learn From 400 Research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with Juvenile Delinquents? in J. McGuire (ed.) *What Works: Reducing Reoffending* (pp. 63-78) The Wiley Series in Offender Rehabilitation.

- Chichester: John Wiley Sons.
- Looman, J. (1999). Mood, conflict, and deviant sexual fantasies. In B. K. Schwartz(Eds.), *The sex offender: Theoretical advances, treating special populations and legal developments*, Vol, III, pp. 3.1-3.11.
- Losel, F. (1995). The Efficacy of Correctional Treatment: A Review and Synthesis of Meta-evaluations in J. McGuire (ed.) *What Works: Reducing Reoffending. Guidelin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79-111). The Wiley Series in Offender Rehabilita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Lowden, K., Hetz, N., Harrison, L., Patrick, D., English, K. & Pasini-Hill, D. (2003). *Evaluation of Colorado's Prison Therapeutic Community for sex Offenders*. Denver: Department of Justice.
- MacMillan, H. L. (1997). Prevalence of chil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the communit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2):131-135.
- Malamuth, N. (1981). Rape Attitudes and Sexual Arousal as Predictors of Non-Deviants' Aggression Against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Malamuth, N. M., & Brown, L. M. (1994). Sexually aggressive men's perception of women's communications: testing three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99-712.
- Malamuth, N. M., Heavy, C.L., & Linz, D. (1993). Predicting men's antisocial behavior against women: the interaction model of sexual aggression. In G.C.N. Hall, R. Hirschmann, J.R. Graham & M.S. Zaragoza (eds) *Sexual Aggression: Issues in the Etiology, Assessment and Treatment*(pp.63-97).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Mann, R. E., & Thornton, D. (1998). The Evolution of a Multisite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 in W.L. Marshall, Y.M. Fernandez, S.M. Hudson and T. Ward(eds). *Source Book of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Offenders*. New York: Plenum Press.
- Marques, J. K., Day, D.M., & Nelson, C. (1992).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California's experimental treatment program. Unpublished manuscript. Sex Offender Treatment and Evaluation Project, Atascadero State Hospital, California.
- Marques J. K., Nelson, C., Alrcon, J. M., & Day, D. M. (2000). Preventing Relapse in SEX Offenders: What we Learned From SOTEP's Experimental Treatment Program in D. R. Laws, S. M. Hudson and T. Wa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A Sourcebook*(pp. 321-40). London: Sage.
- Marques, J. K., Day, D. M., Nelson, C., & West, M. A. (1994).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n sex offender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 Behavior, 21(1), 28-54.
- Marshall, W. L. (1989a). Intimacy, loneliness, and sexual offender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7, 491-503.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90). An integrated Theory of the Ethology of Sexual Offending, in W.L. Marshall, D.R. Laws and H.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y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pp.257-75). New York: Plenum Press.
- Marshall, W. L., & Barbaree H. E., & Fernandez, Y. M. (1995). Some aspects of social competence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113-127.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88). The long term evaluation of a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for child molest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6(6), 499-511.
- Marshall, W. L. & Eccles, A. (1991). Issues in clinical practice with sex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68-95.
- Marshall, W. L., & Eccles, A. (1996).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in V. B. Van Hasselt and M. Hersen (eds) *Sourcebook of Psychological Treatment Manuals for Adult Disorders*. London: B. T. Batsford.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2), 99-113.
- Marshall, W. L., Laws D. R. (2003). A Brief History of Behavioral and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to Sexual Offender Treatment: Part 2. The Modern Era.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2), 93-120.
- Marshall, W. L., Marshall, L. E. (2000). The origins of sexual offending. *Trauma, Violence, & Abuse, A Review Journal*, 1, 250-263.
- Marshall, W. L., Marshall, L. E., Serran, G. A., & O'Brien, M. D. (2009). Self-esteem, shame,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in sexual offenders: their integra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Psychology, Crime & Law*, 15, 217-234.
- Marshall, W. L., & Pithers, W. D. (1994). A reconsideration of treatment outcome with sex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10-27.
- Marshall, W. L. Serran, G., Moulden, H., Mulloy, R., Fernandez, Y. M., & Mann, R. E., (2002). Therapist Features in sexual offender treatment: their reliable identification and influence on behavior chang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 395-405.
- Marshall, W. L., Yolanda, M. F., Marshall, L. E., & Serran, G. A.(2005). *Sexual Offender Treatment: Controversial Issues*. John Wiley & Sons, Ltd.

- Martinson, R. (1974).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The Public Interest*, 35, 22-54.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to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ore, B. S. (199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14, 75-79.
- McFall, R. M. (1990). The enhancement of social skills: An information processing analysis.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 311-330). New York: Plenum Press.
- McGuire, J. (2000).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HM Inspectorate fo Probation Report. London: HMSO.
- McGarth, R.J. (1991).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and disposition planning: a review of empirical and clinical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5(4), 328-50.
- McGrath,R. J. (1995). Sex offender treatment: does it work?, *Perspective*, 19, 24-6.
- McPherson, M., Chein, D., Van Maren, N. & Swanson, D. (1994).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Program Evaluation Divison Office of the Legislative Audotor State of Minnesota Saint Paul, MN: Centennial Office Building.
- Nisbet, L., Wilson, P. and Smallbone, S. W. (2004).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sexual recisivism among adolescent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6(4): 223-234.
- Panksepp, J. (1998). *Affective Neuroscience : The Foundation of Human and Animal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esdergast, W. (2004). *Treating Sex Offenders: A guide to clinical practice with adult, clerics,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Haworth Press. New York. London. Oxford.
- Rice, M. E., & Harris, G. T. (2003). The size and sign of treatment effects in sex offender therapy. In R.A. Prentky, M.C. Seto, A. Bugress(eds), *Understanding and Managing Sexually Coersive Behavior* (pp. 428-40).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89.
- Schartz, B. K. (1992). Effective treatment for sex offenders. *Psychiatric Annals*, 22(6), 315-19.
- Salekin, R. T. (2002). Psychopathy and therapeutic pessimism: clinical lore or clinical reali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79-112.
- Seto, M. C., Maric, A., & Barbaree, H. E. (2001).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etiology of sexual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1), 35-53.
- Smallbone, S., Marshall, W., & Wortley, R. (2008).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Willan

Publishing.

- Stermac, L. E., Segal, Z. V., & Gillis, R. (1990).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sexual assault.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 143-158). New York: Plenum Press.
- Thornton, D. (1987). Treatment Effects on Recidivism: A Reappraisal of the 'Nothing Works' Doctrine in B. J., McGurk, D. M. Williams (eds) *Applying Psychology to Imprisonment: theory and Practice*. London: HMSO.
- Tice, D. M. (1991). Esteem protection or enhancement? Self-handicapping motives and attributions differ by trai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711-725.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0).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58, 443-464.
- Tingle, D., Barnard, G. W., Robins, L., Newman, G., & Hutchinson, D. (1986). Childhood and adolescent characteristics of pedophiles and rap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9, 103-116.
- Ward, T., Hudson, S. M., Marshall, W. L., & Siegert, R. J. (1995). Attachment style and intimacy deficits in sex offenders: A theoretical framework.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317-335.
- Ward, T., McCormack, J., Hudson, S. M. (1997). Sexual offenders' perceptions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167-175.
- Ward, T., & Hudson, S.M. (2000). A Self-regulation model of relapse prevention. In D.R. Laws, S. M. Hudson, &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ard, T., & Hudson, S. M. (1998). A Model of the relapse process in sexual offender.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13, 700-25.
- Ward, T., & Siegert, R. J. (2002).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a theory knitting perspective. *Psychology, Crime, and Law*, 8(4), 319-51.
- Ward, T., & Steward, C. A. (2003).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 risk management and good liv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60.
- Wolf, S. C. (1985). A multi-factor model of deviant sexuality.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10, 359-74.
- Wood, R. M., Grossman, L. S., & Fichtner, C. G. (2000). Psychological Assessment, Treatment and outcome with sex offender.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8, 23-41.

부 록

〈부록 1〉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부록 2〉 한국의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전 조사)

〈 부록3 〉 한국의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후 조사)

〈 부록4 〉 한국인의 성 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 부록 1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효과성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여성가족부가 2005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과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전국의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담기관이 보다 개선된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정보가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연구책임자 : 현 혜 순

문의처 : 02-953-1704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해 주세요.

1	성 별	① 여 ② 남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학 력	① 전문대 졸 ② 대졸 ③ 대학원 졸(석사) ④ 대학원 졸(박사)	
4	전 공	① 심리학 ② 사회복지학 ③ 여성학 ④ 교육학 ⑤ 신학 ⑥ 법학 ⑦ 기타 ()	
5	상담경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개인상담 : () 년 집단상담 : () 년
		성폭력 가해자 상담	개인상담 : () 년 집단상담 : () 년
		기타 상담	() 년
6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형태	① 집단 상담 ② 개인 상담 ③ 집단 상담 + 개인 상담	
7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방식	① 주 진행자 ② 보조 진행자 * 보조 진행자라 함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주 진행을 맞지 않고 단지 진행상황을 기록하거나 집단의 역동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은 자를 의미한다.	
8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의 유형 (복수응답 가능)	① 심리 치료 ② 예술 치료 ③ 성교육 ④ 소시오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⑤ 명상 치료 ⑥ 기타 : ()	

1. 귀하가 개인상담한 성폭력가해자는 총 몇 명입니까? (집단상담 참여자 미포함)

-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 ~ 10명 미만 ③ 10명 이상 ~ 20명 미만
 ④ 20명 이상 ~ 30명 미만 ⑤ 30명 이상 ~ 40명 미만
 ⑥ 40명 이상 ~ 50명 미만 ⑦ 50명 이상 ⑧ 없음

2. 귀하가 상담한 성폭력 가해자 집단은 총 몇 집단입니까?

_____ 집단, _____ 명

3. 귀하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할 때 어떤 관점으로 개입하십니까?

- ① 여성주의 관점 ② 인지행동 관점 ③ 여성주의 관점 + 인지행동 관점
 ④ 정신분석 관점 ⑤ 문제해결중심 관점 ⑥ 기타 : _____

3. 귀하가 진행하는 가해자 상담의 훈련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학원의 상담실습 및 슈퍼비전	총 ()시간
상담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훈련	총 ()시간
기관에서의 면접상담 및 슈퍼비전	총 ()시간
기관에서의 성폭력상담원교육(64시간 교육)	총 ()시간
상담기관에서의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워크숍	총 ()시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보수교육	총 ()시간
훈련받지 않았다.	총 ()시간

4. 귀하가 상담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어디에서 의뢰받았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보호관찰소 ② 교도소 ③ 법원 및 검찰 ④ 대학 내 대책위
 ⑤ 가해자 개인 ⑥ 일반회사 ⑦ 노동단체 ⑧ 기타 : _____

5. 어떤 유형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웠나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6.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1)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2) 그 어려움을 본인이나 소속기관에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7. 성폭력 가해자 상담 시 초기 단계에서 귀하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① 라포형성 ②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③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태도 다루기 ④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⑤ 성폭력 개념 이해시키기 ⑥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⑦ 기타 : _____

8. 성폭력 가해자 상담시 중기 단계에서 귀하가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① 라포형성 ② 가해자의 부정적 감정 다루기
③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다루기
④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⑤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⑥ 책임 인정케 하기 ⑦ 기타 : _____

9. 성폭력 가해자 상담 시 종결 단계에서 귀하가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① 피해자 상처 공감시키기 ② 책임 인정케 하기
③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하기 ④ 스트레스 대처기술 증진시키기
⑤ 의사소통기술 향상시키기 ⑥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⑦ 자존감 회복시키기 ⑧ 기타 : _____

10. 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② 자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 _____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11.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가해자와의 관계형성 능력 ② 가해자에 대한 지식
- ③ 가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
- ④ 가해자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 ⑤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케 하는 능력 ⑥ 가해자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
- ⑦ 기타 : _____

12.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결과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책임 인정 ② 왜곡된 인지체계 교정 ③ 분노 조절 ④ 피해자 상처 공감 ⑤ 재발방지 대책 세우기 ⑥ 의사소통기술 향상 ⑦ 자존감 향상

13. 진행자로서 가진 어려움이나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 ① 상담훈련 부족으로 가해자들의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② 가해자들의 뿌리 깊은 통념을 다루는 능력 부족
- ③ 가해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 ④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⑤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⑥ 기타 : _____

14.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 가해자가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귀하는 진행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① 가해자들이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무시했다. ② 문제행동을 지적했다. ③ 퇴장시켰다. ④ 진행자인 내가 진행을 거부했다.

⑤ 집단이 유지되지 못할까봐 비위를 맞췄다. ⑥ 가해자의 방해 이유를 탐색했다. ⑦ 기타 : _____

15. 귀하가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해자 재발방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소/여성가족부/법무부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1)상담원 전문성 확보의 측면

2)보호관찰소 및 교도소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정규화의 측면

3)교정기관의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

4)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현실적 예산지원의 측면

5)법무부/여성가족부의 교정·치료에 대한 관점의 측면

♣ 바쁘신 중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한국의 교정 ·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전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정 ·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건강한 성문화 구축과 인권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으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발전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문의처 : 02-953-1704

■ 질문 1: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항에 표시하세요.

1. 0) 나는 슬프지 않다.
 - 1) 나는 슬프다.
 -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1) 나는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3) 나의 앞날은 매우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 뿐이다.
 -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 3) 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려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렸다고 느낀다.
 -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 3) 나의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차이가 없다.
- 1)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 2)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3) 요즘에는 식욕이 전혀 없다.
19. 0)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1) 전보다 몸무게가 2 Kg 가량 줄었다.
 - 2) 전보다 몸무게가 5 Kg 가량 줄었다.
 - 3) 전보다 몸무게가 7 Kg 가량 줄었다.
-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 아니오)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다.
 -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0) 나는 요즘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질문2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화가 나고 초조하다.	1	2	3	4
3	나는 일시적으로 약간 화가 난다.	1	2	3	4
4	나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다	1	2	3	4
5	나는 물건을 부수고 싶다.	1	2	3	4
6	나는 미칠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7	나는 탁자를 광 치고 싶다.	1	2	3	4
8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1	2	3	4
9	나는 확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10	나는 욕을 퍼붓고 싶다.	1	2	3	4

■ 질문 3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0	1	2	3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0	1	2	3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0	1	2	3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3
7	대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0	1	2	3
8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1	2	3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0	1	2	3
10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	1	2	3

■ 질문 4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2	3	4	5	6	7	8	9
1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1	2	3	4	5	6	7	8	9
2	끼 있는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1	2	3	4	5	6	7	8	9
3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	2	3	4	5	6	7	8	9
4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	2	3	4	5	6	7	8	9
5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	2	3	4	5	6	7	8	9
6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1	2	3	4	5	6	7	8	9
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9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만하다.	1	2	3	4	5	6	7	8	9

번 호	문 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2	3	4	5	6	7	8	9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견 잡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여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 는 다른 남자들에게 쉬운 상대이다.	1	2	3	4	5	6	7	8	9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들은 속으로 는 원하면서도 '안 돼'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8	9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5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여자들은 대부 분 끼 있는 여자이다.	1	2	3	4	5	6	7	8	9
16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들은 주 변의 비난이 두려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 다.	1	2	3	4	5	6	7	8	9
19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1	2	3	4	5	6	7	8	9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7	8	9

■ 질문 5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 의미가 다를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잘 예견한다.	1	2	3	4	5
5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싫증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꼬집어 낼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누군가가 그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 예견하는 것을 잘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	1	2	3	4	5
12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3	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4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우정과 관계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6	나는 종종 어떤 것이 무례한지 공손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왜 당황하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	1	2	3	4	5

■ 질문 6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2	몸을 허락하기로 한 여자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3	어린이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4	(성인)여자에게 강제로 섹스하게 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5	어린이와 섹스를 한다.	1	2	3	4	5
6	낯선 여자를 꼬셔서 섹스를 한다.	1	2	3	4	5
7	몸을 허락하기로 한 (성인)여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8	강간을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9	어린이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0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1	남자에게 스스로 몸을 허락하는 여자가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2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3	아이들이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4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한다.	1	2	3	4	5
15	나가서 누군가를 강간한다.	1	2	3	4	5
16	고정적인 파트너와 강압적인 섹스를 한다.	1	2	3	4	5

■ 질문 7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0	1	2	3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0	1	2	3
5	어떤 일에도 쉽게 몰두할 수 있다.	0	1	2	3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0	1	2	3
7	한 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0	1	2	3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 한다.	0	1	2	3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깊이 고려한다.	0	1	2	3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0	1	2	3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0	1	2	3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0	1	2	3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0	1	2	3
15	앞 뒤 생각이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해결될 때 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0	1	2	3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0	1	2	3
18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0	1	2	3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0	1	2	3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0	1	2	3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이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0	1	2	3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0	1	2	3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0	1	2	3

■ 질문 8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면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1	나는 때때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1	2	3	4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2	3	4
3	교통체증 시에도 나는 항상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나는 종종 상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낸다.	1	2	3	4
6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7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항상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8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1	2	3	4
9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꼭 지킨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흥분다.	1	2	3	4
11	나는 결코 남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12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1	2	3	4
13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1	2	3	4
14	나는 빌린 물건을 최소한 한번은 되돌려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15	나는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1	2	3	4
16	나는 때때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1	2	3	4

■ 질문 9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성충동이 생길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을 하면서 성충동을 해소한다.	1	2	3	4
2	성적 행동에 관한 공상을 하며 자위를 한다.	1	2	3	4
3	성충동에 대해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4	술을 마신다.	1	2	3	4
5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1	2	3	4
6	될 수 있으면 성적 자극을 받는 것을 피한다.	1	2	3	4
7	이성과 데이트하면서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1	2	3	4
8	성충동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9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일에 몰두한다	1	2	3	4
10	성충동이 생기면 성적 대상을 찾는다.	1	2	3	4

■ 질문 10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관계는 서로가 평등한 관계일 때 최대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1	2	3	4
2	여자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3	성관계는 남성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4	성은 사고팔 수 있다.	1	2	3	4
5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한다.	1	2	3	4
6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의 작업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8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9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남성을 앞지를 수 없다.	1	2	3	4
10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1	2	3	4
11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 안 된다.	1	2	3	4

■ 일반적 사항 : 다음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들입니다. 질문의 답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나 내용에 '√' 표시 해주시거나,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별 칭		
2. 성 별	1) ①여성 ②남성	2) 연령 ()세
3.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동거 포함) ③ 이혼(별거 포함) ④ 기타	
4. 학 력	① 무학 ② 초등 중퇴/졸업 ③ 중학 중퇴 또는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⑤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⑥ 대학졸업 ⑦ 대학원 이상	
5. 직 업	① 학생 ② 판매/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임시직/아르바이트 ⑤ 노동/노무직 ⑥ 생산/기능직 ⑦ 농수산 ⑧ 기타 ()	
6. 최초 경찰 입건 연령	① 13세 미만 ② 13~18세 ③ 19세~24세 ④ 25세 이상 ⑤ 해당 없음	
7. 성범죄 유형	①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 ② 접촉은 없었음	
8. 성범죄 전력 횟수	① 5회 이상 ② 4회 ③ 3회 ④ 1회 ⑤ 이번이 처음임	
9. 이전 폭력범죄 전력	① 3회 이상 ② 1~2회 ③ 해당사항 없음	
10. 이번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①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② 친족 ③ 전혀 모르는 사람	
11. 이번 사건 피해자의 유형	①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② 13~18세 ③ 18세 이상	
12. 피해자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13.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	① 1인 ② 2인 이상	
14.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① 10살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② 10살 차이까지는 아니었음	
15. 이번 가해 시 폭력사 용	① 현저한 폭력을 사용했음 ②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음	
16. 이번 가해관련 책임 수용	① 책임을 부인함(항소 등) ② 책임을 수용함	
17. 총 시설수용 기간	① 5년 이상 ② 2~5년 ③ 2년 미만	
18. 현 보호관찰기간 또는 재소기간동안의 문제 행동(징벌경험)	① 있다 ② 없다	
19. 평소 음주정도	① 안함 ② 월 1회 ③ 주 1-2회 ④ 월 2-3회 ⑤ 주 3-5회	
	주량: 소주()병, 맥주()병, 기타()	

■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유형에 '√' 표시를 해주세요. (만일, 귀하가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 동시에 참여하신다면 ③에 표시해주세요)

① 개인상담 프로그램 ② 집단상담 프로그램 ③ 개인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 한국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후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건강한 성문화 구축과 인권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으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발전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문의처 : 02-953-1704

■ 질문1 :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하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항에 '√' 표시하세요.

1. 0) 나는 슬프지 않다.
 - 1) 나는 슬프다.
 -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1) 나는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3) 나의 앞날은 매우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 뿐이다.
 -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 3) 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려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렸다고 느낀다.
 -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 3) 나의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 1)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 2)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3) 요즘에는 식욕이 전혀 없다.
19. 0)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1) 전보다 몸무게가 2 Kg 가량 줄었다.
 - 2) 전보다 몸무게가 5 Kg 가량 줄었다.
 - 3) 전보다 몸무게가 7 Kg 가량 줄었다.
-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 아니오)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다.
 -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0) 나는 요즘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질문2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화가 나고 초조하다.	1	2	3	4
3	나는 일시적으로 약간 화가 난다.	1	2	3	4
4	나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다	1	2	3	4
5	나는 물건을 부수고 싶다.	1	2	3	4
6	나는 미칠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7	나는 탁자를 광 치고 싶다.	1	2	3	4
8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1	2	3	4
9	나는 확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10	나는 욕을 퍼붓고 싶다.	1	2	3	4

■ 질문 3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0	1	2	3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0	1	2	3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0	1	2	3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3
7	대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0	1	2	3
8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1	2	3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0	1	2	3
10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	1	2	3

■ 질문 4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2	3	4	5	6	7	8	9
1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이전에 학대받은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8	9
2	끼 있는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1	2	3	4	5	6	7	8	9
3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1	2	3	4	5	6	7	8	9
4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1	2	3	4	5	6	7	8	9
5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1	2	3	4	5	6	7	8	9
6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1	2	3	4	5	6	7	8	9
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6	7	8	9
9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만 하다.	1	2	3	4	5	6	7	8	9

번호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2	3	4	5	6	7	8	9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견딜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쉬운 상대이다.	1	2	3	4	5	6	7	8	9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들은 속으로는 원하면서도 '안 돼'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8	9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5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1	2	3	4	5	6	7	8	9
16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들은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1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1	2	3	4	5	6	7	8	9
19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1	2	3	4	5	6	7	8	9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7	8	9

■ 질문 5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 의미가 다를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잘 예견한다.	1	2	3	4	5
5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싫증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꼬집어 낼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누군가가 그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 예견하는 것을 잘 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	1	2	3	4	5
12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3	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4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우정과 관계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6	나는 종종 어떤 것이 무례한지 공손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왜 당황하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	1	2	3	4	5

■ 질문 6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2	몸을 허락하기로 한 여자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3	어린이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4	(성인)여자에게 강제로 섹스하게 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5	어린이와 섹스를 한다.	1	2	3	4	5
6	낯선 여자를 꼬셔서 섹스를 한다.	1	2	3	4	5
7	몸을 허락하기로 한 (성인)여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8	강간을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9	어린이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0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1	남자에게 스스로 몸을 허락하는 여자가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2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3	아이들이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4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한다.	1	2	3	4	5
15	나가서 누군가를 강간한다.	1	2	3	4	5
16	고정적인 파트너와 강압적인 섹스를 한다.	1	2	3	4	5

■ 질문 7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0	1	2	3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0	1	2	3
5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0	1	2	3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0	1	2	3
7	한 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0	1	2	3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 한다.	0	1	2	3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깊이 고려한다.	0	1	2	3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0	1	2	3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0	1	2	3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0	1	2	3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0	1	2	3
15	앞 뒤 생각이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해결될 때 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0	1	2	3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0	1	2	3
18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0	1	2	3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0	1	2	3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0	1	2	3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이 때문에 크게 방해 받는다.	0	1	2	3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0	1	2	3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0	1	2	3

■ 질문 8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1	2	3	4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2	3	4
3	교통체증 시에도 나는 항상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나는 종종 상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낸다.	1	2	3	4
6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7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항상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8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1	2	3	4
9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꼭 지킨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흥분한다.	1	2	3	4
11	나는 결코 남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12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1	2	3	4
13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1	2	3	4
14	나는 빌린 물건을 최소한 한번은 되돌려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15	나는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1	2	3	4
16	나는 때때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1	2	3	4

■ 질문 9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성충동이 생길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운동을 하면서 성충동을 해소한다.	1	2	3	4
2	성적 행동에 관한 공상을 하며 자위를 한다.	1	2	3	4
3	성충동에 대해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4	술을 마신다.	1	2	3	4
5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1	2	3	4
6	될 수 있으면 성적 자극을 받는 것을 피한다.	1	2	3	4
7	이성과 데이트하면서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1	2	3	4
8	성충동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9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일에 몰두한다	1	2	3	4
10	성충동이 생기면 성적 대상을 찾는다.	1	2	3	4

■ 질문 10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관계는 서로가 평등한 관계일 때 최대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1	2	3	4
2	여자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3	성관계는 남성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4	성은 사고팔 수 있다.	1	2	3	4
5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한다.	1	2	3	4
6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의 작업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8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9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남성을 앞지를 수 없다.	1	2	3	4
10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1	2	3	4
11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 안 된다.	1	2	3	4

■ 다음은 귀하가 이번에 참여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적합한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2	이 프로그램은 성충동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3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1	2	3	4
4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여성이 평등한 존재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1	2	3	4
5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성폭력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	3	4
6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피해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1	2	3	4
7	성폭력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1	2	3	4
8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쾌적하였다.	1	2	3	4
9	프로그램 진행자는 귀하를 친절하게 해주었다.	1	2	3	4
10	매 회 상담시간은 적절하였다.	1	2	3	4

■ 다음은 프로그램 진행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적합한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이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진행자는 내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었다.	1	2	3	4
2	진행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입장 위주로 교육하려 하였다.	1	2	3	4
3	진행자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1	2	3	4
4	진행자는 프로그램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였다.	1	2	3	4
5	진행자는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갖고 있다.	1	2	3	4

■ 본 프로그램에서 재발방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본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곳에 '√' 표시를 해주세요.



■ 귀하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유형에 '√' 표시를 해주세요.

(만일,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했다면 ③에 표시해 주세요)

①개인상담 프로그램 ②집단상담 프로그램 ③개인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

■ 귀하가 이수한 프로그램의 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 귀하의 별칭은 무엇입니까?

별 칭 ***	
---------	--



긴시간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4 〉 한국인의 성 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성 관련 태도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건강한 성문화 구축과 인권향상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설문지는 모두 2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하시는데 약 40분 내외가 소요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응답 내용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통계처리 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통계법 제 13 조 비밀보호 조항에 의한 준수 사항입니다.

귀하의 고견이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도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문의처 : 02-953-1704

■ 질문 1: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항에 표시하세요.

1. 0) 나는 슬프지 않다.
 - 1) 나는 슬프다.
 -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1) 나는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3) 나의 앞날은 매우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 뿐이다.
 -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 3) 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렸다고 느낀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의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즘에는 식욕이 전혀 없다.

19. 0)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 Kg 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 Kg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 Kg 가량 줄었다.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 아니오)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0) 나는 요즘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질문2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화가 나고 초조하다.	1	2	3	4
3	나는 일시적으로 약간 화가 난다.	1	2	3	4
4	나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다	1	2	3	4
5	나는 물건을 부수고 싶다.	1	2	3	4
6	나는 미칠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7	나는 탁자를 광 치고 싶다.	1	2	3	4
8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1	2	3	4
9	나는 핵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다.	1	2	3	4
10	나는 욕을 퍼붓고 싶다.	1	2	3	4

■ 질문 3: 일반적으로 성충동이 생길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또는 'O'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을 하면서 성충동을 해소한다.	1	2	3	4
2. 성적 행동에 관한 공상을 하며 자위를 한다.	1	2	3	4
3. 성충동에 대해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4. 술을 마신다.	1	2	3	4
5.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1	2	3	4
6. 될 수 있으면 성적 자극을 받는 것을 피한다.	1	2	3	4
7. 여성과 데이트하면서 여성과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1	2	3	4
8. 성충동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9.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일에 몰두한다.	1	2	3	4
10. 성충동이 생기면 성적 대상을 찾는다.	1	2	3	4

■ 질문 4: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0	1	2	3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0	1	2	3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0	1	2	3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3
7. 대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0	1	2	3
8.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1	2	3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0	1	2	3
10.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	1	2	3
11. 속이 상할 때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0	1	2	3
1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다.	0	1	2	3
13. 나는 모임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0	1	2	3
14. 내 주변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0	1	2	3
15.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0	1	2	3
16. 친구들은 내가 버리는 만큼 나와 어울려 주지 않는다.	0	1	2	3
17. 나는 때때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0	1	2	3

■ 질문 5: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현재 당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1	2	3	4	5	6	7	8	9
1.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2. 끼 있는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3.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4.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5.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6.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7.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8.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9.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10.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만하다.									
11. 만일 여자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사태를 검잠을 수 없게 되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2.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쉬운 상대이다.									
13.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들은 속으로는 원하면서도 '안 돼'라고 말한다.									
14.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려는 것이다.									
15.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16.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들은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1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									
1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									
19.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20.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 질문 6: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 의미가 다를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잘 예견한다.	1	2	3	4	5
5.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싫증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끄집어 낼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누군가가 그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가 무엇을 할지 예견하는 것을 잘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	1	2	3	4	5
12.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3. 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요된다.	1	2	3	4	5
14.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우정과 관계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6. 나는 종종 어떤 것이 무례한지 공손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왜 당황하게 하는지 알기 어렵다.	1	2	3	4	5

■ 질문 7: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성적인 욕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할 것 같은지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이성을 만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2. 몸을 허락하기로 한 (성인)여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3. 어린이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4. (성인)여자에게 강제로 섹스하게 하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5. 어린이와 섹스를 한다.	1	2	3	4	5
6. 낯선 성인 여자를 꼬셔서 섹스를 한다.	1	2	3	4	5
7. 몸을 허락하기로 한 (성인)여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8. 강간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9. 어린이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0.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한다.	1	2	3	4	5
11. 남자에게 스스로 몸을 허락하는 여자가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2.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3. 아이들이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	1	2	3	4	5
14.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한다.	1	2	3	4	5
15. 나가서 누군가를 강간한다.	1	2	3	4	5
16. 고정적인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	1	2	3	4	5

■ 질문 8: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나의 입장에 해당하는 곳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0	1	2	3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0	1	2	3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0	1	2	3
5. 어떤 일에도 쉽게 몰두할 수 있다.	0	1	2	3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0	1	2	3
7.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0	1	2	3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0	1	2	3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깊이 고려한다.	0	1	2	3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0	1	2	3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0	1	2	3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0	1	2	3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0	1	2	3
15. 앞 뒤 생각이 없이 행동한다.	0	1	2	3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0	1	2	3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0	1	2	3
18. 특별한 계획없이 기분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0	1	2	3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0	1	2	3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0	1	2	3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이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0	1	2	3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0	1	2	3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0	1	2	3

■ 질문 9: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입장에 해당하는 곳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1	2	3	4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2	3	4
3. 교통체증 시에도 나는 항상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나는 종종 상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낸다.	1	2	3	4
6.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	1	2	3	4
7.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항상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8.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1	2	3	4
9.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꼭 지킨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흥분한다.	1	2	3	4
11. 나는 결코 남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12.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1	2	3	4
13.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1	2	3	4
14. 나는 빌린 물건을 최소한 한번은 되돌려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15. 나는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1	2	3	4
16. 나는 때때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1	2	3	4

■ 질문 10: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또는 'o'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2.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1	2
3.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4.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구토나 멀미, 어지러움, 두통 등)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	2

■ 질문 11: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의 현재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관계는 서로가 평등한 관계일 때 최대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1	2	3	4
2. 여자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3. 성관계는 남성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4. 성은 사고팔 수 있다.	1	2	3	4
5.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한다.	1	2	3	4
6.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의 작업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8.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1	2	3	4
9.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남성을 앞지를 수 없다.	1	2	3	4
10.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1	2	3	4
11.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 는 안 된다.	1	2	3	4

■ 질문 12: 다음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각 단어들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그 정도를 옆에 제시된 숫자에 '√ 또는 ○' 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음	드물게 느낌	종종 느낌	대개 느낌	거의 항상 느낌
1.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1	2	3	4	5
3. 자의식을 느낀다. (남이 날 보는 것 같다.)	1	2	3	4	5
4. 창피하다.	1	2	3	4	5
5. 바보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6. 유치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7. 무력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8. 부끄럽다.	1	2	3	4	5
9.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10. 타인에게 정 떨어진다.	1	2	3	4	5

■ 질문 13 : 아래 내용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을 읽어보고 그 문장이 최근 1년 동안 당신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나와 완전히 다름	나와 대부분 다름	나와 약간 다름	나와 약간 일치함	나와 대부분 일치함	나와 완전히 일치함
1. 내게는 나를 보살펴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3.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4.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감싸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5. 나는 주변사람들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내게는 그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6
6.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내가 방심하면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던 적이 없다.	1	2	3	4	5	6
8.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9.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1	2	3	4	5	6
10. 진정으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내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11.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려 한다고 느끼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1	2	3	4	5	6
1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1	2	3	4	5	6
13.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다.	1	2	3	4	5	6
14.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떠나버릴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버린다.	1	2	3	4	5	6
15. 나는 보통 상대방이 무슨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한다.	1	2	3	4	5	6

■ 질문 14: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당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말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1	2	3
2. 나의 가치에 대해 자랑하고 다닌다.	1	2	3
3. 가벼운 거짓말로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습관이 있다.	1	2	3
4. 다른 사람의 속임수를 경멸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1	2	3
5.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6.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1	2	3
7. 매사에 냉담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1	2	3
8. 자기가 실패한 일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	1	2	3
9.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함이 많다.	1	2	3
10.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	2	3
11. 나쁜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12. 영유아기 때 잔인한 짓을 많이 하였다.	1	2	3
13.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를 길게 끌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14. 매사에 충동적이다.	1	2	3
15. 무책임하다.	1	2	3
16. 청소년기에 비행 경험이 많다.	1	2	3
17. 약속을 잘 깬다.	1	2	3
18. 아무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1	2	3
19. 여러 번 짧은 연애를 했다.	1	2	3
20.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며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한다.	1	2	3

■ 질문 15: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 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	1	2	3	4	5
3. 내게 일어난 일 대신 다른 즐거운 일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4.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8.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1	2	3	4	5
9.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그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12.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나는 즐거웠던 일을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16. 그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20.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다.	1	2	3	4	5
22.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23. 그 상황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2	3	4	5
24. 내가 겪은 일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25. 다른 일에 비하면 그 일이 그렇게 나쁜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28.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그 일에 대해 남들이 잘못된 점을 생각한다.	1	2	3	4	5
30. 살다보면 더 나쁜 일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1	2	3	4	5
31. 나는 그 일이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1	2	3	4	5
32.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33.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1	2	3	4	5
34. 나는 그 문제가 내가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5.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고 싶다.	1	2	3	4	5
36. 내가 겪은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 일반적 사항 : 다음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들입니다. 질문의 답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나 내용에 '√' 표시 해주시거나,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별 칭		
2. 성 별	1) ①여성 ②남성	2) 연령 ()세
3. 결혼 상태	①미혼 ②기혼(동거 포함) ③이혼(별거 포함) ④기타	
4. 학 력	①무학 ②초등 중퇴/졸업 ③중학 중퇴 또는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이하 ⑤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⑥대학졸업 ⑦대학원 이상	
5. 직 업	①학생 ②판매/서비스직 ③사무직 ④임시직/아르바이트 ⑤노동/노무직 ⑥생산/기능직 ⑦농수산 ⑧기타()	
6. 최초 경찰 입건연령	①13세 미만 ②13~18세 ③19세~24세 ④25세 이상 ⑤해당 없음	
7. 성범죄 유형	①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 ② 접촉은 없었음	
8. 성범죄 전력 횟수	①5회 이상 ②4회 ③3회 ④1회 ⑤이번이 처음임	
9. 이전 폭력범죄 전력	① 3회 이상 ② 1~2회 ③ 해당사항 없음	
10. 이번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①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② 친족 ③ 전혀 모르는 사람	
11. 이번 사건 피해자의 유형	①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② 13~18세 ③ 18세 이상	
12. 피해자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13.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	① 1인 ② 2인 이상	
14.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	① 10살 이상 현저한 차이 ② 10살 차이까지는 아니었음	
15. 이번 가해 시 폭력 사용	① 현저한 폭력을 사용했음 ②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음	
16. 이번 가해관련 책임 수용	① 책임을 부인함(항소 등) ② 책임을 수용함	
17. 충 시설수용 기간	①5년 이상 ②2~5년 ③2년 미만	
18. 현 보호관찰기간 또는 재소기간동안의 문제행동 (징벌경험)	① 있다 ② 없다	
19. 평소 음주정도	①안함 ②월 1회 ③주 1-2회 ④월 2-3회 ⑤주 3-5회	
	주량: 소주()병, 맥주()병, 기타()	

■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유형에 '√' 표시를 해주세요.(만일, 귀하가 '집단 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 동시에 참여하신다면 ③에 표시해주세요)

① 개인상담 프로그램 ② 집단상담 프로그램 ③ 개인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 2010-39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효과성 분석

2010년 12월 30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백 희 영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전화 / 02-2075-4500 (代)

인쇄처 : 마로니에 기획

전화 / 02-743-3900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074-01